



흥보가 바디별 전집 4

박봉술 바디

Bak Bong-sul Version Heungboga
(Sung by Song Sun-seop)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호모가 바머별 전집 4

2009년 11월 25일 인쇄

2009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최동현, 번역: 박승배

감수: 최동현, Philip Owen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625-9 04810

978-89-5925-621-1 (전4권)



홍익가

바디별 전자기 4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홍보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홍보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홍보가〉, 2권은 〈박록주 바디 박송희 창 홍보가〉와 〈박초월 바디 김수연 창 홍보가〉, 3권은 〈박초월 바디 조통달 창 홍보가〉와 〈강도근 바디 전인삼 창 홍보가〉, 4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홍보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홍보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은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보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다. 그래도 잘못된 번역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변명할 뿐이다.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올해에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다섯 종목이 유네스코에 의해 한꺼번에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언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지는 하지만, 선정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류 구전 무형 유산’ 선정 때는 자부심을 느끼다가도 조금 지나면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부터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는 데도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궁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09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1. 놀보 심술	12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16
3. 홍보 아내 탄식	20
4. 홍보 차림새	24
5. 돈타령	28
6. 홍보 아내 만류	34
7. 병영 길	36
8. 홍보 헛걸음	40
9. 홍보 아내 좋아함	46
10.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48
11. 홍보 애원	50
12. 놀보 매질	56
13. 홍보 탄식	60
14. 홍보 아내 탄식	64
15. 중타령	68
16.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70
17. 집터 글자	74
18. 홍보가 제비 구원	76
19. 제비 점고	80

20. 제비 노정기	82
21. 가난타령	90
22. 첫째 박	94
23. 쌀과 돈이 많이 나옴	98
24. 돈타령	102
25. 흥보 식구들 밥먹기	104
26-1. 밥타령, 둘째 박	112
26-2. 둘째 박	114
27. 비단타령	114
28. 흥보 내외 옷차림	120
29. 셋째 박	122
30. 흥보 집 짓기	124
31. 놀보가 흥보 집을 찾아옴	128
32. 음식상 차림	132
33. 흥보 아내 포악	136
34. 화초장 타령	138
35. 놀보 제비 몰러 나감	146
36. 놀보 제비다리 부러뜨림	150
37. 놀보 제비 노정기	154
38. 놀보 첫째 박	162
39. 노인 등장	166
40. 놀보 애걸	168
41. 능천낭 내력	170
42. 놀보 둘째 박	172
43. 상여 등장	174

44. 놀보 셋째 박탐	178
45. 양산도, 장타령	182
46. 귀 자 노래	184
47. 놀보 아내 만류	186
48. 장비 등장	188
49. 홍보 애원	190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송순섭 창

Sung by Song Sun-seop

1. (놀보 심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가 만나는 지역에
놀보와 흥보 형제가 살았는데, 형 놀보는 심술이 사납기
로 유명하였다.

[아니리] 우리 동방¹⁾이 군자지국²⁾이요, 예의지방³⁾이라.
십설지읍⁴⁾에도 충신⁵⁾이 있고,
칠세유아⁶⁾도 효제⁷⁾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⁸⁾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시절⁹⁾에도 사흉¹⁰⁾이 났었고,
공자님 당년¹¹⁾에도 도척¹²⁾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¹³⁾ 여기¹⁴⁾를 인력으로 할 수가 있나?
전라도에는 운봉이 있고,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는데,
운봉 · 함양 두 얼품¹⁵⁾에 박씨 형제가 살았으되,
형 이름은 놀보요, 아우 이름은 흥보였다.
사람마다 다 오장¹⁶⁾이 육본디,¹⁷⁾ 놀보는 오장이 칠보¹⁸⁾것다.
어찌하여 칠본고¹⁹⁾ 하니,
왼쪽 갈비 속에 가서 장기 궁작²⁰⁾만한 심술보 하나가 병부²¹⁾ 줌치²²⁾
찬 듯 딱 엉겨붙어가지고,
이놈이 밥 곧 처먹으면 남한테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리겠다.

[자진모리] 놀보 심사 볼작시면²³⁾

술 잘 먹고, 씹²⁴⁾ 잘 허기,
대장군방²⁵⁾ 별목²⁶⁾시켜,
오귀방²⁷⁾ 이사 권코,²⁸⁾
삼살방²⁹⁾ 집지으라 허고,
남의 노적³⁰⁾에 불 지르고,
불 붙는 데 부채질,

1. (Nolbo's Perverseness) Two brothers, Nolbo and Heungbo, lived near the border between Gye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The elder brother, Nolbo, was notorious for his perverseness.

[Aniri] Korea has been a country of virtue.
There is a loyal subject even in a small village.
Even a young child is nice to his parents and siblings.
How could there be a bad person?
But there were robbers even during the peaceful time.
There was a thief even in the period of Confucius.
Perhaps evil is beyond human control.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Two Bak brothers lived in a region where Unbong comes in contact with Hamyang.
The elder brother is Nolbo, and the younger brother is Heungbo.
Unlike other human beings, Nolbo has an extra internal organ.
Let me speak about the extra organ.
A perversity bag of two inches is firmly attached to his left ribs.
If Nolbo eats food, the perversity bag generates perverse acts as follows:
[Jajinmori] Let's talk about Nolbo's perverse acts.
He drinks and fights well.
He tells others to cut down trees to bring them bad luck.
He encourages people to move to unlucky sites.
He tells people to build houses in unlucky sites.
He burns others' stacks of grain.
He fans burning houses.

새 초분³¹⁾에도 불지르고,
 상인³²⁾ 잡고 춤추기와
 소대상³³⁾에 주정³⁴⁾ 내어 남의 제상³⁵⁾ 깨뜨리고,
 길 가는 과객³⁶⁾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 다 지면 내어 쫓고,
 의원 보면은 침 도적질,
 지관³⁷⁾ 보면은 쇠³⁸⁾ 감추고,
 새 갓 보면 땀때³⁹⁾ 떼고,
 좋은 망건⁴⁰⁾ 편자⁴¹⁾ 꿇고,
 새 미투리⁴²⁾는 앞총⁴³⁾ 타고,⁴⁴⁾
 만석당혜⁴⁵⁾ 운두⁴⁶⁾ 꿇고,
 다 큰 큰애기 겁탈,⁴⁷⁾
 수절 과부⁴⁸⁾는 모함잡고,⁴⁹⁾
 음녀⁵⁰⁾ 보면은 칭찬하고,
 열녀 보면 해담⁵¹⁾하기,
 돈 세는데 말 문기와 글 쓰는데 옆⁵²⁾ 쭈시고,
 사주병⁵³⁾에 비상⁵⁴⁾ 넣고,
 제주병⁵⁵⁾에다 가래침 받고,
 웅기 진 놈 가래⁵⁶⁾ 뜨고,⁵⁷⁾
 사기짐⁵⁸⁾은 작대기 차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값히고,⁵⁹⁾
 새암⁶⁰⁾ 가상에⁶¹⁾ 허방을 놓고,⁶²⁾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꺾사동이⁶³⁾는 뒤집어놓고,
 앓은맹이는 택견⁶⁴⁾허고,
 이런 육시⁶⁵⁾를 혈 놈이 심술이 이래노니,⁶⁶⁾

He burns dead bodies.
He holds a mourner and dances with him.
He goes drunk and speaks gibberish words during an annual ritual.
He detains travelers as if he will provide a place to sleep, but kicks them out after the sun has set.
He steals acupuncture needles from doctors.
He conceals a compass from a geomancers.
He takes thread off a new cylindrical hat.
He cuts a string off of a good headband.
He sews shoes in a bad manner.
He cuts off shoes.
He rapes young ladies.
He puts false charges on faithful widows.
He praises a loose girl.
He speaks ill of a virtuous girl.
He speaks to a person counting money, and pokes the flank of a person writing something.
He pours a poison into snake wine.
He spits into a bottle for a ritual.
He grabs the crotch of a person carrying pots.
He kicks away the prop of an A-frame carrier.
He lets a crying baby suck his toe.
He presses down men relieving themselves.
He digs holes near wells.
He drives stakes into young pumpkins.
He lays hunchbacks on their back.
He kicks crippled people.
This detestable person acts perversely like above.

삼강⁶⁷⁾을 아느냐? 오륜⁶⁸⁾을 아느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이런 난장⁶⁹⁾을 맞을 놈이,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하루는 놀보가 공연한 트집을 잡아 홍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니, 홍보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면서 떠나간다.

[아니리] 심술이 이래노니, 삼강오륜을 알며,

형제 윤기인들⁷⁰⁾ 알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이놈이 비 오고, 안개 담뱃⁷¹⁾ 낀 날 와가리⁷²⁾ 성음⁷³⁾을 내어 가지고 제 동생 홍보를 부르는디,

“네 이놈, 홍보야!”

홍보 깜짝 놀래, “형님, 저를 불러 계시옵니까?”⁷⁴⁾

“오냐, 너 불렀다. 네 이놈, 네 자식들 장가를 보냈으면 손자를 몇을 보았겠느냐?

너 이놈, 늙어가는 형만 믿고, 집안에서 헐 일 하나 없이 되똥되똥⁷⁵⁾ 슬슬 돌아다니는 게 내 논공댕이⁷⁶⁾가 시어⁷⁷⁾ 보아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오늘부터는 네 계집, 자식 짝⁷⁸⁾ 데리고 나가거라.”

“아이고, 형님.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고 무엇이고 쓸데없어, 썩 나가!

너 내 성질 잘 알제, 잉?

만일 안 나가서는 이놈 살육지환⁷⁹⁾이 날 것이다.

어서 썩 나가, 이놈아!”

[중모레] 홍보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별안간 나가라 허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엄동⁸⁰⁾ 설한풍에⁸¹⁾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Would he know about the basic ethical rules?
This immoral person should be hit all over his body.

2. (Nolbo Kicks Heungbo Out.) One day, Nolbo makes a false charge against Heungbo and tells him to get out of his house. Heungbo's family leaves in tears.

[Aniri] Since Nolbo is perverse, he doesn't know the basic ethical rules.

How can he know the moral rules related to brothers?

On a rainy and foggy day, Nolbo calls his brother, Heungbo.
His voice is like that of a heron.

"You villain! Heungbo!"

Heungbo is surprised. "Did you call me brother?"

"Yes, I called you, bastard! You are of the age now to have grandchildren if your children were married.

I am getting old. I hate to see you rely on me and hang around in the house without doing anything.

Get out of this house with your wife and children today."

"Brother, please forgive me once."

"This is not the problem of forgiving or not forgiving.

You know my hot temper. Right?

If you don't get out, you will die a cruel death.

Get out now. You scoundrel!"

[Jungmori] Heungbo is stunned. "Brother, you are suddenly telling me to get out.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in this cold winter?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⁸²⁾ 주려⁸³⁾ 죽던 수양산⁸⁴⁾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 번만 통촉⁸⁵⁾허옵소서.”

“이놈, 내가 너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홍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⁸⁶⁾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 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 지고, 놀보 앞에 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잘 가거라.”

울며불며 나갈 적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생전⁸⁷⁾에는 네 것,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에 호의호식⁸⁸⁾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아
세상분별⁸⁹⁾을 몰랐더니,

홍보놈의 신세⁹⁰⁾가 일조⁹¹⁾에 이리 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⁹²⁾ 산중⁹³⁾으로 가자.

경상도는 태백산, 전라도로는 지리산,

산중에⁹⁴⁾ 가 사자허니⁹⁵⁾ 백물⁹⁶⁾이 귀하여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⁹⁷⁾으로 가자.

Should I go to Jiri Mountain?
 Should I go to Shouyang(首陽) Mountain where ancient royal
 subjects died of hunger?"
 Brother, please be nice to me."
 "Bastard, should I tell you where to go? Don't argue with me.
 Just leave."
 Struck dumb, Heungbo goes into the house.
 "Honey, listen. My brother tells us to get out of this house. We
 cannot disobey his order. We have no choice but to leave.
 Bring the children.
 Where is the first son?
 The second one, come here."
 Heungbo's family pack up things and stand in front of Nollbo
 in a row.
 "Brother, take good care of yourself."
 "So long."
 They leave in tears.
 "How miserable my fate is!
 When my parents were alive, my brother and I got along and
 shared everything.
 We had enough clothes and food for the rest of our lives.
 I didn't know the world was cruel.
 Nobody knew my fate would go down like this in a day.
 Oh, dear wife!
 Where should we go?
 OK, let's go to a mountain.
 Taebaek Mountain is in Gyeongsang Province; Jiri Mountain in
 Jeolla Province.
 But we can't live on a mountain because daily necessities are
 scarce there.
 OK, let's go to a city.

일 원산, 이 강경,⁹⁸⁾ 삼 포주,⁹⁹⁾ 사 법성,¹⁰⁰⁾ 도방에 가 살자허니,
비린내 찌우어¹⁰¹⁾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허니, 경우¹⁰²⁾를 모르니 따귀¹⁰³⁾만 맞고,
충청도 가 살자허니, 양반들이 억세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간단 말이나?”

3. (홍보 아내 탄식) 홍보네가 고생하며 사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조르자, 홍보 아내가 집안 형편을 생 각하며 탄식한다.

[아니리] 그렇저렇 돌아다닐 적에,
고을예를 찾아들면 객사¹⁰⁴⁾ 동대청¹⁰⁵⁾에도 좌기¹⁰⁶⁾를 하여보고,
마누라 시켜 밥 얻어오면,
고추장 아니 얻어왔다고 담뱃대로 때려도 보고,
홍보가 이렇게 풍마우습¹⁰⁷⁾을 겪을 적에 어찌 되겠느냐?
그렇저렇¹⁰⁸⁾ 성현동 복덕춘¹⁰⁹⁾을 당도하니 일간초옥¹¹⁰⁾이 비었거늘,
그 동네 사람들이 홍보 내외를 인권¹¹¹⁾하여,
거기다가 잠시 몸을 의탁하여 있을 적에,
홍보 내외 금슬¹¹²⁾은 좋던가 자식들을 낳았으되,
깜부기¹¹³⁾ 하나 없이 아들만 꼭 열아홉을 조롯이¹¹⁴⁾ 낳았겠다.
권술¹¹⁵⁾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홍보 자식들이 배가 고파노니,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저희 어머니를 조르는데,
이런 가관¹¹⁶⁾이 없던가 보더라.

Weonsan, Ganggyeong, Poju, and Beopseong are the possible cities. But we can't live in a city because there are bad smells. OK, let's go to Seoul.

We can't live in Seoul because we don't know the etiquette and would be hit on the cheek.

We can't live in Chungchung Province because high class people would harrass us.

Where should we go?"

3. (Heungbo's Wife Sighs.) The life of Heungbo's family is hard. The oldest son asks to get him a girl to marry. Heungbo's wife laments over their fate.

[Aniri] Heungbo's family travels around.

They arrive at a village, and sit on the hall of a house for guests. Heungbo asks his wife to beg some food from villagers.

He accuses her of not begging for pepper paste.

Heungbo undergoes hardships as described above.

Heungbo's family somehow arrives at Virtue Village and sees an empty straw-roofed house with a room.

The villagers recommend the house to Heungbo's family.

They live in the house for a while.

Heungbo and his wife got along well, so they had a lot of children.

All of them are sons, and none of them is deformed.

There are many children, but having no food, they are hungry.

They badger their mother for rice and rice cake.

This is quite a show.

한 놈이 나왔으며, “아니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고파 나 죽겠소. 밥 좀 주오, 밥 좀 주오.”

또 한 놈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거 호박시루떡¹¹⁷⁾ 좀 해주시오. 그놈이 거 두 가지로 답니다.

파수면¹¹⁸⁾ 파쉬도¹¹⁹⁾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시루떡이 달지요.”

또 한 놈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거 육개장국¹²⁰⁾에다가 허연 쌀밥 좀 말아주시오.”

“어나, 오죽이나 먹고 싶겠느냐.”

또 한 놈 나왔더니마는, “어머니, 나는 거 영계찜,¹²¹⁾ 생치구이,¹²²⁾ 어만두,¹²³⁾ 육만두,¹²⁴⁾ 두루산적¹²⁵⁾ 좀 해주시오. 먹어 볼라요.”

“어따,¹²⁶⁾ 그놈 입맛 도저하게¹²⁷⁾ 안다.”

또 한 놈이 나왔으며, “아따 그놈들이 음식 타령을 해놓으니까 속이 니웃니웃하여¹²⁸⁾ 죽겠구려.

나는 아무것도 말고 우유차나 한 그릇 뜨끈뜨끈하게 끓여주시오. 먹어 볼라요.”

“아이고, 이놈아. 나는 우유차 이름도 모른다.”

홍보 큰아들¹²⁹⁾놈이 썩 나왔더니마는,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왜 코 안 뚫은 고동부사리¹³⁰⁾ 목성음¹³¹⁾으로 어미를 부르느냐?”

“어머니 아버지 공론¹³²⁾하고,

나 장가 좀 보내 주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거 손자도 안 늙어가요?”

홍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조]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우리가 형세¹³³⁾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One steps forward. "Mom, I am starving to death. Please give me something to eat. Rice, please."

Another speaks, "Mom, please make a pumpkin rice cake for me.

A pumpkin rice cake is sweet in two ways.

A pumpkin rice cake is so sweet whether it is hot or cold."

Another moves forward. "Mom, give me a bowl of hot spicy meat soup with pepper and white rice."

"I know you really want to eat it."

Another says "Mom, I want to eat a young chicken, a roasted pheasant, a fish dumpling, a meat dumpling, and roasted meat with vegetables."

"Gee, you are a gourmet."

Another speaks. "Because they talked about food a lot, I feel like throwing up.

I would like nothing but a bowl of hot milk tea. I want to try it."

"You rascal. I have never heard of milk tea."

The eldest son moves forward.

"Mother!"

"You rascal! Why do you call me like a strong bull which needs a nose ring?

"Please discuss my marriage with father.

I want to be married.

Don't you want to see a grandchild?"

Heungbo's wife responds.

[Jinyangjo] "God! You rascal! Listen!

If we were rich, you would be married.

중한 가장¹³⁴)을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¹³⁵)이 다 녹는다, 이놈아.”

4. (홍보 차림새) 홍보가 관가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기 위해, 다 떨어진 의복을 차려 입고 나간다.

[아니레]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홍보가 들어오더니마는,
“시끄러워! 집안에서 여편네가 항시 양양 울었싸면¹³⁶) 재수¹³⁷)가 있어야지?”

거, 울지 마소.

나 오늘 읍내나 좀 다녀올라네.”

“아니, 읍에는 뭇하러 가신단 말ियो?”

“환자섬¹³⁸)이나 타다가 자식들 살려내야 할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애¹³⁹) 지금 환자 떼먹고 도망간다고 주지 았을 터이니, 함부로 가지 마시오.”

“응? 계집이 요망시럽게.

아, 거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닌가?

사구일생 잡고¹⁴⁰) 한번 가보는 거지.

내 갓 좀 내 오소.”

“갓은 어디다 두었어요?”

“아, 뒀안 굴뚝 속에 두었지.”

“아이고, 이 양반¹⁴¹)아. 어찌 갓을 굴뚝 속에다 두었던 말ियो?”

“그런 게 아니라,

My husband wouldn't be starving.
The children wouldn't be shabby.
I feel bad because I can't give them food and good clothes. You rascal."

4. (Heungbo's Appearance) Heungbo goes out in shabby clothes to get food from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iri] While Heungbo's wife weeps, Heungbo comes in.
"Stop weeping. If a woman keeps crying in a house, the whole family is unlucky."
Don't cry.
Let me go downtown."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Let me borrow a bag of relief rice from the government office for the children."
"Because we are poor, they will not give us rice, afraid that we will run away with the rice. So don't go there."
"This woman is saying ominous words.
Do you always move only when you are guaranteed to get something?
This is my desperate attempt to help us.
Please bring me my cylindrical hat."
"Where did you put it?"
"I put it in the chimney in the backyard."
"How foolish you were! Why did you put the hat in the chimney?"
"Let me tell you the reason.

어떤 친한 친구 한 분이, 신묘년 조대비 국상 때¹⁴²⁾ 쓰던 백립¹⁴³⁾이
바닥이 존존하니¹⁴⁴⁾ 좋다고 날더러 고쳐 쓰라고 주데그려.

아, 이 사람아. 내 정상에 갓방¹⁴⁵⁾에 맡겨 뜨지해¹⁴⁶⁾ 쓸 수 있나.
그을음에 끄슬려¹⁴⁷⁾ 쓸러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¹⁴⁸⁾ 좀 내 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아, 장¹⁴⁹⁾ 안에 두었지.”

“아이고, 이 양반아.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지랄허고 있다, 시방.¹⁵⁰⁾ 달구장¹⁵¹⁾은 장이 아닌가?

덕석¹⁵²⁾ 구녁¹⁵³⁾에 내 조대¹⁵⁴⁾도 좀 내오고.”

홍보가 차림차림¹⁵⁵⁾을 차리는데,¹⁵⁶⁾

[자진모리] 철대¹⁵⁷⁾ 떨어진 현 파립¹⁵⁸⁾

벌잇줄¹⁵⁹⁾ 총총¹⁶⁰⁾ 매어 조새갓끈¹⁶¹⁾을 달아서,

편자¹⁶²⁾ 떨어진 현 망건,

갓풀관자,¹⁶³⁾ 종이당줄¹⁶⁴⁾ 두통나게¹⁶⁵⁾ 줄라매고,

자락¹⁶⁶⁾ 떨어진 현 중치막,¹⁶⁷⁾

열두 도막 이은 띠 홍복통¹⁶⁸⁾ 눌러 띠고,

세살부채¹⁶⁹⁾를 손에다 들고,

복송씨¹⁷⁰⁾로 선추¹⁷¹⁾ 달아 활활활활 부치면서,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 자 걸음¹⁷²⁾으로,

이리저리 저리이리 어식비식¹⁷³⁾ 내려오다가,

A close friend of mine gave me a white cylindrical hat during the state funeral of a king's mother, saying that its base was beautiful, and it needed to be mended a little.

I can't afford to take it to the repair shop.

I intended to make it black with the soot in the chimney.

Bring a coat to me."

"Where did you put the coat?"

"I put it in the wardrobe."

"How foolish you are! Do we have a wardrobe in this house?"

"You are foolish. Isn't the hencoop our wardrobe?"

Also, bring me my stone pipe from the hole in the straw mat."

Heungbo dresses up as follows:

[Jajinmori] The frame at the edge of his old hat is broken.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on his chin.

A string hangs down from his old headband.

He fastened it tight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The bottom part of his coat is worn out.

A string of twelve pieces is tied around between his chest and belly.

He holds a fan with only three ribs.

He moves the fan to which a peach seed is attached.

He swaggers as an upper class person should.

He walks unsteadily and unnaturally.

5. (돈타령) 홍보가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아, 돈타령
을 부르며 돌아오자, 홍보 마누라도 돈타령을 하며 좋아
한다.

[아니리]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기제.¹⁷⁴⁾

환자호방¹⁷⁵⁾하고 인사할 일이 걱정이여.

“하시오’¹⁷⁶⁾를 하자니, 나는 반남 박 가¹⁷⁷⁾ 양반인디, 내가 아썩¹⁷⁸⁾
밋지겠고,¹⁷⁹⁾

‘하소’¹⁸⁰⁾를 하자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요,
이 일을 어쩔꼬?”

허고 내려가다가 제 손수 자다가 꿈 깨듯허것다.

‘웁다, 생각했다. 내가 웃음으로 좀 따져볼밖에.’¹⁸¹⁾

질청¹⁸²⁾ 안을 썩 들어가니,

아전들이 우¹⁸³⁾ 일어나며,

“아니, 이거 박생원¹⁸⁴⁾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알아맞혔어. 헤헤헤헤.

거 뉘 아니라고 하디?¹⁸⁵⁾

환자호방 댁내¹⁸⁶⁾ 다 평안허시고? 헤헤헤.”

“예. 우리야 다 편소마는¹⁸⁷⁾ 박생원 백씨장¹⁸⁸⁾ 기후¹⁸⁹⁾ 안녕하시오?”

“우리 형님이야 여전허시제.¹⁹⁰⁾ 헤헤헤헤.”

“아니, 박생원. 어찌 오셨소?”

“환자호방한테 문의¹⁹¹⁾가 있어 왔지마는,

거 들어주실지, 앓을지 모르지. 헤헤헤.”

“문의라니, 무슨 말씀이요?”

“권술¹⁹²⁾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삼¹⁹³⁾이나 주시면 갖다 먹고,

5. (Money Song) On the promise to be caned for money, Heungbo comes back home with the money while singing the money song. His wife is also ecstatic and sings the money song.

[Aniri] Suddenly, Heungbo is worried about something.
How should I talk to the officer in charge of relief rice?
“I can’t say ‘Would you please.’ because I am from a high class family.
I can’t say ‘Do it’ because the officer will be offended.
How should I talk to him?”
While talking to himself, he hits upon an idea.
‘I got an idea. I will cover this thorny issue with my laughter.’
He goes into the government compound.
Officer run to him fast.
“Oh, is hat you, Mr. Bak?”
“Yes, you’re right. Hehehehe.
That’s absolutely right.
How is your family? Are they all right? Hehehe.”
“Everyone in my family is fine. How about you and your brother?”
“My brother is fine as usual. Hehehehe.”
“By the way, Mr. Bak, what brought you here?”
“I am here to ask something of the officer who is in charge of the relief rice.
I am not sure whether he will grant my wish or not. Hehehe.”
“What is your wish?”
“I have a big family but no food.
Relief rice would be great for us.

가을에 착실히 갠아드리지요마는,

거 주실지 않을지 모르지. 헤헤헤헤.”

“아, 박생원 백씨장이 천석꾼¹⁹⁴ 부잔디 환자 자신단¹⁹⁵ 말이 웬 말이오?”

“아무리 형제간의 것이라도 너무 자주 갠다 먹고 보니까 염치가 없더 구만그려. 헤헤헤헤.”

“그러실 것이오. 박생원, 그러지 말고 품¹⁹⁶ 하나 팔아보실랴요?.”

“아,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박생원 곤장¹⁹⁷ 여남은¹⁹⁸ 맞어 보실랴요?”

홍보가 곤장 말을 듣더니마는 갑자기 헛바닥이 뽕오리채¹⁹⁹ 돌아가
듯 허것다.

“아니, 여보, 고을²⁰⁰이라고 찾아오니까 별안간 곤장 말이 웬 말이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²⁰¹가 영문²⁰²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만²⁰³ 맞으면,

매샷²⁰⁴은 한 개에 석 냥씩, 열 개면 서른 냥이요,

누구든지 말타고 다녀오라는 마샷²⁰⁵ 닷 냥까지 제지해²⁰⁶ 났으니,
그 일 한번 안 해보실랴요?”

홍보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

돈 삼십냥을 가졌으면 우선 호기²⁰⁷가 될 듯하여,

“여보시오, 그 일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 없고 정갱이말²⁰⁸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닷 냥 날 내주시오.”

“아, 글랑 그리 하오.”

[중모레] 저 아전 거동²⁰⁹을 보아라.

케문²¹⁰을 철컹²¹¹ 열고 돈 닷 냥을 내어주니,

I will return it this fall without fail.

I don't know whether you will give me rice or not. Hehehehe."

"How can you ask for relief rice when your brother is a millionaire?"

"A sense of shame prevents me from borrowing rice from him again and again. Hehehehe."

"I understand. Mr. Bak, why don't you work for money?"

"Oh, I'd be happy to anything to make money."

"Mr. Bak, are you willing to be caned a dozen times?"

Upon hearing about being caned, Heungbo is suddenly petrified.

"I visited this government office. Out of blue, you are talking about being caned."

"Let me tell you a story.

An influential man in our town is detained in the military office.

Be beaten with a cudgel ten times on his behalf.

And you will make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You will also be given an extra 5 dollars for a horse ride.

Are you interested?"

Heungbo broods over the suggestion.

With 30 dollars, his family can be relieved of hunger.

"Hello, arrange the matter for me.

I don't need a horse ride. I will walk there instead.

Give me the 5 dollars."

"No problem."

[Jungmori] Behold that officer.

He opens a coffer, making loud sound, and gives 5 dollars to Heungbo.

홍보가 받아 들고,

“나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척 밖예를 썩 나서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²¹²⁾이 다 보여도,

조금 있다가 떼고 보면 보이는 게 돈밖에 또 있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올라오며,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돈반²¹³⁾어치를 사
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돈 어치를 사서 먹고,

비지²¹⁴⁾ 집으로 들어간다.

“여보, 비지장수. 비지를 돈반 어치만 주시오.”

구지러헌²¹⁵⁾ 음식을 사서 먹고,

어깨를 늘이우고,²¹⁶⁾ 죽통²¹⁷⁾을 빼뜨리며,²¹⁸⁾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 줌도²¹⁹⁾ 좋네.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²²⁰⁾ 서른닷 냥이 떠들어를²²¹⁾ 간다.”

저의 집으로 들어오며,

“여보소, 마누라! 집안 가군²²²⁾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루²²³⁾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제,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²²⁴⁾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몸쓸 사람.”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박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Heungbo takes the money.

"I am going there now."

"Come back in one piece."

Delighted, Heungbo goes out of the government office.

"Whoopee! Yippee! Hurrah!

Look at this money! Money, money, money.

When we have money, we think about the basic ethical rules.

But when we don't have money, we think only about money.

Hurrah. Look at this money."

As he goes to his house, he drops by a rice cake soup restaurant and eats some rice cake soup.

He gets into a rice wine bar and drinks some rice wine.

He enters a tofu remnant house.

"Hello, tofu remnant seller. Please give me some tofu remnants."

He eats such common food.

His shoulder hangs down, and his mouth sticks out.

"Whoopee! Yippee! Hurrah! Hurray! Oh boy!

A man made 35 dollars in one move and goes back home."

He gets into his house.

"Sweetheart! If the head of the family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How dare you sit there without moving?

How bad-mannered you are!"

[Jung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Darling, I didn't know you had come.

I am sorry. Welcome back. This way, please.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자네가 이 돈 근본²²⁵⁾을 알겠나?
 잘난 사람도 못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지권²²⁶⁾을 가진 돈,
 부귀공명²²⁷⁾이 붙은 돈,
 맹상군²²⁸⁾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이²²⁹⁾ 생긴 돈.
 베개 너머는 침 뱉는 돈.²³⁰⁾
 돈 돈 돈, 돈 봐라.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

6. (홍보 아내 만류) 홍보 아내가 홍보의 매품팔이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²³¹⁾을 누구룸하
 게²³²⁾ 많이 좀 쑤소.
 그래서 각기 한 통씩 먹어보세.”
 홍보 내외 자식들을 데리고 한 통씩을 먹어노니,
 배가 불러가지고 자식들 코 끄터리에서²³³⁾ 죽 말국²³⁴⁾이 소주 후
 주²³⁵⁾ 내리듯 땡강땡강²³⁶⁾ 떨어지며,
 고자배기잠²³⁷⁾으로 모다²³⁸⁾ 앉아서 자지.
 그 틈을 타 가지고, 홍보 마누라가 돈 내력을 묻는다.
 “아이고, 여보, 영감. 대체²³⁹⁾ 낮에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Where is the money? Let me see it.”
“Don’t touch it. Do you know about the nature of money?
People want money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Money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is accompanied by wealth, nobility, and fame.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and moves around.
We spit on others’ money.
Look at this money.
Money, you rascal!
Where have you been?
Hurrah! Look at this money. Money, money, money.”

6. (Heungbo’s Wife Pleas.) Heungbo’s wife asks her husband not to be caned for the money.

[Aniri] Heungbo goes into the room.
“Honey, with this money let’s buy rice and meat, and make a lot of thin soup out of them.
Let’s help ourselves to the soup.”
Heungbo’s family eats a lot of soup.
The children are full that some soup run out of their noses like water running down from a distillatory apparatus.
The children sit down and fall into deep sleep together.
Taking this opportunity, Heungbo’s wife asks Heungbo how he got the money.
“Honey, how on earth did you earn the money?”

어디서 그렇게 약주를 많이 잡수고 오셨소?”
 “쉬! 시끄러. 큰일부터는 비불발설²⁴⁰ 하렸다.
 남이 알면 큰 일 날 돈이시.²⁴¹
 낮에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 개만 맞고 보면, 매삐은 한 개에 석 냥씩, 열
 개면 서른 냥이요,
 낮에 그 돈은 나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삐 닛 냥일세.
 자네 혼자만 아소, 잉?”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들어노니 어찌 되겠느냐?
 중한 가장 불기품을 팔아 생령구제²⁴²를 헌다 허니, 하늘이 빙빙 돌
 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진양조] 떴다가 질켜²⁴³ 거꾸러지며,
 “어따,²⁴⁴ 영감! 영감, 이것이 웬 말이오?
 천불생무록지인이요, 지부장무명지초라.²⁴⁵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²⁴⁶가 있는 법이니,
 제발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²⁴⁷ 한 개를 맞고 보면 종신²⁴⁸ 골병²⁴⁹이 된답디다.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7. (병영 길) 흥보가 신세자탄을 하며 병영 길을 간다.

[아니레] “시끄러! 가란다고 가고, 말란다고 말 것이간디,²⁵⁰ 대장부가
 한번 한 일을?”

Why did you drink that much?”

“Hush! This is a secret.

We will be in trouble if others know.

Let me tell you about the money.

An influential man of this town is detained at the military office.
I am scheduled to be hit 10 times and make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The 5 dollars I already used was paid to me for the horse ride.
Keep this deal only to yourself. OK?”

After hearing this, how would Heungbo’s wife respond?

The idea that the precious family head will be caned to support
his family makes her feel as if heaven swirls and the ground
collapses.

[Jinyangjo] Heungbo’s wife, surprised, falls down.

“Hon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Each person is fated to eat something and have a job.

We have a way to survive even if heaven collapses.

Please don’t go there.

Darling, I heard even one stroke at the military office causes a
deep wound.

My poor honey, please don’t go.”

7. (On the Way to the Military Office) Heungbo goes to the military office, lamenting over his fate.

[Aniri] “Shut up! I can’t act in accordance with your wish. A
man should keep his word.”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흥보 자식들이 총소리 들은 거위²⁵¹) 목 퍼듯
허며²⁵²) 일어나더니마는,

“아버지, 병영²⁵³) 가실까요?”

“오냐.”

“아버지 병영 가시거든 나 당분합²⁵⁴) 허리끈 하나 사다 주시오.”

“아, 이놈아, 당분합 허리끈은 뭇할라고?”

“그놈을 배에다가 소 북두²⁵⁵) 매듯 딱 매고 훌훌 뛰어 보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마는,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적에 나 풍안²⁵⁶)
하나 사다주시오.”

“풍안은 무엇 할래?”

“그놈을 콧잔등에다 딱 들메고²⁵⁷) 뒷동산에를 올라가서 갈퀴질²⁵⁸)을
하여 보면, 동풍이 부나, 서풍이 부나 눈에 티²⁵⁹) 한 점 들겠소?”

“어따, 그놈 눈 감장²⁶⁰)은 단단히 허는 놈이로구나.”

또 한 놈이 나왔더니마는,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적에, 그러면 나
조대²⁶¹) 하나 사다 주시오. 나도 담배 좀 피울라요.”

“에이, 후레아들놈²⁶²) 같으니라고.”

흥보 큰아들놈이 썩 나왔더니, “아버지 병영 가실까요?”

“오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적에 나 각시 좋은 놈, 예쁜 놈 하나 사다
주시오.”

“에라, 이놈들. 쓸 놈은 한 놈도 없구나.”

[중모레]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²⁶³) 내려를 갈 제, 혼잣말로 군담²⁶⁴)한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²⁶⁵) 높은 집에 호가사²⁶⁶)로 잘 사는데,
이녀르²⁶⁷) 신세는 어찌하여 매품이란 말이 웬 말이나?”

While Heungbo's wife weeps, the children stand up just like a goose sticks up its neck after hearing a gunshot.

"Father, are you going to the military office?"

"Yes."

"Father, if you go to the military office, please get me a silky belt."

"You rascal! What do you need the silky belt for?"

"I will fasten my belly tightly with the silky belt and run freely."

Another steps forward. "Father, on your way back home from the military office, please buy goggles for me."

"What do you need the goggles for?"

"I will put the goggles on and collect leaves with a rake on the mountain. The dirt will not hit my eyes whether a wind blows from the east or the west."

"Wow, you are taking good care of your eyes."

Another speaks, "Father, on your way back home, please buy a tobacco pipe for me. I want to smoke too."

"God! How rude you are!"

Another moves forward. "Father, are you going to the military office?"

"Yes."

"Father, on your way back home, please buy a good and pretty girl for me."

"You rascals! You are all useless."

[Jungmori] Heungbo eats breakfast and takes off to the military office.

While walking down the road, he rambles on about himself.

"Alas! Woe is me."

Some people were born in a rich family, and live in large splendid houses.

But I was born with such a bad fate that I live by being beaten for money."

허영허영²⁶⁸) 내려갈 제,
 병영 영문이 무섭구나.
 쳐다보니 대장기²⁶⁹)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²⁷⁰)로구나.
 심산 맹호 엄용같은²⁷¹) 용 자 불인²⁷²) 군로사령들²⁷³)이 이리 가고,
 저리 갈 제,
 그 때여 박홍보는 숫한²⁷⁴)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8. (홍보 헛걸음)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홍보 아내는 걱정하며 기다린다.

[아니리] 삼문간²⁷⁵)을 당도하니,
 그 날사 말고²⁷⁶) 죄인 추열²⁷⁷)이 났던가 보더라.
 “죄인 잡아들여라!”
 “예으이!”
 군율²⁷⁸)이 짹 짜였지.
 홍보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산 채로 염라대왕님을 찾아왔나보다.’
 삼문 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웬 놈들이 너댓 장관²⁷⁹)이나 옆저²⁸⁰) 두들겨 맞거늘,
 홍보 안²⁸¹) 마음에는 그게 다 돈버는 사람인 줄 알고,
 ‘아따, 그놈들 먼저 와서 고생은 한다마는, 돈 여러 백 냥 버는구나.
 거, 나도 한 번 까고 옆저 볼까?’
 삼문간에 가서 볼기²⁸²)를 딱 까고 옆졌지.
 그때 마침 엇그제 들어온 필마사령²⁸³) 하나가 충충²⁸⁴) 나와보니,
 웬 놈이 볼기를 까고 옆졌거늘,²⁸⁵) 발길로 툭 차며,
 “이게 뭐여?”

Heungbo unsteadily walks down the road.
The gate of the military office is formidable.
He looks up. There is a commander's flag.
He looks down. There is a plank which says, "Be quiet."
Soldiers move around like fierce tigers in the military office.
Heungbo, timid by nature, trembles as he enters the main gate.

8. (Heungbo's Trip was in Vain.) Heungbo comes back empty-handed. His wife waits for him with concern.

[Aniri] Heungbo arrives at the main gate.
On that very day, it appears that a criminal is arraigned.
"Bring the criminal!"
"Yes, sir!"
Officers are well-disciplined.
Heungbo is horrified. 'I am going to be taken alive to the King of Hell.'
He peeps through the main gate.
Several people lie on their faces on the board and are caned.
He thinks that they are all beaten for money.
'These people came here early and are in pain, but they are making a lot of money.
Let me pull down my pants and lie down.'
Heungbo exposes his butt and lies down near the main gate.
A new officer in charge of horses comes fast to Heungbo.
The officer kicks a man who exposes his butt.
"What is this?"

“매 맞으러 왔구만.”

“매를 잘 맞나?”

“매라도 거 속²⁸⁶⁾이 있는 매지.”

“아, 이런 제기를 붙을.

나 원 사서삼경²⁸⁷⁾ 다 읽어도 쫄쫄이 문자²⁸⁸⁾가 처음이라더니마는,
아, 삼문 와서 불기 까고 매 때려 달라는 놈은 병영 배판중²⁸⁹⁾ 처음이
시.”²⁹⁰⁾

그리고 있을 적에 사령들이 와 쏘아져 나오는데,

그중에도 홍보 아는 사령이 하나가 있더라.

“아니, 이거 박생원 아니시오?”

“헤헤헤헤. 알아맞혔구만. 알아맞혔어. 뉘 아니랴 하디?”²⁹¹⁾

“박생원, 이거 어쩐 일이오?”

“매 맞으러 왔지.”

“아, 박생원, 꿇았소.”²⁹²⁾ 꿇아.”

“아, 계란이 꿇지, 사람이 꿇나?”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웬 놈이 박홍보 씨 대신이라고 왔기에,
내 숨씨로 곤장 열 개 때려 보냈는데,
아따, 그놈 담차고²⁹³⁾ 매 잘 맞습디다.”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모기눈,²⁹⁴⁾

주걱택²⁹⁵⁾에 쥐털수염²⁹⁶⁾ 거사리고,²⁹⁷⁾

빈대코²⁹⁸⁾

발심발심하면서²⁹⁹⁾ 아따, 그놈 매 잘 맞습디다.”

“아빨싸,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가시오, 마시오 허고 우는 바람에,
우리 앞집 피수아비³⁰⁰⁾란 놈이 듣고 발등거리³⁰¹⁾를 해버렸구나.”

"I am here to be caned."

"Can you take the strokes well?"

"But I am caned in return for something."

"How strange this is!

Even if someone reads all the classic books, he might not know all the dictums.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see a man exposing his butt and asking to be caned near the main gate."

Just then, other officers come out fast together.

One of them is Heungbo's acquaintance.

"Oh, aren't you Mr. Bak?"

"Hehehehe. That's right. You are absolutely right."

"Mr. Bak, what brought you here?"

"I came here to be caned."

"Things went bad for you."

"An egg can go bad, not a person."

"A while ago, a man came here, claiming he was here instead of you.

I caned him ten times and he left.

Goodness. He took the strokes well."

"Alas. How does he look like?"

"He was tall.

His eyes were small.

He had a protruding chin. His short and thick beard went upward.

His nose was flat.

He took the strokes well with smile on this face."

"Alas! My wife was weeping last night, telling me not to go. Mr. Sly living next door overheard us and moved ahead of me."

[중모래] “번수네들,³⁰²⁾ 그리 험가? 수번³⁰³⁾이나 평안히 하소.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질청 밖애를 썩 나서며,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한너르³⁰⁴⁾ 신세로다.

매 맞으러 온 데도 손재³⁰⁵⁾가 붙으니,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집이라 들어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³⁰⁶⁾ 떡 사 달라 우는 자식은 옛 사주마고 달랬는디,

돈이 있어야 말을 허제.”

허영허영³⁰⁷⁾ 내려갈 제,

그때여 홍보 마누라는 영감 병영 간 직후에³⁰⁸⁾ 후원에 단³⁰⁹⁾을 못 고,³¹⁰⁾ 지성³¹¹⁾으로 비는 말이,

“비나니다.³¹²⁾ 하느님전 비나니다.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개도 아니 맞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천남축 수³¹³⁾로 비나니다.”

빌기를 다 헌 후에 가던 길을 바라보며,

“어찌허여 못 오신고?

병영 영문 곤장을 맞고 장독³¹⁴⁾이 나서 못 오시나?

길에 오다 욱³¹⁵⁾을 보시나?

아이고, 어쩔거나?

어찌허여서 못 오신고?”

[Jungmori] "Officers, I understand. Keep up on your work. I am leaving.

Going out of the government office, he speaks.

"Alas! Woe is me. How ill-fated I am!

I am unlucky to lose even the chance to be beaten for money.

I can't believe my fate.

Back home, I can appease a child crying for a rice jelly with the promise to buy him a rice cake, and a child crying for a rice cake with the promise to give him rice.

Money enables me to do all this."

He walks back home unsteadily.

Meanwhile, after Heungbo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his wife made an altar in the backyard and prayed hard to God.

"I pray. I pray. I pray to God.

My husband went to the military office. I pray day and night that he comes back home without being caned.

After praying, she looks at the road on which he left.

"Why isn't my husband coming yet?

Isn't he coming because he was caned and got a severe wound?

Did he get into trouble on his way back?

What should I do?

Why isn't he coming?

9. (홍보 아내 좋아함) 홍보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자, 홍보 아내가 좋아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한참 이리 설리 올다가 막둥이³¹⁶)를 업고 마중을 나와보니
홍보가 형허영 올라오지.

우루루루³¹⁷) 쫓아가서,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 매 맞았으면 장처³¹⁸)나 좀 봅시다.”

“저리 비켜! 장치고, 여편네 데진³¹⁹) 것이고,

원 여편네가 어지간히 방정을 떨어야지.

자네가 밤새도록 가시오, 마시오 허고 우는 것을 앞집 궤수아비란
놈이 올렸던갑서.³²⁰)

아, 그러가지고 그놈이 내 발등거리를 해 버렸단 말여.”

“아니, 그럼 영감은 매를 안 맞았던 말씀이요?”

“매를 맞았으면 사람의 자식이 아닐다.”³²¹)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좋아라,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자 좋네.

영감이 병영 간 연후에 후원에다가 단을 못고,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느님전³²²)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 얼씨구, 좋을시고.”

9. (The Joy of Heungbo's Wife) Heungbo returns home without being caned. His wife dances with joy.

[Aniri] After crying, Heungbo's wife goes out to meet Heungbo with her last son on her back.

She sees him walk unsteadily.

She runs to him.

"Let me take a look at your wound if you were caned."

"Get out of my way. Forget the wound.

You, a wench, made such a big fuss.

You told me not to go to be caned. Mr. Sly living next door must have heard you cry all night.

He made a move ahead of me."

"Then, are you saying you were not caned?"

"I swear I was not caned."

[Jungjungmori] Heungbo's wife dances with joy.

"Hurrah! Whoopee! Hurray!

After you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I made an altar in the backyard.

I prayed to God that you would come back without being hit.

You came back without being caned.

Isn't this great?

Hurrah! Whoopee!

I am happy even if I am poorly clothed!

I am happy even if I starve to death!

Hurray! Yippee!"

10.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홍보가 곡식을 얻으러 놀보 집으로 간다.

[아니리] 홍보도 좋아라고 도둑대춤³²³⁾으로 한번 추는디,
“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한참 이리 춤을 추고 놀다가 안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홍보 마누라의 말이었다.
“여보, 영감. 그런 허황된 소리 믿지 말고,
건넌 마을 아주버님³²⁴⁾ 댁에나 한번 다녀오시오.
어쩌면 형제간에 그리 보고 싶지도 않소?”
“아, 글썄 말일세. 어찌 형제간에 보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만일 건너갔다가
형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곡간에³²⁵⁾ 다소간³²⁶⁾ 주시면 좋되,
거, 만일 보리³²⁷⁾를 주면 어떡허나?”
보리라니까 홍보 마누라는 먹는 보리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가 이 통에³²⁸⁾ 보리 찾고, 뭇 찾고?
아무것이라도 많이만 주면 제턱³²⁹⁾ 아니오?”
“자네 그럼 보리 이름을 다 알기나 하고 허는 소린가?”
“알기를 이르겠소?”³³⁰⁾
“어디 그럼 주워섬겨³³¹⁾ 보소.”
“겉보리,³³²⁾ 통보리,³³³⁾ 쌀보리,³³⁴⁾ 늘보리,³³⁵⁾ 봄보리,³³⁶⁾ 양찰보리.”³³⁷⁾
“에이, 지랄하고 있다, 시방.³³⁸⁾ 누가 그런 보리 말이가디?³³⁹⁾
자네 지리산 몽둥이보리³⁴⁰⁾는 모르네그려.
그놈으로 나를 탁 때리면 죽지 않겠는가?
속담에 매 맞는 것을 보고 보리탄다고 그러느니.”
“아이고, 형제간에 윤기³⁴¹⁾가 있는디, 어디 그럴 리가 있겠소?”

10.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to get grain.

[Aniri] Heungbo, also joyous, dances up and down.

"Hurrah! Whoopee!"

After dancing joyously, they go inside.

Heungbo's wife says as follows:

"Honey, don't trust such a foolish idea now.

Go to your brother's house in the neighboring village.

Don't you miss your brother?"

"Well, I miss him. After all, he is my brother.

Suppose I go there.

It would be nice if he takes pity on me and gives me something, grain or money.

But what if he only gives me barley?"

Heungbo's wife thinks he is literally talking about barley.

"Oh, our situation doesn't allow us to care whether the grain is barley or something else.

We would be happy as long as we get a lot."

"Are you sure you know all the names of barley?"

"Of course, I know all of them."

"Then, tell me the names."

"Long barley, unhulled barley, rye, flat barley, spring barley, and autumn barley."

"How foolish! I am not literally talking about barley now.

You don't seem to know about a stick from Jiri Mountain.

If I were hit with it, I would die.

An old saying holds that beating a person is the same as threshing barley."

"He is your brother. How could he beat you?"

“대체 자네 말이 당연히이.³⁴²⁾ 나 한 번 다녀옵세.”³⁴³⁾

홍보가 차림차림을 차리고 건너가는데,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서리 아침³⁴⁴⁾ 치운³⁴⁵⁾ 날, 팔짱 끼고, 옆걸음쳐³⁴⁶⁾ 이리저리 건너가며,
혼잣말로 군담³⁴⁷⁾한다.

“여러 해 못 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곡간에³⁴⁸⁾ 주시려나?

몽둥이로 때리려나?”

이리 근심, 저리 걱정, 만단의심³⁴⁹⁾ 건너간다.

11. (홍보 애원) 홍보가 놀보에게 처자식이 굶고 있으니 곡 식이나 돈을 달라고 애원한다.

[아니리] 놀보 집을 당도하니,

놀보 하인 마당쇠가 우루루루³⁵⁰⁾ 나오더니,

“아이고, 작은서방님³⁵¹⁾ 아니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오냐. 나는 그대로 지냈다마는, 너 고생이 어떠냐?

그리고 요새 큰서방님³⁵²⁾ 성질은 좀 어떠시냐?”

“큰서방님이요? 말씀도 마시오.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다 성질이 장
리³⁵³⁾나 더 숫았습니다.”

“아니, 장리가 더 숫다니?”

“그전에 서방님이 계실 때에는 제향³⁵⁴⁾을 모시면 음식을 걸게³⁵⁵⁾ 장
만하고 그러더니마는,

지금은 제향을 모시면 대전³⁵⁶⁾으로 바칩니다.”

“You are right, sweetheart. Let me go there.”

Heungbo dresses up and goes over to his brother's house.

[Jajinmori]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In the cold frosty morning, he walks sideways with his arms folded.

He speaks useless words to himself.

“He didn't see me for years. Would he take pity on me and give some grain?

Would he hit me with a stick?”

As he walks, he is worried about many things.

11. (Heungbo Implores.) Heungbo begs Nolbo for some food or money, saying that his wife and children are starving.

[Aniri] Heungbo arrives at Nolbo's house.

Nolbo's servant, Madangsoe, runs out to meet Heungbo.

“Is that you, young master?

How have you been?”

“I have been doing fine. How are you?

How is my brother? Is he still hot-tempered?”

“The old master? Oh my god. He became more perverse than when you were here.”

“Did he become more perverse?”

“When you were here, he prepared a lot of food for the annual ritual for ancestors.

But now he offers money instead of food for the ritual.”

“아니, 대전으로 바치다니?”

“돈에다 붓으로 쓰지요.

이것은 고기요, 저것은 밥이요, 이건 떡이요, 술이요,

홍동백서,³⁵⁷⁾

좌포우혜³⁵⁸⁾요,

씩³⁵⁹⁾ 써가지고, 윗목³⁶⁰⁾에다가 줄줄이 늘어놓았다가,

첫닭³⁶¹⁾만 꼬꼬 올면 영천수³⁶²⁾ 맑은 물에 싹 씻쳐서,³⁶³⁾ 뽕지³⁶⁴⁾에
다 꿰어버립니다.”

“아니, 그럼 여태 선영³⁶⁵⁾을 굶겼더라 말이나?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아니 뵈옵고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안예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참 이리 헐 적에,

놀보가 영창³⁶⁶⁾을 가만히 바라보니, 웬 그림자가 알른알른허제.³⁶⁷⁾

밖을 가만히 내다본즉 제 동생 흥보가 왔거늘,

“이키,³⁶⁸⁾ 이놈이 왔구나.

필연³⁶⁹⁾ 이놈이 나한테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얻으러 왔든지 나를 괴
롭게 하러 온 놈이니,

내가 미리 앞장원³⁷⁰⁾을 칠박에.”

개동군령³⁷¹⁾에 도둑 지킨 기침³⁷²⁾을 썩 내 가지고,

담뱃대로 재떨이를 부서지게 깨뜨리며,

“에헴. 에헴. 이런 때는 어느 놈이 날다려³⁷³⁾ 무얼 달라든지, 무얼
얻으러 왔든지 나를 괴롭게 하러 온 놈이 있으면, 이놈 능지처참³⁷⁴⁾
을 허리라.”

이런 사람 같으면,³⁷⁵⁾ 처사가 빗났으니³⁷⁶⁾ 썩 나올 일인데,

빌면 줄 줄 알고 빌러 한 번 들어가 보는데,

우루루루 쫓아들어가 영창 밑에 가 나뭇이³⁷⁷⁾ 엮지며,³⁷⁸⁾

How can money be offered instead of food?"

"He writes on coins with a brush as follows:
This is meat. This is rice. This is rice cake. This is wine.
Red fruit to the east; white frui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rice drink to the right.
He writes everything and displays it at the far end of a room.
When a rooster cries, he washes the coins with clean water from
a river and put them together with a string.
"Then, he let our ancestors go hungry.
I am already here, so I can't go back without seeing my brother.
What should I do?"

Heungbo goes in and out of the house again and again.
Nolbo faintly sees through a window a shadow moving.
He takes a hard look at it and realizes that it is Heungbo.
"Oh my god. He is here.
Certainly, he is here to ask for something from me. He will
bother me.
I should make a move ahead of him."
He coughs as if warding off a thief.
He hits an ashtray hard with a tobacco pipe.
"Good! If somebody comes to me, asks for something from me,
and bothers me, I will kill him by tearing his body apart."
A sensible person would get out of Nolbo's house.
But Heungbo goes in, thinking that he will get some grain if
he begs.
He enters quickly and gets down under the window.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소인 문안이요!”

놀보가 영창을 드르르르 열며, 의관³⁷⁹⁾을 반듯이 쓰고,

“계³⁸⁰⁾ 뉘시오?”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홍보로소이다. 형님.”

“홍보? 홍보? 작년에 쟁기 지고 도망헌 놈은 청보요,

팽이 들고 도망헌 놈은 황보였다!

홍보? 홍보? 금시초문인디.³⁸¹⁾ 나 과연 모르겠소.”

“아이고, 형님! 형님 함자³⁸²⁾는 놀 자, 보 자요, 아우 이름은 홍보 아니 오, 형님?”

“여보시오! 나는 오대차³⁸³⁾ 독신³⁸⁴⁾으로 내려온 줄을 삼척동자³⁸⁵⁾도 다 아는디,

날보고 형님이라니?

당신 큰 망발³⁸⁶⁾을 해도 분수가 있지,

당신 길 잘못 들었소.

이 넘엿동네³⁸⁷⁾로 가서 물어보시오.”

홍보 기가 맥혀, “아이고, 형님!”

[진양조] “비나니다. 비나니다.

인명이 재천이라³⁸⁸⁾ 설마한들 죽사리까마는,³⁸⁹⁾

여러 끼니를 굶어노니 하릴없이³⁹⁰⁾ 죽겠내다.³⁹¹⁾

형님 슬하를 물러나와 밤낮 주야로 벌었어도 삼순구식³⁹²⁾을 헐 수가 없고,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³⁹³⁾가 어제 저물도록 그저³⁹⁴⁾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미³⁹⁵⁾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³⁹⁶⁾ 있사 오니,

하릴없이 다 죽겠소, 형님.

쌀이 되거든 닷 말만 주옵시고,

“Brother, this is your brother, Heungbo!”
Nolbo opens the window. He is dressed up.
“Who is this?”
“Brother, this is your brother, Heungbo.”
“Heungbo? It was Cheongbo who stole a plough and ran away.
It was Hwangbo who stole a hoe and ran away.
Heungbo? I haven’t heard of the name. I don’t know him.”
“My goodness! Your name is Nolbo. My name is Heungbo,
brother.”
“Hold on! Even a child knows I am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Are you calling me brother?
Your reckless speech crossed the line.
You came to the wrong house.
Go to the village over the pass.”
Heungbo is stunned. “Oh, brother!”

[Jinyangjo] “I beg you. I beg you.
A human life is up to heaven, so it won’t die easily.
But my family hasn’t eaten for a long time, so they might die.
After leaving you, my family worked day and night but couldn’t
overcome poverty.
My wife and children didn’t eat the day before yesterday or
yesterday.
They didn’t eat yesterday and this morning.
Brother, they might die.
Please give me a little hulled rice.

벼가 되거든 열 말만 주옵시고,
 돈이 되거든 삼십 냥만 주옵시고,
 그도³⁹⁷⁾ 저도³⁹⁸⁾ 못하거든, 찌갱이³⁹⁹⁾나 몽근 저⁴⁰⁰⁾나 양단간에⁴⁰¹⁾
 주시거드면,⁴⁰²⁾
 지금 굶어 죽게 된 처자 구환⁴⁰³⁾하여 살려낸 후에,
 일을 헛들 못 갚으며, 품⁴⁰⁴⁾을 판들 못 갚으리까, 형님!
 형님 덕택에 살거지다.”⁴⁰⁵⁾

12. (놀보 매질) 놀보가 마당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흥보를 마구 때린다.

[아니리] 과거를 짹짹 대노니 떼는 수가 없던가 보더라.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너 잘 왔다.
 말을 듣고 보니 그 동안 고생 참 많았구나.
 그러면 이왕⁴⁰⁶⁾ 왔으니 보리나 좀 타 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리까?
 흥년 곡식으로는 보리가 쌀보다 더 낫답니다, 형님.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그래라. 마당쇠 게⁴⁰⁷⁾ 있느냐?”
 “예!”
 “곳간 문 열어라!”
 “열어 났소.”
 “그 안에 들어가면 동면⁴⁰⁸⁾서 들어온 쌀 천 석⁴⁰⁹⁾ 있제?”
 “예. 갖다 조금 드릴까요?”
 “가만 있어, 이놈아! 그 안에 들어가면, 북면⁴¹⁰⁾서 들어온 보리 오백 석 있제?”

Or please give me a little unhulled rice.
Or please give me some money.
If those are impossible, please give me the remnant of rice wine
or thin crushed husks.
Then, I can save my starving wife and children.
I will work hard and return your favor, brother.
Please help my family, brother.”

12. (Nolbo's Beating) Nolbo orders his servant to bring a club and beats Heungbo.

[Aniri] Since Heungbo talks about the past, Nolbo cannot pretend he doesn't know him.
“Oh, you are Heungbo. Welcome back!
I am sorry your life was hard.
You came all the way here. Would you like some barley?”
“Brother, isn't barley grain?
When the harvest of bad, barley is better than rice, brother.
Please give me a lot of barley.”
“No problem. Is Madangsoe here?”
“Yes!”
“Open the storeroom!”
“I have opened it.”
If you get in, you will see a lot of rice. Right?”
“Yes. Do you want me to give him some?”
“Hold on. You villain! If you get in, you will see a lot of barley.
Right?”

“예. 좀 갖다 드려요?”

“가만 있으래도 이 때려죽일 놈이! 그 안에 들어가면 콩, 팥 씬 섬 있제?”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서숙⁴¹¹) 그런 것 모두 있제?”

“예.”

“그 너머에 가면, 연전⁴¹²)에 내가 지리산에 가서 도끼 자루 헐라고 박달나무 몇 개 건목⁴¹³) 쳐다⁴¹⁴) 논 것 있으니, 그놈 두어 개 가져 나오너라.

내 오늘 한 놈 식홀 놈⁴¹⁵) 있다.”

[자진모리] 놀보놈 거동⁴¹⁶)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듯⁴¹⁷) 추켜들고,

“네 이놈, 홍보놈아! 네 내 말을 들어봐라.

쌀말⁴¹⁸)이나 주자헌들 남대청⁴¹⁹) 큰 두지⁴²⁰)에 가득가득이 쌓였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⁴²¹)

벗섬⁴²²)이나 주자헌들, 천록방⁴²³) 가리노적⁴²⁴) 다물다물이⁴²⁵) 쌓였
으니,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돈냥⁴²⁶)이나 주자헌들 옥당방⁴²⁷) 용목궐⁴²⁸)에 관⁴²⁹)을 지어서 두었
으니,

너 주자고 관돈⁴³⁰) 헐며,

짜라기나 주자헌들,

황계⁴³¹) 백계⁴³²) 수십 마리가 주루루루 벌여 서서 툭툭 치고,⁴³³) 꼬
꼬 우니,

너 주자고 닭 굶기며,

찌갱이⁴³⁴)나 주자헌들

“Yes. Do you want me to give him some?”

“I told you to hold on. You bastard! If you go in, you will see a lot of beans and red beans. Right?”

“Yes.”

“If you get in, you will see a lot of millet seeds. Right?”

“Yes.”

If you go over the millet seeds, you will see some birch branches from Jiri Mountain that I brought to use them as ax handles. Bring two of them here.

Today, I will make a person cold.”

[Jajinmori] Behold Nolbo.

He holds up a cudgel above his eyes.

“Heungbo, you villain! Listen to me!

Rice is stored in the rice box on the floor between rooms.

But how can I open it for you?

Unhulled rice is piled up high in the warehouse.

How can I pull down the stack for you?

My wooden safe is full of money in bundles in a fancy room.

How can I untie a bundle for you?

I might give you some crushed rice.

But dozens of yellow hens and white hens stand in a row, moving their wings and crying.

How can I give you the crushed rice, letting the hens go hungry?

I might give you some remnant from rice wine.

구진방⁴³⁵⁾ 우리 안에 폐돼야지⁴³⁶⁾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돌⁴³⁷⁾ 굶기며,
 식은 밥이나 주자헌들,
 새끼 난 암캐 두고 너 주자고 개 굶기랴?
 잘살기도 내 복이요, 못살기도 네 팔잔디,
 굶고 벗고 내 아느냐?
 강새암⁴³⁸⁾에 계집 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여름날 번개 치듯
 뱀다⁴³⁹⁾ ‘철썩 후닥딱!’
 “아이고, 형님, 박⁴⁴⁰⁾ 터졌소!”
 뱀다 ‘후닥딱!’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아이고, 형님, 나 다시는 안 오리다.⁴⁴¹⁾
 다시는 안 도랄⁴⁴²⁾ 터이오니, 살려주오.
 살려주오. 제발 덕분에 살려주오.”
 홍보가 몽둥이를 피하느라고 이리 닫고,⁴⁴³⁾ 저리 닫고,
 대문을 걸어 잠갔으니 나갈 수도 없고,

13. (홍보 탄식) 형수에게 밥주적으로 뺨을 맞은 홍보가 통곡하며 돌아온다.

[아니리] 어찌 다급해 났던지, 안으로 막 쫓겨 들어가던가 보더라.
 그때에 놀보 마누라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밖
 에서 웬 사람 잡는 소리가 나지.
 들어본즉 저의 시아재⁴⁴⁴⁾ 홍보가 와서 매를 맞거늘,
 필연⁴⁴⁵⁾ 매 맞고 안으로 쫓겨 들어올 줄을 짐작하고,

But I have a herd of pigs in a pigsty.
How can I give you the remnant, letting the pigs go hungry?
I might give you some cold rice.
But how I can give you the rice, letting a dog and her puppies
go hungry?
I was fated to be rich; you to be poor.
I don't care whether you are hungry or naked.
Nolbo hits Heungbo as he would hit an unfaithful wife, as he
would hit a snake on the fence, and as lightning struck in
summer.
"Ouch! Brother, my head fell apart."
Nolbo hits Heungbo.
"Ouch! Brother, my legs are broken.
Brother, I won't come back here.
I won't ask for anything from you.
Please have mercy on me."
Heungbo runs here and there to avoid the club.
The gate is locked up, so he can't get out.

13. (Heungbo Wails.) Heungbo wails, beaten on the cheek with a rice scoop by his sister-in-law.

[Aniri] Heungbo is so desperate that he runs deep into the
house.
Meanwhile, Nolbo's wife was preparing food in the kitchen. She
hears somebody being beaten outside.
She realizes that her brother-in-law is beaten.
She thinks that he will surely be chased deep into the house.

밥 차리던 주걱을 들고 포수 고라니⁴⁴⁶⁾ 목⁴⁴⁷⁾ 잡듯⁴⁴⁸⁾ 중문⁴⁴⁹⁾에 와서 딱 잡고 섰을 적에,
홍보가 울며 들어오겠다.

“아이고, 아짐씨!⁴⁵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리시오.”

놀보 마누란즉 놀보보다 성질이 장팔이나⁴⁵¹⁾ 더 숫것다.⁴⁵²⁾

“아지뺨⁴⁵³⁾인지, 동아뺨⁴⁵⁴⁾인지

까딱하면 돈 달라, 까딱하면⁴⁵⁵⁾ 쌀 달라 사람이 성가셔서 못 살겠구만.

쌀 갖다 말겼어?

아나,⁴⁵⁶⁾ 돈! 아나, 밥!”

밥 차리던 주걱으로 홍보 뺨을 영산⁴⁵⁷⁾ 다드래기⁴⁵⁸⁾ 징 치듯 딱 때려 붙여노니,

홍보가 뺨을 맞고 가만히 만져보니 밥티⁴⁵⁹⁾가 들어영겼구나.⁴⁶⁰⁾

그 통에라도 밥티를 떼다 입에다 집어넣으며,

“아이고, 형수씨! 그 주걱에 밥 많이 좀 묻혀갖고 성한⁴⁶¹⁾ 이 뺨도 때려주시오, 형수씨!”

[진양조] 홍보가 뺨을 맞고 곰곰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툭 꺼지는⁴⁶²⁾ 듯.

분하고 원통하여,

“아이고, 아짐씨! 형수가 시아재⁴⁶³⁾ 뺨 치는 법을 고금천지⁴⁶⁴⁾ 어디서 보았소?

형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는 한이 없지마는,

이 지경이 웬 일이나?

어서 나를 살지⁴⁶⁵⁾ · 중지⁴⁶⁶⁾ · 능지⁴⁶⁷⁾를 하여, 아주 박살⁴⁶⁸⁾ 죽여주시오, 형수씨!

어서 빨리 죽여주면 염라국⁴⁶⁹⁾을 들어가서 부모님을 뵈옵거든, 세세 원정⁴⁷⁰⁾을 아뢰련마는,⁴⁷¹⁾

She stands at the middle gate, holding a rice scoop, as a hunter stands in the way of an elk.

Heungbo goes through the gate, crying.

“Sister-in-law! Sister-in-law! Please help me.”

Nolbo’s wife is a far more perverse person than Nolbo.

“Forget I am your sister-in-law.

You ask for money and rice too easily. We are annoyed by you.

Did you leave rice to us?

Money? No way! Rice? No way!”

She hits him with the rice scoop on the cheek fast as if she were hitting a gong.

After being hit, he touches his cheek and realizes that some rice is attached on it.

Even in that situation, he takes the rice off his cheek and puts it into his mouth.

“Sister-in-law! Please cover the scoop with rice and hit me on the other cheek.”

[Jinyangjo] After being hit on the cheek, Heungbo ponders.

He feels as if heaven swirls around and the ground collapses.

He feels indignant and bitter.

But how on earth can a sister-in-law hit a brother-in-law on the cheek?

I don’t mind whether you kill me or let me live

But how could she hit me?

Please beat me to death. Tear my body apart. Shatter my body into pieces, sister-in-law!

If you kill me now, I’ll go to the world of the dead, meet my parents, and tell them everything.

어찌하여 못 죽는 거나?
지리산 호랑아, 날 물어가거라!
박홍보 물어가거라!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매 맞기도 내사 싫다.”
고춧가루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의 집으로 건너간다.

14. (홍보 아내 탄식) 홍보 아내가 사정을 짐작하고 울며 목을 매려 하니, 홍보가 만류하고 함께 운다.

[아니레] 그 때에 홍보 마누라는 막둥이를 업고 저의 영감 오는가 마
중을 나왔지.
가만히 바라보니, 건넌 비탈 좁은 길로 작지⁴⁷² 짚고 절뚝절뚝하고
오는 것이 자기 영감이 분명커늘,
우루루루⁴⁷³ 쫓아가서 붙들고,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⁴⁷⁴ 몸에 뭇 좀 들렀소?⁴⁷⁵
왜 허리는 이렇게 비비 꼬요?”
“가만히 있소.
내 몸에 손 좀 대지 말소.
나 까딱하면 죽겠네.”
“아니, 이거 웬 일이요?”
“거기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보소.
형님 댁에를 갔더니, 형님이 버선발로 우루루루 나오더니, 반겨하시
데그려.

Why don't you kill me?
Tiger in Jiri Mountain! Eat me!
Bite Heungbo away!
I don't want to live anymore."
I don't want to be beaten anymore."
Heungbo goes back to his home, blowing on his wound.

14. (The Lamentation of Heungbo's Wife) Having guessed what had happened, Heungbo's wife cries and tries to hang herself to death. Heungbo stops her and cries together with her.

[Aniri] Meanwhile, Heungbo's wife waits for her husband outside with her youngest son on her back.
She sees somebody holding a cane hobble on a small slope.
She realizes that he is surely her husband.
She runs to him and holds him.
"Honey, did you get something from your brother?
Why do you twist your body like that?"
"Leave me alone.
Don't touch my body.
I'm almost dying."
"What happened to you?"
"Take a seat there and listen to me.
When I arrived at my brother's house, my brother ran out to me fast without putting his shoes on.

방에를 들어갔더니, 단단히⁴⁷⁶⁾ 나무라시네.
 늙어가는 형이 마음이 불안하여 설령 좀 나무랬기로서니,
 처자식을 데리고 나간 후로 수년⁴⁷⁷⁾을 아니 왔다고 단단히 나무라신
 후에,
 ‘쩍’⁴⁷⁸⁾ 허더니 닭 잡고, 술 받고,⁴⁷⁹⁾ 밥상을 걸게⁴⁸⁰⁾ 차려다 놓으면서
 먹으라데그러.
 음식을 보니 집안 처자식 생각 때문에 목구렁에 넘어가나?
 안 먹고 앓았으니,
 눈치 빠른 형수가 처자식 줄 음식을 따로 제직해⁴⁸¹⁾ 두었다고, 걱정
 말고 먹으라데그러.
 그래 내가 헛 갓 벗어놓고 양껏 먹고 나니,
 형님 형수 공론허고⁴⁸²⁾ 쌀과 돈을 많이 주시기에,
 그놈을 내가 몽똥그러⁴⁸³⁾ 짊어지고 오는데,
 요 아래 강정모통이⁴⁸⁴⁾ 안 있나?
 거기를 온즉 어떠한 도적놈들이 썩 불거지더니마는,⁴⁸⁵⁾
 ‘네 이놈, 홍보야! 목숨이 크냐, 전량⁴⁸⁶⁾이 크냐? 거기 못 벗어봐, 이
 놈!’ 허더니마는,
 엎어뺨⁴⁸⁷⁾ 한 대에 쥐⁴⁸⁸⁾가 일데그러.
 어찌 두들겨 맞고 안 줄려다가 싹 다 뺏기고 하나도 못 갖고 오고,
 매만 실컷 맞고 오는 길이네, 이 사람아.”
[자진모리] 홍보 마누라 이 말 듣고 똬다⁴⁸⁹⁾ 절컹⁴⁹⁰⁾ 주저앉으며,
 “허허! 강정모통이 도적놈이라니!
 이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네.
 이런대도⁴⁹¹⁾ 내가 알고, 저런대도⁴⁹²⁾ 내가 아네.
 여러 해 못 본 동생 전곡⁴⁹³⁾은 못 주나마 몽둥이로 때리다니!

After we went into the house, my brother scolded me severely. He said he had scolded me because he had been getting old and nervous.

Even so, he said, I should have visited him during the past years since we left.

They killed a chicken, bought wine, prepared a lot of food, and asked me to eat them.

The food reminded me of you and the children, so I couldn't eat at all.

I just sat without eating.

Reading my mind, my sister-in-law asked me to help myself, saying that she set aside some food for you and the children. After taking my old hat off, I helped myself to the food.

My brother and sister-in-law had a discussion and gave me some rice and money.

I packed them together and carried them on my back.

Something happened around the corner by the river where there is a pavilion.

When I arrived there, bandits suddenly showed up.

They said, 'Heungbo! Which is more important, your life or your money and rice? Put them down there. You bastard!'

I was slapped on the cheek and got a cramp."

I tried to fight them off, but they took everything from me.

I was beaten up and came back with empty hands, honey."

[Jajinmori] After hearing Heungbo, Heungbo's wife slumps down.

"There is no bandit around the corner by the river.

Everything you told me is a lie.

I know the truth whatever you say.

They didn't see you for years. It is fine not to give money and rice. But how could they hit you with a club?

태산같이 쌓인 곡식 누구 주자고 아끼어서 이리 몹시 때렸을까?
 가기 싫어 하는 것을 몹쓸너르⁴⁹⁴ 계집년이 굳이 가라고 우기었다
 이 지경을 당하였네.
 국난에는 사양상이요,
 가빈에는 사현처라.⁴⁹⁵
 내가 얼마나 암전하면⁴⁹⁶ 중한 가장⁴⁹⁷을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
 벗기겠나!
 차라리 내가 죽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는 것이 옳지,
 내 살아 쓸 데 없다.”
 허리띠로 목을 매어 죽기로 작정하니,
 홍보가 달려들어,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살았어도 내 고생이 이러는디,
 만일 자네가 죽고 보면 내 신세를 어찌겠나?
 죽지 마소. 죽지 말어. 죽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오소.”

15. (중타령) 중 하나가 홍보 집에 와서 동냥을 청한다.

[아니리] 이렇게 홍보 집안이 초상난 집 모양이 되었을 적에,
 그때 마침 홍보 살릴 중 하나가 내려오것다.
 [옛모래]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호사⁴⁹⁸ 봐라.
 저 중의 거동⁴⁹⁹ 봐라.
 굴갓⁵⁰⁰ 쓰고, 장삼⁵⁰¹ 입고, 염주⁵⁰² 목에 걸고, 단주⁵⁰³ 팔에 걸고,

Their grain is piled up like a mountain. For whom are they saving it? Why did they hit you?
You didn't want to go there. I was a bad woman to ask you to visit them. You got into this trouble.
When a country is in chaos, a wise premier is needed.
When a family is poor, a wise wife is needed.
Because I am not wise, the precious family head is poorly-fed, and the children are poorly-clothed.
I would rather die and stop seeing this misery.
It is of no use for me to live."
She is determined to hang herself with a belt.
Heungbo runs to her.
"Hello, sweetheart. Stop it.
My life is miserable even with you.
How would it become without you?
Don't die. Don't die. Come to me. Please come to me."

15. (Monk Song) A Buddhist monk comes and begs for food.

[Aniri] A sad atmosphere engulfs Heungbo's house as if somebody died.
Just then, a Buddhist monk comes down to save Heungbo.
[Eonmori] A monk comes down from a mountain.
Behold how splendidly he is dressed.
Behold his action.
He wears a bamboo hat, a long coat, beads on his neck, and beads on his arm.

구리 백동⁵⁰⁴ 반은장도⁵⁰⁵ 고름에 되게 안에 차,⁵⁰⁶
 용두 새김⁵⁰⁷ 육환장,⁵⁰⁸ 채고리⁵⁰⁹ 많이 달아
 처절철철철 처절철 짚고,
 흔들흔들 염불⁵¹⁰하고 내려온다.
 중이라 허는 건 들어도⁵¹¹ 염불이요, 나서도⁵¹² 염불이라.
 염불 많이 하면, 극락세계⁵¹³로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⁵¹⁴ 관세음보살.⁵¹⁵
 아 아 아 아 아 아.
 상래소수공덕해⁵¹⁶요
 회향삼천실원만,⁵¹⁷
 봉위⁵¹⁸ 주상전하⁵¹⁹
 나무아미타불.”
 인도하면서⁵²⁰ 내려올 제,
 이 집, 저 집을 다 지내고 홍보 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사생이 미판이라.⁵²¹
 저 중의 거동 보라.
 목탁⁵²²을 땡땡 치며,
 “이 댁에 동냥 왔소.”
 홍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16.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도승이 사정을 듣더니, 집터 하나를 잡아준다.

[아니리] 홍보가 나와 보니 문 앞에 백발 노승⁵²³이 와 섰제.⁵²⁴

Copper, white copper, and silver knives are firmly attached to his coat string.

A dragon head is engraved on his cane with six iron rings.
The rings on the cane make sounds.

He shakes the cane and chants a prayer, as he comes down.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If you chant a prayer a lot, you will go to heaven.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please save us.
Oh, oh!

The virtue acquired so far is as wide as a sea.
Praying for the dead makes the world peaceful.
The king is worthy of respect.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He comes down as he chants a prayer.
After visiting many houses, he arrives in front of Heungbo’s house.

A cry inside indicates death is near.

Behold the monk.

He hits the wooden gong.

“I am here to beg.”

Heungbo is surprised.

“Honey, stop crying. A monk is outside. Stop crying.”

16. (The Monk Picks a House Site.) Hearing the story, the monk picks a lucky house site for Heungbo.

[Aniri] Heungbo comes out and sees an old monk standing.
Heungbo is surprised.

흥보 깜짝 놀래,
 “여보시오, 대사⁵²⁵)님. 어느 절에서 오신 대사님인 줄을 몰라 그러되,
 누추한 저의 집을 어찌하여 오셨나니까?”⁵²⁶)
 도사⁵²⁷) 한 발 다가서며,
 “이 댁에 동냥 왔소.”
 흥보 기가 맥혀,
 “여보시오, 대사님. 우리집 가세⁵²⁸)를 한 번 둘러보시오.
 서 발⁵²⁹) 장대를 내둘러도 거칠 문적⁵³⁰)이 없소.
 이번은 그냥 가시고,
 다음 지나시는 길에 들르시면, 그 말 이르고 시주⁵³¹) 후히⁵³²) 허오리
 다.”
 “주시고, 못 주시고는 댁의 처분이오나,
 소승⁵³³)은 꼭 시주만 하러 다니는 걸승⁵³⁴)은 아니옵니다.
 소승이 귀댁⁵³⁵) 문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사생이 미판이
 오니,⁵³⁶)
 그 어쩐 일이시오니까?”
 “예, 대사님이 들으셨다니 말이지, 권술⁵³⁷)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내외 죽음을 다투어 울었나이다.”
 “가궁⁵³⁸)하신 말씀이오.
 복이라 하는 게 임자가 따로 없습니다.
 소승이 별로 아는 것은 없으나, 집터 하나를 재혈⁵³⁹)하여 드릴 터이
 오니 소승의 뒤를 따르시오.”
 흥보가 좋아라고 도사 뒤를 따라가는데,
[진양조] 박흥보가 좋아라고, 도사 뒤를 따라간다.
 이 모롱⁵⁴⁰)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
 고봉⁵⁴¹) 정상 두루봉⁵⁴²)에 저 중이 가다가 우뚝 서며,

“Look, monk. I don’t know which temple you are from.
What brought you to my humble house?”
The monk steps forward.
“I am here to beg.”
Heungbo is stunned.
“Look, monk. Look around my house.
I have nothing in my house.
Please just leave this time.
If you drop by later and beg for something, I’ll give you a lot
of food.”
“It’s up to you to give me something or not.
I am not a begging monk, traveling around only to beg.
I arrived at your house and heard crying sound indicating death.
What’s going on?”
“Since you heard us, let me say my family is large but has
nothing to eat, so my wife and I tried to die and cried.”
“I am sorry to hear that.
Good luck can come to anybody.
I am not knowledgeable, but let me choose a lucky house site
for you, so please follow me.”
Delighted, Heungbo follows the monk.

[Jinyangjo] Joyous, Heungbo follows the monk.
The monk turns around the corner and goes over a pass.
He arrives at the mountain top, stops, and stands up tall.

“이 명당⁵⁴³)을 알으시오?

천하의 제일강산⁵⁴⁴) 악양루⁵⁴⁵)같은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임좌병향오문⁵⁴⁶)으로 대강 성주⁵⁴⁷)를 하시고 보면,

명년⁵⁴⁸) 팔월 십오일에는 억십만금⁵⁴⁹) 장자⁵⁵⁰)가 되고,

삼대 진사⁵⁵¹), 오대 급제,⁵⁵²) 병감사⁵⁵³)가 날 명당이 적실하니,⁵⁵⁴)

그리 알고 명심허오.”

두어 말을 이르더니 인홀불견⁵⁵⁵) 간 곳이 없네.

17. (집터 글자) 홍보가 도승이 잡아 준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데, 봄이 돌아온다.

[아니리] 홍보가 그제야 도승⁵⁵⁶)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 후,

있던 움막⁵⁵⁷)을 뜯어다가

수숫대 저릅대⁵⁵⁸)로 대강 성주를 현 연후에,

홍보가 집터 글자를 붙여보겠다.

[중중모리] “겨울 동 자⁵⁵⁹) 갈 거 자,⁵⁶⁰)

삼월삼질⁵⁶¹) 올 래 자,⁵⁶²)

봄 춘 자⁵⁶³) 좋을시고.

나비 접 자⁵⁶⁴) 펄펄,

춤출 무 자⁵⁶⁵)도 좋을시고.

기는⁵⁶⁶) 건 짐승 수,⁵⁶⁷)

나는 건 새 조⁵⁶⁸)라.

쌍쌍왕래⁵⁶⁹) 제비 연 자,⁵⁷⁰)

Do you know this is a lucky site?
This is the best site in the world.
Build a house on this lucky site. Make it face to the
south-southeast. Make the door to the south.
And you will become a billionaire on August 15, next year.
Your descendents will pass state-run exams and become high
government employees.
Keep in mind what I said.”
After saying those words, the monk suddenly disappeared.

**17. (A Word for the House Site) Heungbo lives in a
house on the site the monk picked for him. Spring
is just beginning.**

[Aniri] Heungbo now thinks that the monk has a kind of divine
power.
He bows to the sky many times.
He tears down his hut.
He builds a house on the site with the stalks from the hut.
He tries to find a word for the house site.
[Jungjungmori] “Winter(冬) has gone(去).
March has come(來).
Spring(春) is good.
A butterfly(蝶) flies.
It’s good to see it dance(舞).
A beast(獸) crawls.
A bird(禽) flies.
Swallows(燕) come in pairs.

날 비 자⁵⁷¹⁾ 좋을시고.

피꼬리 수루루루⁵⁷²⁾ 날아 노래 가 자⁵⁷³⁾ 좋을시고.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18. (홍보가 제비 구원) 하루는 홍보가 다리 부러진 제비새끼 한 마리를 구한다.

[아니래] 거기다가 성주를 헨 뒤로는 술이 생겨도 수십 배가 더 생기고, 차차 살 보살이 생기는다,⁵⁷⁴⁾

하루는 난데없이 제비 한 쌍이 떠들어와서⁵⁷⁵⁾ 처마 끝에다 성주⁵⁷⁶⁾를 하지.

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제비야. 좋은 집 다 버리고, 궁벽강촌⁵⁷⁷⁾ 박홍보 집에 와서 성주를 허는구나.

어서어서 새끼 많이 까거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힐지향지⁵⁷⁸⁾하더니마는 새끼 일곱 마리를 낳는다,⁵⁷⁹⁾

다 강남으로 날아가고 다만 남은 제비 하나가 날기 공부허느라고 파닥파닥 파닥파닥하다가 처마 끝에 똑 떨어져서,

대발⁵⁸⁰⁾에 걸려 다리가 절컹⁵⁸¹⁾ 부러지지.

홍보씨 어진 마음 제비새끼 주워 들고,

“불쌍타, 내 제비야.

궁벽강촌 박홍보 집에 찾아와서 절각지환⁵⁸²⁾이 웬 일이나?

오죽이나 아프겠느냐?

여보, 마누라. 우리 제비 다리 이어주세.”

It's good to see them fly(飛)."
A nightingale flies and sings a pleasant song(歌).
Hurrah! Hurray! Yippee!"

18. (Heungbo Saves a Swallow.) One day Heungbo saves a swallow whose legs were broken.

[Aniri] After Heungbo built a house there, his life got better,
getting more things than before.
One day, a couple of swallows come and build their nest under
the eaves.
Heungbo is joyous.
"Hurrah! My swallow. You rejected good houses and build a
nest in my house in the remote region.
I hope you have many babies."
Behold the swallows.
The swallows flew in and out, and hatched seven baby
swallows.
All of them flew to Jiangnan(江南) except one which flies up
and down, and falls down below the eaves.
Its legs get stuck on a bamboo blind and get broken.
Virtuous, Heungbo picks up the baby swallow.
"How poor, my swallow!
You visited my house in a remote place, and got into the disaster
of breaking legs.
How painful it must be!
Honey! Let's treat the swallow's legs."

명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⁵⁸³) 얻어다가 제비 다리를 꺾꺾 이어 제비
 집에 넣어주며,
 “부디부디 죽지 말고 살아나거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흥보 은혜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이 되어서 다리가 나아서,
 그 제비 날기 공부를 허는디,
 [진양조] 뗏다, 보아라.
 저 제비가 거중⁵⁸⁴)으로 둥둥 떠 날기 공부를 허는구나.
 구만장천⁵⁸⁵)에 높이 떠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제비야.
 살았구나, 내 제비야.
 부러진 다리를 한치⁵⁸⁶) 말아라.
 고적의⁵⁸⁷) 손빈⁵⁸⁸)이는 양족⁵⁸⁹)이 없었으되 제나라⁵⁹⁰) 들어가 대장
 이 되고,
 초한 적⁵⁹¹) 한신⁵⁹²)이는 일지수가 없었으되,⁵⁹³) 대장단⁵⁹⁴) 높이 앉
 아 일군개경⁵⁹⁵)을 하였으니,
 부러진 다리를 원통히 생각 말고,
 멀고먼 만 리 강남⁵⁹⁶)을 부디 수이⁵⁹⁷) 다녀오거든 옛 주인을 찾으려
 무나.”
 제비 저도 섭섭하여라
 빨랫줄에 가 내려앉더니 무엇이라고 작별을 하고,
 홀연히⁵⁹⁸) 다시 날아 구만장천에 높이 떠서 주야로 둥둥, 만 리 강남
 을 들어간다.

Heungbo treats the legs with pollack skin and silk thread, and
puts the swallow back in the nest.

“By all means, I hope you don’t die.”

Behold the swallow.

It was fated to return Heungbo’s favor. How could it die?

Several days later, its legs are healed.

The swallow learns to fly.

[Jinyangjo] Look. It took off.

The swallow practices flying high in the air.

The swallow moves around high in the vast sky.

Heungbo is joyous to see the swallow.

“Hurrah, my swallow.

You are alive, my swallow.

Don’t feel bitter about your legs.

Sun Pin(孫嬪) didn’t have legs,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of Qi(齊) Country.

Han Xin(韓信) lost his arm, but he became the commander-
in-chief to the surprise of the troops.

Don’t hold a grudge against the broken legs.

Have a safe trip to Jiangnan(江南) far from here, and come back
to your old master in one piece.”

The swallow also feels sad.

It sits down on a clothesline and bids farewell to Heungbo.

It suddenly flies up high in the vast sky, and travels day and
night to Jiangnan(江南), a distant place.

19. (제비 점고) 강남으로 간 제비는 제비 왕에게 홍보가 구해준 사연을 알리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아니리] 그때에 홍보는 제비하고 이별을 하느라고 눈물 보시기⁵⁹⁹)나
꽤히⁶⁰⁰ 흘렸던가 보더라.

홍보 제비가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두견은 조종지망제라⁶⁰¹)

백조⁶⁰²)를 점고⁶⁰³)하는데,

“일본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명매기!”⁶⁰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조선서 태어난 홍보제비!”

[중모레] 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홍보 제비가 들오는디,⁶⁰⁵)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저서⁶⁰⁶) 전동전동⁶⁰⁷) 들어오니,

제비 장수 물으시되, “이놈!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가 졌느냐?”⁶⁰⁸)

홍보 제비 여짜오되, “예, 소조⁶⁰⁹)가 아뢰리다.”⁶¹⁰)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 공부 힘을 쓰다 거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주인 홍보씨가 소조 다리를 이어 이렇게 살아 왔사오니,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소리까?⁶¹¹)

십분⁶¹²) 통촉⁶¹³)하옵소서.”

19. (Inspection of Swallows)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He tells the king of the birds that Heungbo saved him, and that he wants to return his favor.

[Aniri] Heungbo sheds a lot of tears, saying goodbye to the swallow.

Several days later, the swallow arrives at Jiangnan(江南).

In that region, a cuckoo is the king of the birds.

He inspects all sorts of birds.

"The green swallow who has been to Japan!"

"I am here."

"The swift who has been to China."

"I am here."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the US!"

"I am here."

The Heungbo swallow who was born in Korea!"

[Jungmori] Heungbo's swallow comes in.

The swallow comes in.

The broken legs are out of shape, so he hobbles in unsteadily.

The swallow general asks, "You rascal! Why are your legs swollen?"

The swallow answers, "Let me tell you, sir.

Born in Korea, I fell down from the sky while practicing flying, putting myself near death.

Virtuous, Heungbo treated my legs. As a result, I manage to live.

How can I return his favor?

Please be considerate of my wish."

20. (제비 노정기) 다음해 봄이 되자,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 물고 흥보 집을 찾아온다.

[아니리] 제비 장수 들으시고, “박흥보 씨 선심⁶¹⁴)이야말로 강남까지 대단한 양반이로구나.

명춘⁶¹⁵)에 나갈 때는 보은포⁶¹⁶)라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드리면 네 은혜는 다 갚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네 어미 제비가 번번이 장령⁶¹⁷)을 어기기 찌우에⁶¹⁸) 그런 환⁶¹⁹)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제는⁶²⁰) 복덕일⁶²¹)을 받아 나가거라, 응!”

삼동⁶²²)이 지나고 삼춘⁶²³)이 방장하니,⁶²⁴

원갓 날짐승들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⁶²⁵)을 허는 때라,

흥보 제비도 나오는데, 제비 노정기⁶²⁶)로 나오겠다.

[중중모리] 흑운⁶²⁷) 박차고,⁶²⁸)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⁶²⁹)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⁶³⁰) 지척이요,⁶³¹

동해 창망⁶³²)하구나.

축융봉⁶³³)을 올라가니

주작⁶³⁴)이 넘는다.⁶³⁵

황우토 · 황우탄⁶³⁶) · 오작교⁶³⁷) 바라보니,

오초동남⁶³⁸) 가는 배는 북을 두리둥둥 두리둥 올리며

여기야 여기야 히어쳐 저어가니, 원포귀범⁶³⁹)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테

불승청원각비래라.⁶⁴⁰

날아오는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20. (The Swallow's Journey) When spring comes, the swallow holds a favor-returning gourd seed on its mouth and returns to Heungbo's house.

[Aniri] The swallow general responds, "Heungbo's beautiful mind pervades even to Jiangnan(江南).

Next spring, you can return his favor by giving him a gourd seed called Favor-Returning Gourd.

Your mother often disobeyed a general's order, so you got into the disaster.

Next spring, start the journey on a lucky date."

Winter goes and spring comes.

It is the time now that all sorts of birds come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Heungbo's swallow comes back along the swallow's travel route.

[Jungjungmori] The swallow passes through black and white clouds.

It flies high in the sky and looks around.

Xishu(西蜀) is close.

The East Sea is far away.

The swallow flies over Zhurong(祝融) Mountain Peak,

A red phoenix flies up and down there.

The swallow gazes at the Wuque(烏鵲) Bridge on Huangniu(黃牛) River.

A boat heads to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Chu(楚) Country in the south, while drumming.

Yo-heave-ho. It is a fishing boat coming back to port from the sea.

Moss is on both banks near blue water and shiny sand.

A bird overpowered by grief comes back.

Wild geese fly, holding reeds in their mouths.

일점 이점⁽⁶⁴¹⁾ 점점 날아 평사낙안⁽⁶⁴²⁾이 이 아니냐.
 백구⁽⁶⁴³⁾ . 백로⁽⁶⁴⁴⁾ 짝을 지어 창파상⁽⁶⁴⁵⁾ 왕래하니,
 석양춘⁽⁶⁴⁶⁾이 여기로다.
 회안봉⁽⁶⁴⁷⁾을 넘어 황릉묘⁽⁶⁴⁸⁾ 들어가니,
 이십오현탄야월⁽⁶⁴⁹⁾의
 반죽지⁽⁶⁵⁰⁾ 쉬어 앉아
 두견성⁽⁶⁵¹⁾을 화답⁽⁶⁵²⁾하고,
 봉황대⁽⁶⁵³⁾ 올라가니
 봉거대공강자류라.⁽⁶⁵⁴⁾
 황학루⁽⁶⁵⁵⁾를 올라가니
 황학일거불부반
 백운천재공유유라.⁽⁶⁵⁶⁾
 금릉⁽⁶⁵⁷⁾을 지내어
 주사춘⁽⁶⁵⁸⁾ 들어가니,
 공숙창외도리개⁽⁶⁵⁹⁾라.
 낙매화를 툇 차서 무연에 펠렁 떨어치고,⁽⁶⁶⁰⁾
 종남산⁽⁶⁶¹⁾을 지내, 이수⁽⁶⁶²⁾를 다다라 계명산⁽⁶⁶³⁾을 올라가니
 장자방⁽⁶⁶⁴⁾ 간 곳 없고,
 남병산⁽⁶⁶⁵⁾ 올라가니 칠성단⁽⁶⁶⁶⁾이 빈 터요,
 연제지간⁽⁶⁶⁷⁾을 지내어,
 장성⁽⁶⁶⁸⁾을 지내, 갈석산⁽⁶⁶⁹⁾을 넘어
 연경⁽⁶⁷⁰⁾을 들어가 황극전⁽⁶⁷¹⁾에 올라 앉아 만호장안⁽⁶⁷²⁾ 구경하고,

They set down on a flat sandy plain one by one.
 Sea gulls and white herons move back and forth in pairs on the
 surface of blue water.
 The sun sets now in this village.
 The swallow passes over Huiyan(回雁) Mountain Peak and
 reaches Huangling(皇陵) Tomb.
 A lute with 25 strings is played.
 The swallow takes a rest on a bamboo branch.
 He responds favorably to a cuckoo's song.
 The swallow flies up to Fenghuang(鳳凰) Tower.
 The phoenix left a tower below where a river flows.
 The swallow flies up to Huanghe(黃鶴) Tower.
 The yellow crane has gone and never comes back.
 Only white clouds have been floating for a thousand years in
 the sky.
 The swallow passes over Nanjing(南京).
 It arrives at a village with a tavern.
 Peach and plum flowers bloomed, exciting a sexual desire.
 The swallow snatches a falling ume flower and throws it to a
 dancing party.
 The swallow flies over Zhongnan(終南) Mountain, Ershui(二水)
 River, and Jiming(鷄鳴) Mountain.
 Zhang Zifang(張子房) is gone.
 The swallow flies up to Nanping(南屏) Mountain where there
 is an altar site.
 The swallow flies in between Yan(燕) Country and Qi(齊)
 Country.
 The swallow passes over the Great Wall and Jieshi(碣石)
 Mountain.
 It flies to the emperor's office and sees the numerous houses
 in the city.

정양문⁶⁷³ 내달아, 상달문⁶⁷⁴ 지내
 봉관⁶⁷⁵을 들어가니, 살 · 미륵⁶⁷⁶이 백이로다.⁶⁷⁷
 요동 칠백 리를 순식간에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고탑,⁶⁷⁸ 통군정⁶⁷⁹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 박남산⁶⁸⁰ · 석벽강⁶⁸¹ · 용천강⁶⁸² · 좌우령⁶⁸³을 넘어,
 부산 파발⁶⁸⁴ · 환마고개⁶⁸⁵ · 강동다리⁶⁸⁶를 건너,
 칠성문⁶⁸⁷ 들어가니 평양은 연광정⁶⁸⁸ · 부벽루⁶⁸⁹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⁶⁹⁰을 지내,
 송도⁶⁹¹를 들어가
 만월대⁶⁹² · 관덕정⁶⁹³ · 박연폭포⁶⁹⁴를 구경하고,
 임진강을 시각에⁶⁹⁵ 건너,
 삼각산⁶⁹⁶에 왔다.
 지세⁶⁹⁷를 살펴보니,
 천룡⁶⁹⁸의 대원맥⁶⁹⁹이 중령⁷⁰⁰으로 흘러져,⁷⁰¹
 금화⁷⁰² · 금성⁷⁰³ 분계⁷⁰⁴하고, 춘당⁷⁰⁵ · 영춘⁷⁰⁶ 휘돌아 도봉⁷⁰⁷
 · 망월이⁷⁰⁸ 생겼다.
 문물이 빈빈하고,⁷⁰⁹
 풍속이 회회하여⁷¹⁰
 만만세지금탕⁷¹¹이라.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디,
 운봉 · 함양 두 얼품에⁷¹² 홍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바라.

It leaves the city vigorously through the big gates.
 It arrives at a region where there are many Buddhist statues.
 The swallow passes through the wide region, Liaodong(遼東),
 in a breath.
 The swallow crosses Amnok River and arrives at Euiju City.
 It goes over a tower and sits on a pavilion, looking around.
 The swallow flies over mountains, rivers, and passes on the left
 and right.
 The swallow moves over a station, a busy pass, and a bridge.
 The swallow goes through a gate and watches Yeongwang
 Pavilion and Bubyek Tower in Pyeongyang City.
 The swallow now passes by a place called Jangnim by Daedong
 River.
 The swallow now enters Gaeseong.
 It sees Manweol Pavilion, Gwandeok Pavilion, Seonjuk Bridge,
 and Bagkyeon Waterfall.
 The swallow now crosses Imjin River quickly.
 The swallow arrives at Bukan Mountain.
 It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features.
 The central energy that produces lucky sites flows through half
 of the mountain range.
 It splits into two courses, getting around a pavilion and a gate,
 and producing a mountain.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fortress.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Heung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Behold the swallow!

보은포 박씨를 입에다 물고 거중에 등등 높이 떠,
 남대문 밖 썩⁷¹³) 내달아
 칠패⁷¹⁴) · 팔패⁷¹⁵) · 배다리⁷¹⁶) 지나, 애고개⁷¹⁷)를 얼른 넘어
 동작강⁷¹⁸)을 월강,⁷¹⁹) 승방⁷²⁰)을 지내어,
 남태령⁷²¹) 고개 넘어,
 두 쪽지⁷²²) 찢 벌리고
 번뜻 수루루⁷²³) 펄펄 날아, 홍보 문전을 당도, 홍보 문전을 당도하니,
 당상당하 비거비래⁷²⁴)
 편편히⁷²⁵) 노는 거동은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북해 흑룡⁷²⁶)이 여의주⁷²⁷)를 물고 채운간⁷²⁸)으로 넘노는⁷²⁹) 듯,
 단산⁷³⁰) 봉황이 죽실⁷³¹)을 물고 오동 속으로 넘노는 듯,
 춘풍 황앵⁷³²)이 난초를 물고 세류중⁷³³)으로 넘노는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드니,
 홍보가 보고 좋아라,
 “얼씨구나, 떴다. 내 제비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북풍한창안비고⁷³⁴) 기러기 닮이 되어, 평사낙안⁷³⁵)에 놀고 와?
 유왈유소 엮은 남기 위소차로 네 갔더냐?⁷³⁶)
 원촌진촌⁷³⁷) 너 보내고, 옥향청산의 문두견,⁷³⁸) 소식이 적적 막연터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천도지도⁷³⁹) 반갑다.”
 저 제비 거동을 바라.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⁷⁴⁰) 위에 올라 앉아 제비말로 운다.

It flies high in the sky with the gourd seed in its mouth.
 It flies through South Gate in Seoul.
 It quickly goes over streets, stations, bridges, and passes in Seoul.
 It crosses a branch of the Han River and passes by a Buddhist temple.
 It goes over a pass near Seoul.
 It opens its wings wide.
 It flies vigorously, arriving at the front of Heungbo's house.
 The swallow moves up and down the eaves.
 It seems to be having fun.
 How can it be described?
 It looks as if a black dragon of a northern sea flies up and down the colorful clouds with a divine pearl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phoenix of Danshan(丹山) Mountain of red sand flying to and from a paulownia tree with a bamboo seed in its mouth.
 It seems like a yellow nightingale with an orchid on its mouth, having fun inside a willow tree in spring wind.
 The swallow flies into the house.
 Heungbo is joyous.
 "Hurrah. I see you, my swallow.
 Where have you been?
 Did you fly high in the sky and fly down on the sand like a wild goose?
 Did you make a nest in a tree?
 After you left, I asked a cuckoo in vain on a green mountain about how you are doing.
 I am glad that you came back to me."
 Behold the swallow.
 It flies into the house, sits on a crossbeam, and speaks the swallow language.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포지 내지배요,⁷⁴¹⁾

빼드드드드.”⁷⁴²⁾

홍보가 보고 고이⁷⁴³⁾ 여겨 찬찬히⁷⁴⁴⁾ 살펴보니,

절골양각⁷⁴⁵⁾이 완연.⁷⁴⁶⁾

“당사실⁷⁴⁷⁾로 감은 다리가 아리롱아리롱하니⁷⁴⁸⁾

어찌 아나가 내 제비랴?”

저 제비 거동을 봐.

보은포⁷⁴⁹⁾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넘놀다,

홍보 양주⁷⁵⁰⁾ 앓은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백운간⁷⁵¹⁾으로 날아
간다.

21. (가난타령) 추석이 다가와도 먹을 것이 없자, 홍보 아내 가 가난타령을 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홍보가 좋아라고 박씨를 딱 주워⁷⁵²⁾ 들고 보더니마는,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아,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네, 여!”

홍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그것 박씨가 아니라 연실인갑소,⁷⁵³⁾ 연실.”

“어소,⁷⁵⁴⁾ 이 사람아. 연실이라는 말이 당치⁷⁵⁵⁾ 않네.

“Do you remember me, master?
 I came back. Let me say hello to you.
 I fell down and broke my legs.
 You treated them.
 I brought a gourd seed to return your favor.
 Here I am.”
 Puzzled at the swallow, Heungbo takes a hard look at it.
 It is clear that the two legs were broken.
 “I see the traces of your legs which were wrapped up with silk threads.
 Aren’t you my swallow?”
 Behold the swallow.
 It moves around, holding the gourd seed in its mouth
 It throws the gourd seed in front of Heungbo and his wife, and
 flies away into white clouds.

**21. (Poverty Song) Thanksgiving Day comes. Having
 no food, Heungbo’s wife laments and sings the
 poverty song.**

[Aniri] Joyous, Heungbo picks up the gourd seed, and takes a
 close look at it.
 “Oh, darling. Sweetheart!
 The swallow brought us a gourd seed.”
 Heungbo’s wife takes a look at it.
 “Honey, it appears that is not a gourd seed but a lotus seed.”
 “No, no. It doesn’t makes sense it is a lotus seed.

장남의 미인들이 초야박명⁷⁵⁶⁾ 달 밝을 적에 죄다⁷⁵⁷⁾ 다 따버리고 없
 는디,
 제까짓 놈이 어디서 연실을 물어 와?
 뉘 박 심은 데서 놀다가 물고 온 놈이제.
 옛날 수란⁷⁵⁸⁾ 사람이 뱀 한 마리를 살려보냈더니,
 그 은혜를 갚노라고 구슬을 물어왔더니마는,
 오늘 우리 제비는 박씨를 물어왔네그려.
 물고 온 것이 고마우니 우리 이놈 심세.”
 동편 처마 단장⁷⁵⁹⁾ 밑에다 구덩이를 크게 파고,
 싹 째 놓고,⁷⁶⁰⁾ 거름 넣고
 박씨를 따둑따둑⁷⁶¹⁾ 단단히⁷⁶²⁾ 잘 심었제.
 수일⁷⁶³⁾이 지내더니 박순이 올라달아오는다,⁷⁶⁴⁾ 북채만.⁷⁶⁵⁾
 또 수일이 되더니 홍두깨⁷⁶⁶⁾만, 기둥만.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마는, 박 잎사귀가 샷갓⁷⁶⁷⁾ 만씩 해가지고 홍보
 집을 짹짹 엮어노매,
 구년지수⁷⁶⁸⁾ 장마저봐야 홍보 집 썰 바 만무하고,⁷⁶⁹⁾
 지동⁷⁷⁰⁾해도 홍보 집 쓰러질 리 없것다.
 홍보가 그때부터 박 덕을 보던가 보더라.
 이때는 어느 땐고?
 팔월 대명일⁷⁷¹⁾ 추석이로구나.
 다른 집에서는 떡을 한다, 밥을 한다, 자식들을 곱게곱게 입혀 선
 산⁷⁷²⁾ 성묘를 보내고 야단이 났는디,
 가련한 홍보 집에는 먹을것이 없어노니,
 자식들이 모두 떡을 달라, 밥을 달라 자기 어머니를 졸라싸니까,
 홍보 마누라가 기가 맥혀 혼자 앉아 우는 게,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

Beautiful girls in Jiangnan(江南) harvested all the lotus seeds on
 the bright moon.
 How can the swallow get a lotus seed?
 It must have gotten the seed from a gourd somebody planted.
 An ancient man saved a snake and released it.
 The snake brought the man a bead to return his favor.
 Today, my swallow brought me a gourd seed.
 Let's thank the swallow and plant it."
 He digs a big hole near a fence below the eaves.
 He covers the seed with a straw shoes and manure.
 He levels the surface of the soil softly.
 After several days more, a sprout comes out vigorously to the
 size of a drumstick.
 After another several days, it became as big as a club and then
 a pillar.
 Since the vine is as big as a pillar, the leaves are as big as a
 cylindrical hat, covering Heungob's house.
 A heavy rain can't fall through Heungbo's house.
 An earthquake can't shake Heungbo's house down.
 Heungbo begins to be benefited from the gourd.
 What time of the year is it now?
 It is Thanksgiving Day now.
 Other families in the village are busy, making many kinds of
 food. They visit their ancestors' tombs with children dressed up.
 Poor, Heungbo's family has nothing to eat.
 The children badger their mother for rice cake or rice.
 Dumfounded, Heungbo's wife cries by herself.
 What she sings is the poverty song.

[중모레]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⁷⁷³)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 쓰기예가⁷⁷⁴) 매었는가?

삼신 제왕님⁷⁷⁵)이 짚자리에 떨어칠 적에⁷⁷⁶) 명⁷⁷⁷)과 수복⁷⁷⁸)을 짐지⁷⁷⁹)를 했나?

북두칠성님⁷⁸⁰)이 복 마련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⁷⁸¹) 높은 집에 호가사⁷⁸²)로 잘 사는데, 이녀르⁷⁸³) 신세는 어찌를 하여 밤낮으로 별었어도 삼순구식⁷⁸⁴)을 헐 수가 없고,

가장⁷⁸⁵)은 부황⁷⁸⁶)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⁷⁸⁷)이 되니,

이것이 모두가 웬 일이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자식들도 모두 다 울음판이 되는구나.

22. (첫째 박) 흥보 내외가 첫째 박을 타면서 밥이 나오기를 빈다.

[자진모리] 흥보가 들어온다. 박흥보가 들어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이것이 웬 일인가?

마누라가 이리 설리 올면 집안에 무슨 재수가 있으며,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⁷⁸⁸)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배가 정 고프거든, 지붕에 올라가서 박을 한 통 내려다가 박속⁷⁸⁹)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아 양식 팔고, 나무를 사서 어린 자식들을 구원을 허세.

우지 말라면, 우지 말어.”

[Jungmori] “Poverty! Poverty! Evil poverty!

Does the site of ancestor’s tomb determine our fate?

Or does the god governing childbirth determine our fate when we come to the world?

Does good luck come from the Big Dipper?

Some have good fate, living in high and splendid houses.

But my fate is so bad that I go hungry everyday even if I work day and night.

But the head of the family and the children are starving.

I can’t believe my fate.

I would rather die.”

Since she cries, so do all the children.

22. (First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first gourd, hoping that rice comes out.

[Jajinmori] Heungbo comes in. He comes in.

“Honey! Look, darling.

I can’t believe what you are doing.

If you cry sadly, bad luck will come to my house, and we will be in disgrace with the villagers.

Don’t cry. Come to me. Please come here.

If you are that hungry, let’s go up on the roof, pick a gourd, cook the inside flesh, sell the shell, and buy food and wood.

That way, we can save the children.

Please don’t cry.”

[아니리] 홍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툭툭 통겨본즉,

팔구월 찬 이슬에 박이 짹짹 여물었제.

홍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홍보 내외 자식들을 데리고 톱을 걸고 박을 타는디,

[진양조] “시르르르렁⁷⁹⁰ 실건,⁷⁹¹ 당겨 주소. 에여루, 톱질이로 구나.”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의 밥이 포한⁷⁹²이로구나.”

“에여루, 당겨 주소, 시르르르.”

“큰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놈은 내한트로⁷⁹³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⁷⁹⁴ 박속일랑 끓여먹고, 바가질랑은 부잣집에다 팔아다가 목숨 보명⁷⁹⁵ 살아나자.”

“에이여루, 당기어라, 톱질이야.”

“여보소, 마누라!”

“예.”

“톱소리⁷⁹⁶를 어서 맞소.”⁷⁹⁷

“톱소리를 맞자 한들 배가 고파 못 맞겠소.”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써서 당겨 주소.”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실건, 당겨 주소.”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씩 시르렁 이르렁 실건 실건 식씩 실건 실건 실건 시르렁 식씩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씩.

[Aniri] Heungbo climbs to the roof and hits a gourd with his finger.

The gourd is mature due to the dew in August and September. Heungbo brings the gourd down.

He saws the gourd together with his wife and children.

[Jinyangjo] “Here goes the saw. Here goes the saw.”

“All I want when this gourd is cut in half is a bucket of rice. Rice is what I earnestly wished for.”

“Pull the saw.”

“The first son, go away. The second son, come to me.

After this gourd is sawn open, let’s cook the inside flesh, and sell the shell to the rich, preserving our lives.”

“Pull the saw. Here goes the saw.”

“Hey honey!”

“Yes.”

“Respond to me in the saw song.”

“I want to, but I am too hungry to do it.”

“If you are that hungry, tighten your belt and pull the saw.”

“Yo-ho.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3. (쌀과 돈이 많이 나옴) 박 속에서 쌀과 돈이 들어있는 퀘작 두 개가 나오는데, 아무리 부어도 도로 가득해진다.

[아니리] 박을 딱 타 놓고 보니 박통 속이 땡.

“아, 여 나간 놈의 집구석⁷⁹⁸이로구나.

박속은 어느 놈이 다 파 가버리고, 빈 껍덕⁷⁹⁹만 갖다 붙여놔네, 여.

박속 파 간 놈보다 박껍질 붙여 놓 놈 재주가 더 용쿠나, 잉!”

한 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웬 퀘⁸⁰⁰ 두 짝이 들어 있제.

“어느 놈이 박속은 다 파 가버리고, 염치 없으니 남의 조상퀘⁸⁰¹를
갖다 넣어 놔네, 여.

이거 관가⁸⁰²에서 알면 큰일 난다.

갖다 내버려라.”

홍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더니마는, “여보 영감, 죄 없으면 괜찮으니
좀 열어나 봅시다.”

“아, 요새 여편네들이 통⁸⁰³이 너럭지⁸⁰⁴만 허다니까.

이 사람아 퀘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되,

낮은⁸⁰⁵ 것이 나오면 내뺄⁸⁰⁶ 터인데,

자네 내 걸음 따라오겠나?

그러니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저 사립⁸⁰⁷ 밖에 가 서 있소.

내가 이 퀘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손을 안으로 칠⁸⁰⁸ 터이니 들어오고,

만일 낮은 것이 나오면 손을 밖으로 내칠 터이니,

새끼들 데리고 내빼소, 내빼.”

홍보가 퀘 자물쇠를 가만히 보니,

‘박홍보 씨 개탁’⁸⁰⁹이라 딱 새겼제.

“날보고 열어 보랬지.

**23. (A Lot of Rice and Money Come Out.) A rice box
and a money box come out of the gourd. They get
refilled no matter how much is taken out.**

[Aniri] The gourd is sawn open. There is nothing.

“How unlucky my family is!

Somebody took the inside flesh and left only the shell for us.
The guy who created this gourd is more skillful than the guy
who stole the flesh inside.”

He takes a close look at the gourd inside, and learns there are
two boxes.

“Feeling ashamed, the guy who stole the flesh inside put
ancestral boxes here.

We will get into trouble with the government.

Throw it away.”

Heungbo’s wife responds, “Honey, we didn’t commit any crime.
Let’s open them.”

“Oh, these days women are more brave and courageous than
men.

Listen, honey. It would be great if a good thing is in it.
But if a bad thing comes out, we will have to run away.
Can you run as fast as I?

Stay outside of the twig gate with the children.

I will open these boxes.

If a good thing comes out, I will wave my hand inward.

If a bad thing comes out, I will wave my hand outward.

Run away with the children.”

Heungbo takes a close look at the lock.

There are words: ‘Heungbo, open it.’

“It tells me to open it.

아먼,⁸¹⁰⁾ 그렇지.
 열어 봐도 괜찮다지.
 아먼, 그렇고 말고.”
 궤를 찰칵찰칵 번쩍 열고 보니,
 어백미⁸¹¹⁾ 쌀이 한 궤 수북.
 또 한 궤를 번쩍 열고 보니,
 돈이 한 궤 가득.
 탁 털어 부어놓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
 돈과 쌀을 비워놓고 보니,
 도로 수북.
 홍보 내외 좋아라고,
 홍보 마누라는 쌀궤를 들고,
 홍보는 돈궤를 들고
 한번 떨어 부어보는데,
 장단을 휘모리⁸¹²⁾로 바짝 몰아놓고⁸¹³⁾ 떨어붓는데,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툽툽 털어 붓고 나니 도로 수북.
 툽툽 털어 붓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쌀과 돈이 도로 가득.
 눈 한 번 깜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 돈이 도로 가득.
 돈과 쌀이 도로 가득.
 비워내고 되아내고,⁸¹⁴⁾ 비워내고 되아내고, 비워내고 되아내고, 비워
 내고 되아내고.
 툽툽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구나!

Oh, I see.
It's OK to open it.
That's right."
He opens a box, making a sound.
It is filled with rice of high quality.
He opens the other box, making a sound.
It is full of money.
He pours things out.
The box is refilled with things.
He pours rice and money out.
They are refilled with rice and money.
Heungbo and his wife are excited.
Heungbo's wife holds the rice box.
Heungbo holds the money box.
They pour things out.
They pour things out in accordance with Hwimori, a fast rhythm.

[Hwimori] Heungbo is joyous and pleased.
They pour things out, and the boxes are refilled.
They pour things out, and the boxes are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The boxes are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They blink their eyes, turn around, and see the boxes refilled with rice and money.
The boxes are refilled with rice and money.
They emptied the boxes again and again.
They pour things out, turn around, and see the boxes refilled.
"This is fantastic!

일년 삼백육십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부어내고 되아내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톡톡 털어 붓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뜩.

24. (돈타령) 흥보가 돈 한 께미를 들고 돈타령을 한다.

[아니리] 어찌 떨어 부어났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⁸¹⁵)이요, 돈이 일만 구만 냥⁸¹⁶)이라.

나도 어쩐 회계⁸¹⁷)인지 알 수가 없지.

흥보 내외 좋아라고 돈 한 께미⁸¹⁸)를 들고 노는디,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고. 얼씨구나 절씨고.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돈 보라. 돈 보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맹상군⁸¹⁹)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⁸²⁰)을 가진 돈,

부귀공명⁸²¹)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보라.

야, 이 자식들아, 춤추어라. 어따, 이놈아 춤을 추어라.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고나 절씨고.

여보아라, 큰자식아.

I hope things come out continuously 365 days a year.”
They emptied the boxes again and again.
They pour things out, turn around, and see the boxes refilled.

24. (Money Song) Heungbo sings the money song, holding a string of coins.

[Aniri] Heungbo poured out so much rice and money that they
are piled up like a mountain.
Even I don't know how they counted the things.
Joyous, Heungbo and his family enjoy themselves, holding a
string of money.

[Jungjungmori]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Oh boy!
Hurrah! Whoopee! Yippee!

Behold money!

Money makes the poor happy.

It makes the rich happier.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It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accompanies honor and wealth.

Money, you rascal! Where have you been?

Hurrah! Behold money.

Children, dance. You rascal! Dance together.

What can make me happier than this?

Whoopee! Yippee!

Hello, the eldest son.

건넌말⁸²²⁾ 건너가서, 너희 백부님⁸²³⁾을 오시래라.
 경사⁸²⁴⁾를 보아도 형제 불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오, 부자들.
 부자라고 자세⁸²⁵⁾ 말고,
 가난한 사람 팔시 마소.
 엇그저께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⁸²⁶⁾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송⁸²⁷⁾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⁸²⁸⁾을 내가 부러워하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홍보를 찾아 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⁸²⁹⁾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25. (홍보 식구들 밥먹기) 홍보 식구들이 제각기 밥을 해서 먹는데, 홍보는 밥을 뭉쳐서 던졌다가 받아서 먹는다.

[아니리] 한참 이리 춤을 추고 놀다가,
 “여보소, 마누라.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우선 밥 좀 해먹고 타세.
 우리 권속⁸³⁰⁾이 모두 몇이냐?
 자식들이 열아홉, 우리 내외 도합⁸³¹⁾이 스물하나로구나.
 여태까지 굶은 판에 매명하⁸³²⁾에 한 섬 밥 못 먹겠나.
 스물한 섬만 갔다 해라.”
 온 동네 가마솔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고두밥⁸³³⁾ 찌듯 찌놓고,

Go to the neighboring village, and ask your uncle to come over here.

Let me share good things with my brother.

“Hurrah! Hurrah!

Hello, rich people.

Don’t act arrogant because you are rich.

Don’t look down on the poor.

Up until yesterday, I was begging around.

I became rich today.

I don’t envy ancient billionaires.

Poor and pitiful people, come to my house.

From now on, I will give grain to the poor.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Oh boy! Hurrah! Whoopee!”

25. (Heungbo’s Family Eats Rice) Heungbo’s family members eat rice. Heungbo makes rice balls, throws them into air, and catches them with his mouth.

[Aniri] Heungbo dances, enjoying himself.

“Hello, honey. We have that much rice and money.

Let’s eat rice and saw another gourd.

How many family members do we have?

We have 19 children, so we have 21 people in total, including us.

We have been hungry for so long that each of us can eat a bag of rice.

Cook 21 bags of rice.”

They borrow iron pots from the villagers and make the rice.

홍보 자식들이 지게 발대⁸³⁴)를 짊어지고 밥을 저 나르는데,

“밥 지러 가자.”

“우.”

“에 뜨거워라.”

“꾸.”

“밥 지러 가자.”

“우.”

“에 뜨거워라.”

“쿵.”

어찌 저다 부득시려⁸³⁵) 났던지 밥 무더기가 삼 간⁸³⁶) 집채만 허게
저다 부어놓고,

홍보가 영⁸³⁷)을 놓는데,

“네 이놈들, 애비 영 전에 밥 한 순갈이라도 몰래 먹어서는 밥으로
목을 베리라.”

“예이!”

군율⁸³⁸)이 꼭 짜였지.

홍보 자식들이 달려들어 밥을 ‘와삭 와삭 와삭’ 누에 한밥⁸³⁹) 삭이듯
퍼먹고 있을 적에,

홍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영감도 어서 진지 잡수시오.”

“나는 자식들처럼 저렇게 조백없이⁸⁴⁰)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저 밥 속에 가 드러누워서 먹을라네.”

“아이고, 나도 그럼 영감 따라 드러누워서 먹어 볼라요.”

“어디, 여편네가 요망스럽게!”

홍보가 밥을 먹는데,

밥을 뭉쳐서 초라니⁸⁴¹) 죽방울⁸⁴²) 던지듯 공중에다가 딱 던져놓고,
내려오는 놈을 두꺼비 파리 채듯⁸⁴³)허것다.

Heungbo's children carry rice with A-frame carriers.

"Let's go carry the rice."

"Oh."

"It's so hot."

"Bang."

"Let's go to carry the rice."

"Oh."

"It's so hot."

"Bang."

They carried and put so much rice on a place that it is piled up like a house.

Heungbo gives an order.

You rascals. If you eat even a spoon of rice in secret, I will slash your head off with rice."

"Yes!"

The children are well-disciplined.

The children run to the pile of rice and eat it feverishly.

Heungbo's wife says, "Honey, please help yourself, too."

"I don't eat rice in a primitive manner like the children.

Let me get into the pile of rice, lie down, and eat it."

"Then, let me follow you, lie down, and eat it too."

"How can a woman eat like that?"

Heungbo eats rice.

He makes a rice ball and throws it into the air, as a traveling female entertainer throws a ball into the air.

He catches the rice ball falling down, as a toad snatches a fly.

홍보가 밥을 먹는다 무슨 장단⁸⁴⁴)이 있으리오마는,
홍보가 근본 오입쟁이⁸⁴⁵)라 밥 먹는데도 장단을 휘모리⁸⁴⁶)로 따르르⁸⁴⁷)
몰아놓고⁸⁴⁸) 밥을 먹던가 보더라.

[휘모리]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을 먹는다.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을 먹는다.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뭉쳐가지고,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
고 받아먹고,

어찌 많이 먹어 왔던지 밥손⁸⁴⁹)이 점점 늘어지던가⁸⁵⁰) 보더라.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
고 받아먹고.

“아…….”

[아니리] 어찌 밥을 먹어왔던지 홍보가 밥을 먹다 죽는다.

홍보 마누라 기가 맥혀,

“아이고, 여보 영감. 정신 좀 차리시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There can't be a rhythm in accordance with which Heungbo eats rice.

Heungbo is originally a smart man, so he eats rice balls in accordance with Hwimori, a fast rhythm.

[Hwimori] Heungbo eats rice.

Heungbo eats rice.

Heungbo eats rice.

He makes rice balls fast.

"Go up."

'He gulps it.'

Heungbo eats rice.

Heungbo eats rice.

Heungbo eats rice.

He makes rice balls fast.

"Go up."

'He gulps it.'

He throws rice balls into the air, catches them with his mouth, and eats them.

He ate so much rice that his hand begins to move slowly.

He throws rice balls into the air, catches them with his mouth, and eats them.

"Oh."

[Aniri] Heungbo almost ate himself to death on the rice.

Heungbo's wife is struck dumb.

"Honey, collect yourself.

Don't die on me.

I can't believe you are dying while eating.

밥 없어서 배고파 죽겠더니마는 이제는 밥을 많이 먹어 돌아가시네.
아이고, 여보 영감. 정신 좀 차리시오.”

한참 이러고 있을 적에, 흥보 큰아들놈이 강밥⁸⁵¹⁾ 굶으러 돌아다니
다가,

나갔던 상주⁸⁵²⁾ 제청⁸⁵³⁾에 달려들 듯 썩 들어서며,

“여, 밥판⁸⁵⁴⁾이 어찌 됐어?”

“아이고, 이놈아. 밥판이고 무엇이고 느그⁸⁵⁵⁾ 아버지 세상버리신
다.”⁸⁵⁶⁾

“밥 먹다가 죽는 걸 뉘 아들놈이 안단 말ियो?

어디 아버지 배 좀 봅시다.

아버지 배에 가서 밥이 환하니 비쳤소, 비쳐.

우리 강아지 한 마리 몰아넣읍시다.”

“아니, 이놈아. 강아지가 들어가서 어찌게야?”

“아, 강아지가 밥을 다 먹어버릴 게 아니오?”

“강아지는 어디로 나오게야?”

“그러기에 호랑이를 한 마리 몰아넣지요.”

“아이고, 이놈아. 강아지는 잡아먹는다 치고, 호랑이는 어디로 나오게
야?”

“그러기에 독한 포수를 또 몰아넣지요.”

“포수가 들어가서 어쩐다냐?”⁸⁵⁷⁾

“총으로 탕 쏘노면 호랑이가 죽지 않겠소?”

“아이고, 이놈아. 호랑이는 죽는다 치고, 그럼 포수는 어디로 나올
것이나?”

“그러기에 나라님⁸⁵⁸⁾ 거동령⁸⁵⁹⁾을 아버님 불기짝에다가 딱 때려붙여
놓으면,

제까짓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어디 두고 보시오.”

You were starving to death. You are now eating to death.
Honey, collect yourself.”
Meanwhile, Huengo’s eldest son has been moving around to get scorched rice.
He comes to their parents fast.
“What happened to the rice?”
“You rascal! Forget the rice? Your father is about to pass away.”
“I can’t believe he is dying while eating.
Let me take a look at his belly.
I can see rice in his belly. I can see it.
Let’s get a puppy into his belly.”
“You rascal. What will a puppy do in his belly?”
“The puppy will eat up all the rice.”
“How would the puppy come out?”
“Then, let’s get a tiger into his belly.”
“You rascal. The tiger might eat the puppy. Then, how will the tiger come out?”
“Then, let’s get an atrocious hunter into his belly.”
“What will the hunter do in his belly?”
“He will shoot the tiger.”
“You rascal. The tiger might die. Then, how will the hunter come out?”
“Let’s attach a king’s order on my father’s hip that the king will go out.
Let’s see whether the hunter comes out or not.”

26-1. (밥타령, 둘째 박) 흥보가 정신을 차려 밥타령을 부르며 놀다가, 둘째 박을 탄다.

[아니레] 한참 이리 헐 적에, 흥보가 겨우 정신을 채려 밥타령을 한번
허고 노는디,

[중중모리] “밥 먹은개⁸⁶⁰ 좋다.

밥 먹은개 좋다.

수인씨 교인화식⁸⁶¹ 날로 두고서 생겼나?

밥 먹으니 좋다.

얼씨고나, 좋을시고.

만승천자⁸⁶²라도 식이위대⁸⁶³라 하였으니 밥이 아니면 살 수가 있나?

얼씨구나, 좋구나.”

[아니레] 한참 이리 놀다가,

“여봐라. 박 한 통 더 따오니라.⁸⁶⁴ 우리 타자.”

또 한 통을 들여다 놓고 타는디,

[중모리] “시르르렁 실건, 툇질이야. 에여루, 당겨 주소.”

“이 박통에 나오는 보화는 김제 만경 외에미들⁸⁶⁵을 억십만금⁸⁶⁶을
주고 사고,

충청도 소사 들⁸⁶⁷을 수만금⁸⁶⁸을 주고 사면, 부익부⁸⁶⁹가 되리로
구나.”

“시르렁 실건, 당그여라, 툇질이야.”

“강상⁸⁷⁰의 둥둥 뗏은 배는 수천 석을 지가⁸⁷¹ 실코⁸⁷² 간들 내 박
한 통을 당허드란 말이나?”

“시르렁 실근 당기어라.”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속썩.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속썩.

26—1. (Rice Song, Second Gourd) Heungbo collects himself, sings the rice song, and saws the second gourd.

[Aniri] Just then, Heungbo gathers himself and has fun, singing the rice song.

[Jungmori] “I feel good because I ate rice.

I feel happy because I ate rice.

Sui Ren Shi(騷人氏) taught us how to cook with fire for my sake.

I feel great because I ate rice.

Hurrah. Hurray.

Even if you have thousands of chariots, eating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for our survival.

Yippee. Whoope.”

[Aniri] Heungbo enjoys himself.

“Hello. Bring another gourd here. Let’s saw it.”

They bring another gourd and saw it.”

[Jungmori]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If jewels come out of this gourd, I’ll buy wide rice paddies in Gimje with a lot of money.

If I buy fields in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I’ll become richer.”

“Pull and push the saw.”

My one gourd is better than a ship on a river loaded with thousands of bags of rice.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6-2. (둘째 박) 흥보가 노래를 부르며 둘째 박을 탄다.

[아니리] 이 대목을 이리 허였으되,
어디 그럴 리가 있으리오?
이것은 잠시 우리 성악가의 재담⁸⁷³⁾이었다.
흥보가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많이 나와 부자가 되었지.
흥보가 밥을 많이 해가지고 식구대로 배불리 먹고나서,
박 둘째 통을 들여다 놓고 타는디,
[진양조] “시르르렁 실건, 툇질이야. 에여루, 당겨 주소.”
“밥 먹으니 좋을시고.
수인씨 교인화식⁸⁷⁴⁾ 날로⁸⁷⁵⁾ 두고 마련했나?
얼씨구나 좋을씨고.
만승천자⁸⁷⁶⁾라도 식이위대⁸⁷⁷⁾라 하였으니, 밥이 아니면 살 수 있나?”
“에여루 당겨 주소.”
“이 박통에 나오는 보화는 김제 만경 외에미들⁸⁷⁸⁾을 억십만금⁸⁷⁹⁾을
주고 사자.
충청도 소사 들⁸⁸⁰⁾을 수만금⁸⁸¹⁾을 주고 사면, 부익부⁸⁸²⁾가 되리로다.”
“시르렁 실건, 당그여라, 툇질이야.”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쓱씩.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쓱씩.

27. (비단타령) 둘째 박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온다.

[아니리] 박이 짹 벌어져노니

26-2. (Second Gourd) Heungbo saws the second gourd, singing a song.

[Aniri] This part is as sung above.

But how can that be?

It is a humorous story made up by the singer.

Heungbo sawed a gourd, a lot of rice and money came out, and he became rich.

Heungbo cooked a lot of rice, and his family members helped themselves.

They bring the second gourd and saw it.

[Jinyangjo]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I feel great because I ate rice.

I thank Sui Ren Shi(燧人氏) who taught people how to use fire to cook.

Hurrah. Hurray.

Even if you have thousands of chariots, eating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for our survival.

“Pull and push the saw.”

“If jewels come out of this gourd, I’ll buy wide rice paddies in Gimje with a lot of money.

If I buy fields in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I’ll become richer.”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7. (Silk Song)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the second gourd.

[Aniri] The gourd finally opens.

박통 속에서 원갓 비단이 나오는데,
 옛적 비단 이름은 다 이렇게 생겼던가 보더라.
[중중모리] 원갓 비단이 나온다.
 원갓 비단이 나온다.
 요간부상삼백척⁸⁸³⁾ 번뜻 뒀다 일광단,⁸⁸⁴⁾
 고소대⁸⁸⁵⁾ 악양루⁸⁸⁶⁾의 적선아미가 월광단,⁸⁸⁷⁾
 서왕모⁸⁸⁸⁾ 요지연⁸⁸⁹⁾의 진상하던⁸⁹⁰⁾ 천도문,⁸⁹¹⁾
 천하 구주⁸⁹²⁾ 산천초목⁸⁹³⁾ 그려내니 지도문,⁸⁹⁴⁾
 태백⁸⁹⁵⁾이 기경상천후⁸⁹⁶⁾에 강남 풍월⁸⁹⁷⁾ 한단.⁸⁹⁸⁾
 동정⁸⁹⁹⁾ 명월 화창헌디 장부⁹⁰⁰⁾ 절개 송금단.⁹⁰¹⁾
 등태산소천하⁹⁰²⁾의 공부자⁹⁰³⁾의 대단,⁹⁰⁴⁾
 남양 초당⁹⁰⁵⁾의 경⁹⁰⁶⁾ 좋은 데 천하 영웅의 와룡단,⁹⁰⁷⁾
 옥경⁹⁰⁸⁾ 선관⁹⁰⁹⁾ 금선⁹¹⁰⁾이요,
 천고일월⁹¹¹⁾의 명주⁹¹²⁾라.
 사해⁹¹³⁾ 요란 분분⁹¹⁴⁾하니 뇌고함성⁹¹⁵⁾의 영초단,⁹¹⁶⁾
 풍진⁹¹⁷⁾을 시르르르 그치니 태평건곤⁹¹⁸⁾의 대원단,⁹¹⁹⁾
 염불타령⁹²⁰⁾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⁹²¹⁾
 큰방⁹²²⁾ · 골방⁹²³⁾ · 가로단이⁹²⁴⁾ 국화 새김 완자문,⁹²⁵⁾
 화란춘성⁹²⁶⁾ 만화방창⁹²⁷⁾ 봉접⁹²⁸⁾ 분분⁹²⁹⁾의 화초단,⁹³⁰⁾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it.

The names of old silk are as follows:

[Jungjungmori] All sorts of silk come out.

All sorts of silk come out.

The sunlight silk: The sun rises in a high place, casting long sunlight.

The moonlight silk: The moon is over Gu Su(姑蘇) Pavilion and Yue Yang(岳陽) Tower

The divine peach silk: A divine peach is offered to an ancient goddess, Xi Wang Mu(西王母), during the party by a divine pond, Yaochi(瑤池).

The map silk: There are mountains, rivers, grass, and trees in the world.

The Chinese silk: After a poet, Li Bai(李白), flew to the sky on a whale, people had fun in the country.

The imaginary silk: A man looks stately when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The Chinese silk: Confucius on Tai(泰) Mountain said that the world looks small on the mountain.

The Kong Ming(孔明) silk: The hero, Kong Ming(孔明), is in a thatched house in beautiful scenery.

The golden silk: A god used to wear it in a capital city.

The unadorned silk: The sun and the moon remain bright for a long time.

The loud silk: The world is chaotic and noisy.

The hope silk: The world became peaceful after a war.

A rhythm silk: It is good to dance in accordance with a prayer.

The chrysanthemum silk: A small room is attached to a large room with a sliding window.

The flower silk: Flowers bloom and living things grow up in spring, while bees and butterflies are fluttering around.

알뜰 사랑 정든 님 날 버리고 가져주,⁹³¹⁾
 가는 님 허리 안고 가지 말라 도리불수,⁹³²⁾
 임 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⁹³³⁾의 상사단,⁹³⁴⁾
 하운이,⁹³⁵⁾ 운문이,⁹³⁶⁾ 삼복염천⁹³⁷⁾의 죽하단,
 추월⁹³⁸⁾ 적막 공단⁹³⁹⁾이요,
 엄동⁹⁴⁰⁾ 대한⁹⁴¹⁾에 설랭이⁹⁴²⁾라.
 쓰기 좋은 양태문,⁹⁴³⁾ 매매 흥정⁹⁴⁴⁾의 갑사⁹⁴⁵⁾로다.
 절개 있는 모초단,⁹⁴⁶⁾ 구십 노인에 아랑주,⁹⁴⁷⁾
 뚜두럭꿍벽⁹⁴⁸⁾ 말굽 장단, 서부령섭적⁹⁴⁹⁾ 세발랑능,⁹⁵⁰⁾
 몽게몽게 구름단,⁹⁵¹⁾ 청사⁹⁵²⁾ · 홍사⁹⁵³⁾ · 통견⁹⁵⁴⁾이며,
 백랑능,⁹⁵⁵⁾ 월하사주,⁹⁵⁶⁾ 통의주,⁹⁵⁷⁾ 방의주,⁹⁵⁸⁾
 해남포,⁹⁵⁹⁾ 도리마,⁹⁶⁰⁾ 당포,⁹⁶¹⁾ 몽고 삼승,⁹⁶²⁾
 철남포,⁹⁶³⁾ 성천 분주,⁹⁶⁴⁾ 필누비,⁹⁶⁵⁾ 함경도 육진포,⁹⁶⁶⁾
 회령, 종성의 만사포,⁹⁶⁷⁾ 임한산⁹⁶⁸⁾ 세모시,⁹⁶⁹⁾
 장성 모시, 선남⁹⁷⁰⁾이며, 경상도 황저포,⁹⁷¹⁾
 해주 원주 옥구 자주,⁹⁷²⁾ 길주 명천 세마포,⁹⁷³⁾
 강진 나주 극상세목⁹⁷⁴⁾이며, 생초,⁹⁷⁵⁾ 삼팔,⁹⁷⁶⁾
 갑주,⁹⁷⁷⁾ 고사,⁹⁷⁸⁾ 관사,⁹⁷⁹⁾
 청공단⁹⁸⁰⁾ 홍공단⁹⁸¹⁾ 백공단⁹⁸²⁾ 흑공단,⁹⁸³⁾ 송화색⁹⁸⁴⁾까지 그저 꾸
 역꾸역 나온다.

The parting silk: My longtime lover leaves.

The trinket silk: A woman grabs a man's hands swiftly to stop him from leaving.

The love silk: A woman is alone in an empty room after her lover is gone.

The summer silk and the cloud silk are used in hot summer,
The plain silk is good when the moon is in the quiet sky in autumn.

The white silk is used in cold winter.

Silk used for a hat string, silk of high quality for a bargain,
thread silk representing integrity, a silk thread for old men,
silk sounding like the clatter of a horse's hoofs, thin silk moving gracefully,

silk looking like a cloud, a blue thread, a red thread, thin silk
for a ponytail ribbon,

white thin silk, sand silk, military silk, silk for soldiers on the
frontline,

a ramie cloth from Haenam, a Chinese hemp cloth, a ramie
cloth, a hemp cloth from Mongolia,

a purple hemp cloth, silk from Seongcheon, a quilted textile,
a hemp cloth from Hamgyeong,

a hemp cloth from Hoiryeong and Jongseong, a fine ramie cloth
from Imcheon and Hansan,

a ramie cloth from Jangseong, an indigo cloth, a hemp cloth
from Kyeongsang,

a silk cloth from Haeju, Weonju, and Okgu, a fine hemp cloth
from Gilju and Myeongcheon,

a fine hemp cloth from Gangjin and Naju, a silk fabric, a Chinese
silk fabric,

a silk fabric of high quality, shiny silk, summer silk,

and fancy silk of blue, red, white, black, and yellow colors come
out without an end.

28. (홍보 내외 옷차림) 홍보와 홍보 아내가 비단으로 옷을 차려 입는다.

[아니리] 어찌 비단이 많이 나왔던지, 홍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내 집에 시집 온 후로 이런 비단 처음 볼 것이네.

우리 비단 본 김에 옷 좀 해 입고 타세.”

“그럼시다.”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무슨 비단이 좋던가?”

“여보, 영감, 나는 항상 보아도 송화색에다가 반회장⁹⁸⁵⁾ 걸쳐 입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비단이 좋습니까?”

“나는 항상 보아도 시커먼 흑공단이 검은⁹⁸⁶⁾ 줄도 모르고 좋네.”

“어디, 그러면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 보시오.”

홍보 마누라가 자기 영감을 한 번 꾸미는디,

[중중모리] “흑공단 갓에 흑공단 갓끈,

흑공단 망건,⁹⁸⁷⁾ 흑공단 당줄,⁹⁸⁸⁾

흑공단 두루마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조끼에 흑공단 바지,

흑공단 버선에 흑공단 대님,⁹⁸⁹⁾

흑공단으로 부채를 들고,

어떤가, 날 보소.”

[아니리] “여보, 영감. 영감은 그렇게 꾸며노니 어찌 보면 청인⁹⁹⁰⁾도 같고,

영락없이⁹⁹¹⁾ 시커먼 까마구 뿐⁹⁹²⁾으로 생겼소.”

“어디, 그러면 맵시 좋은 마누라 한번 꾸며 보소.”

[아니리] 홍보 마누라도 채린다. 홍보 마누라도 채린다.

28.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in silk.

[Aniri] Silk came out so much that Heungbo is joyful.

“Honey, this must be the first time you’ve seen silk since you married me.

Let’s saw another gourd after making silk clothes for ourselves.”

“That’s a good idea.”

“Darling, what is your favorite silk?”

“Honey, I’ve wanted a yellow collar my whole life.

Sweetheart, what is your favorite silk?”

“I always like black silk because it doesn’t get dirty.”

“Then, please dress yourself up with silk.”

Heungbo’s wife dresses her husband up.

[Jungjungmori] “I will wear a black hat, a black hat-string,
a black headband, a black cord
a black coat, a black jacket,
a black vest, black trousers,
black shoes, and black ankle bands.
I will hold a black fan.
Take a look at me.”

[Aniri] “Honey, since you are adorned with those things, you look like a Chinese man.

You certainly look like a crow too.”

“Fine. Then, let’s me see how you dress up yourself.”

[Aniri] Heungbo’s wife dresses up. She dresses up.

“송화색 다리⁹⁹³⁾에 송화색 땡기,⁹⁹⁴⁾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속곳,⁹⁹⁵⁾ 송화색 속속곳,⁹⁹⁶⁾
 송화색 버선에 송화색 무렁개,⁹⁹⁷⁾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고,
 어땡소, 내 맵시?”

29. (셋째 박) 흥보가 형제간의 윤리를 이르면서 셋째 박을 탄다.

[아니리] “여보, 마누라. 자네는 그렇게 꾸며노니 영락없이 버들가지
 속에서 노는 피꼬리같이 생겼네.

자, 우리가 이렇게 옷 해 입었으니,
 신명난 김에 또 한 통 타세.”

흥보 내외 좋아라고, 박 셋째 통을 들여다 놓고 타는디,

[중모리] “시르릉 실건, 톱질이야. 예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드면⁹⁹⁸⁾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보화⁹⁹⁹⁾만 나오
 너라.

은금보화가 많이 나오면은 우리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흥보 마누라 기가 맥혀 톱머리¹⁰⁰⁰⁾를 시르르르 놓으며,

“안 탈라요. 안 탈라요. 나는 이 박 안 탈라요.

형제간이라 잊었소?

엄동설한¹⁰⁰¹⁾ 추운 날에 어린 자식들을 맨발 벗겨 구박당하여¹⁰⁰²⁾

쫓겨나든 일 꼭 속에¹⁰⁰³⁾ 들어도 못 잊었소.

안 탈라요.”

흥보가 화를 내며,

“I will wear a yellow wig, a yellow ponytail ribbon,
a yellow jacket, a yellow skirt,
yellow underwear, yellow panties,
yellow shoes, and yellow headgear.
I will hold a yellow handkerchief.
How do I look?”

29. (Third Gourd) Heungbo talks about the ethical rules between brothers and saws the third gourd.

[Aniri] “Honey, since you are adorned with those things, you
certainly look like a nightingale in a willow.
We now wear fancy clothes.
Since we are excited, let’s saw another gourd.”
Joyous, Heungbo and his wife bring the third gourd and saw
it.

[Jungmori]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I hope when this gourd is open, nothing but jewels come out.
If jewels come out, I will give them to my brother.”
Astonished, Heungbo’s wife releases the end of the saw.
“I don’t want to saw this gourd.
Did you forget everything because he is your brother?
Even in my coffin, I won’t forget how your brother kicked out
our barefoot children on the cold day in winter.
I don’t want to saw anymore.”
Heungbo expresses anger.

“타지 마라, 이년아.
 타지 말어라. 타지 말어라.
 갑갑하구나, 이 계집아.
 계집이라 허는 것은 상하 의복과 같은지라,¹⁰⁰⁴⁾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해 입으면 되지마는,
 형제는 일신수족¹⁰⁰⁵⁾이라,
 수족 한번 끊어지면 조선 팔도 너른 천지 얼굴인들 보겠느냐?
 타지 마라. 타지 마라.
 나 혼자 탈란다,
 타지를 말어라.”

30. (홍보 집 짓기) 박통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홍보 집을 지었는데, 대궐 같은 집에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다.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삭.”

박이 반쯤 벌어가니,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사람이 나달아오는다,¹⁰⁰⁶⁾
 꿩이 든 놈, 호미 든 놈, 도끼 든 놈,
 대자귀¹⁰⁰⁷⁾ 든 놈, 소자귀,¹⁰⁰⁸⁾ 대궐,¹⁰⁰⁹⁾ 소궐,¹⁰¹⁰⁾
 먹통¹⁰¹¹⁾ 든 놈, 대툭,¹⁰¹²⁾ 소툭, 대패 든 놈, 그저 꾸역꾸역 나오더니,
 터를 닦고 주춧 놓아, 기둥을 세우고,
 들보¹⁰¹³⁾를 얹어서 상량¹⁰¹⁴⁾이 올라간다.

“Don’t saw, woman!
Don’t saw. Don’t saw.
What a narrow-minded woman you are!
A woman is like a piece of clothing.
If clothes get old, we can change them with new ones.
But a brother is like a hand or a leg.
If it is cut off, we won’t be able to see it again in this country.
Don’t saw. Don’t saw.
I will saw by myself.
Don’t saw.

**30. (Building a House for Heungbo) People come out
of the gourd and build a palace-like house for
Heungbo. It is filled with all kinds of household
items.**

[Hwimori] “Move the saw back and forth so that it makes sounds.”

The gourd is half-open.
Whispering sounds are heard from the gourd.
People come out in a row.
People holding a mattock, a hoe, an ax,
a large tool for slicing wood, a small tool for slicing wood, a
large chisel, a small chisel,
a tool for drawing a line, a large saw, a small saw, and a plane
come out continuously.
They clear a site, place foundation stones, and erect pillars.
They put up a crossbeam and ridge beams.

“어기야, 어기야.”

[아니레] 한참 요란허더니,

천지가 명랑¹⁰¹⁵)허고 인적이 고요허거늘,

홍보가 가만히 눈을 들어 사면을 살펴보니,

예¹⁰¹⁶) 없던 주란화각¹⁰¹⁷)이 반공¹⁰¹⁸)에 등실 솟았는데,

[진양조] 동산하¹⁰¹⁹) 너룬¹⁰²⁰) 들에

팔괘를 놓아서¹⁰²¹) 엔담¹⁰²²)을 치고,

안팎 중문,¹⁰²³) 솟을대문¹⁰²⁴) 벽장¹⁰²⁵) 다락¹⁰²⁶)이 좋을시고.

만석지기¹⁰²⁷) 논문서와, 천석지기¹⁰²⁸) 발문서며, 백 가구 중문서¹⁰²⁹)

가 가득 담뱃¹⁰³⁰) 쌓여 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 각장장판¹⁰³¹)의 소래 반자,¹⁰³²)

완자 밀창,¹⁰³³) 화류 문갑,¹⁰³⁴) 대모 책상¹⁰³⁵)까지 놓여 있고,

시전,¹⁰³⁶) 서전,¹⁰³⁷) 주역¹⁰³⁸)이며, 고문진보,¹⁰³⁹) 통사략¹⁰⁴⁰)을 좌우

로 좌르르르르 벌였구나.

홍보 내외 좋아라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자 줌도¹⁰⁴¹) 좋네.”

큰자식은 글 갈치고,¹⁰⁴²)

작은 놈은 활 쏘이고,

사농공상¹⁰⁴³) 갖은 직업을 분별히여서 가르칠 제,

재산이 많이 있고 보니 양반 댁에 구혼¹⁰⁴⁴)하여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번뜻번뜻허게도¹⁰⁴⁵) 생겼더라.

“Yo-heave-ho!”

[Aniri] They work hard for a while.

Everything is bright and quiet.

Heungbo moves up his head and takes a look around.

A magnificent house that was not there stands up high in the sky.

[Jinyangjo] The house is situated in a wide field below a mountain in the east.

A fence surrounds i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Auxiliary gates, closets, and attics are fantastic.

The house overflows with title deeds of rice paddies, fields, and servants.

In the auxiliary house, a thick laminated floor paper, a mosaic ceiling,

a sliding door, a stationery chest, a desk made of turtle shell, classical books, an ancient poetry book, and an ancient history book are displayed.

Heungbo and his wife are pleased.

“Hurrah! Hurray! This is fantastic!”

The eldest son learns to read books.

The second son learns to shoot arrows.

Heungbo’s sons get the educations required for diverse vocations.

After becoming rich, Heungbo got daughters-in-law from high class people.

All of his daughters-in-law look good.

31.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놀보가 찾아오자 홍보는 놀보를 반가이 맞고, 아내에게 인사를 여쭙도록 하니, 홍보 아내가 인사를 드리러 나온다.

[아니리] 홍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지낼 적에,
놀보가 풍편¹⁰⁴⁶)에 들어보니 제 동생 홍보가 부자 되었던 말이 들리거든.

이런 사람¹⁰⁴⁷) 같으면 제 동생이 부자가 되었던 말이 들리면 춤을 출 일인디,

놀보 저 잡것¹⁰⁴⁸)은 제 동생 홍보가 부자 되었던 말을 듣고 배를 앓는디,

이런 가관¹⁰⁴⁹)이 없제.

“아, 이것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냐?

거짓말로 헛소문이 이렇게 났냐?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배가 아파서 어떻게 견딜꼬, 여?

에라, 내가 한번 건너가 보고 와야제,

이대로는 못 견디겠다.”

큰 갓에 도복¹⁰⁵⁰) 입고,

홍보 사는 마을을 차츰차츰 건너가 보니,

예 없던 고루거각¹⁰⁵¹)이 웅장하니 서 있거늘,

“애개!¹⁰⁵²) 이게 홍보 집이냐?

어느 서울 재상이 시골로 낙향¹⁰⁵³)을 했냐?”

홍보 문전 당도하여 문패를 바라보니,

호주에 ‘박홍보’라 새겼거늘,

“애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네, 여.

허허 강상지괴변이시.¹⁰⁵⁴)

31. (Nolbo's Visit to Heungbo's House) Nolbo visits Heungbo's house. Heungbo welcomes him and tells his wife to say hello to Nolbo. She comes out to say hello to Nolbo.

[Aniri] Heungbo lives a happy life after becoming rich.
Nolbo hears indirectly that his brother, Heungbo, has become rich.

An ordinary person would dance if he learns that his brother has become rich.

But Nolbo, a bad man, feels jealous after hearing that his brother has become rich.

This is quite a show.

"My goodness. Did Heungbo really become rich?

Was it just a rumor that he became rich?

If he really has become rich, how can I put up with my jealousy toward him?

OK, let me go and see how he is doing.

I can't stay put here."

He wears a big cylindrical hat and a coat.

He slowly comes over to Heungbo's village.

A magnificent house that was not there stands up high.

"Gee, is this Heungbo's house?

Did a premier come from Seoul to his hometown?"

He arrives at the gate and looks at the doorplate.

The doorplate says "Heungbo."

"Oh my god! He really has become rich.

This is really strange.

어떻게 해야 이놈의 재산을 털어먹어 버릴꼬?

에라, 내가 한 번 불리볼밖에.

네 이놈, 홍보야! 홍보야!”

하고 불리노니, 그때여 홍보는 친구들과 사랑에서 바둑을 땡땡 뒤다가

저의 형님 음성이 나니 버선발로 우루루루 쫓아나와 절하며,

“형님, 그새 문안이 어떠십니까?”

“문 안이고, 문 밖이고, 네 이놈 요새 성허냐?”¹⁰⁵⁵⁾

“형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냐, 들어가자.”

놀보가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보니 부자라도 보통 예사 부자가 아니제.

사랑애를 들어가서 윗목¹⁰⁵⁶⁾을 살펴보니,

윗목에 가 왜화기,¹⁰⁵⁷⁾ 당화기¹⁰⁵⁸⁾가 주르르르 놓였는디,

심술 많은 놀보가 눈구녁이 활짝 뒤집어지제.

이것을 가리키는 채허고 때려부수는데,

사십선¹⁰⁵⁹⁾ 꼭지 실한 부채를 거꾸로 추켜 들고,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냐?”

홍보는 들은 체, 본 체 아니허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 여쭙시오.”

그때여 홍보 마누라는 전일¹⁰⁶⁰⁾에 허던 일을 곰곰 생각을 허면 시

숙¹⁰⁶¹⁾이라고 한 자리에 앉아 대면할 마음조차 없지마는,

가장¹⁰⁶²⁾의 명령을 복종하여 놀보 보라는 듯이 한번 꾸미고 나오는디,

[중모리] 홍보 마누라가 나온다.

홍보 마누라가 나오는디,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How can I deprive him of his property?

I have no choice but to call him.

Heungbo, you villain!"

When Nolbo called Heungbo, Heungbo was playing Korean chess with his friends in the auxiliary house.

Upon hearing his brother's voice, Heungbo comes out without putting his shoes and bows to Nolbo.

"Brother, how are you doing?"

"Forget how I am doing. How are you doing?"

"Brother, let's go in."

"OK. Let's go in."

Nolbo goes in, takes a look around, and learns that Heungbo is extraordinarily rich.

In the auxiliary house, he looks at the upper side of the floor. There are Japanese and Chinese porcelains on the upper side of the floor.

Perverse, Nolbo gets upset, moving his eyes erratically.

He breaks the china into pieces, pretending that he just points to them.

He holds a fan having 40 ribs upside down.

"What is this? What is that?"

Heungbo goes in, pretending that he didn't hear and see Nolbo.

"Honey, my brother has come, so please say hello to him."

Thinking how Nolbo treated her family in the past, Heungbo's wife doesn't even feel like sitting together with her brother-in-law.

In accordance with her husband's wish, she comes out, dressed up to show her off to Nolbo.

[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Heungbo's wife comes out.

In the past, she was hungry and poorly-clothed.

지금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보화가 없나, 녹용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¹⁰⁶³)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 세모시¹⁰⁶⁴)에다가 당청엿물¹⁰⁶⁵)을 포로소름하게
 놓아,¹⁰⁶⁶)
 주름은 잘게 잡고,
 말¹⁰⁶⁷)은 널리¹⁰⁶⁸) 달아 외로¹⁰⁶⁹) 돌려서 걷어 안고,
 시내 강변에 금자라¹⁰⁷⁰) 걸음으로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32. (음식상 차림) 흥보 아내가 온갖 음식을 준비한다.

[아니리] “시숙님 뵈옵시다.”

허고 큰절¹⁰⁷¹)을 해노니,
 이런 사람 같으면 뿔딱¹⁰⁷²) 일어나서 맞절¹⁰⁷³)을 할 터이지마는,
 놀보 저것 발을 당그랑게¹⁰⁷⁴) 개고 앉아서 눈을 아래로 착 내리 뜨고
 보더니마는,
 “마,¹⁰⁷⁵) 미꾸라지가 용 되었네, 여!
 때¹⁰⁷⁶)를 훨썬 벗었구만, 잉!”
 흥보는 들은 체, 본 체 아니허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모처럼 오셨으니,
 어서 안에 들어가서 점심 준비하십시오.”
 그때여 흥보 마누라는 안을 들어가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놀보 점심
 상을 채리는데,
 본래 흥보 마누라 음식솜씨가 얹전했던가¹⁰⁷⁷) 보더라.
 음식을 채리는데, 꼭 이렇게 차리겠다.
 [자진모리] 음식을 차리는데,

But she now has money, rice, jewels, deer's antlers, and ginseng.

Her daughters-in-law wear luxurious clothes.

She also wears a fancy cloth from dyed blue Hansan.

The pleat is short.

She picks up the wide upper part of her skirt toward the left.

She toddles out like a golden terrapin on a stream.

32. (Making Food) Heungbo's wife prepares all sorts of food.

[Aniri] "Brother-in-law, how are you doing?"

She gives him a big bow.

An ordinary man would stand up quickly and give her a bow in response.

Nolbo sits in an arrogant manner, and drops his eyes a little.

"It looks like a mudfish became a dragon.

You completely transformed yourself."

Heungbo pretends that he didn't hear him.

"Honey, my brother came all the way here.

Please go to the kitchen and prepare some lunch."

Heungbo's wife goes to the kitchen with his daughters-in-law, and prepares lunch for Nolbo.

Heungbo's wife is originally a good cook.

She makes food as follows:

[Jajinmori] Heungbo's wife makes food.

안성 유기¹⁰⁷⁸⁾ · 통영 칠판¹⁰⁷⁹⁾ · 천은¹⁰⁸⁰⁾ 수저 · 구리 적사,¹⁰⁸¹⁾ 집
 리 서리¹⁰⁸²⁾ 수 벌이듯¹⁰⁸³⁾ 좌우로 벌여놓고,
 꽃 그렸다 오죽판,¹⁰⁸⁴⁾
 대 모양 양각 당화기,¹⁰⁸⁵⁾
 열기설기¹⁰⁸⁶⁾ 송편,
 네 귀 번듯¹⁰⁸⁷⁾ 정절편,¹⁰⁸⁸⁾
 주루루 엮어 산피떡¹⁰⁸⁹⁾과,
 평과¹⁰⁹⁰⁾ · 진청¹⁰⁹¹⁾ · 생청¹⁰⁹²⁾ 놓고,
 조란 산적¹⁰⁹³⁾ 옷집쳐,¹⁰⁹⁴⁾
 양회¹⁰⁹⁵⁾ · 간 · 처넵¹⁰⁹⁶⁾ · 콩팔 양편에다가 벌여놓고,
 청단¹⁰⁹⁷⁾ · 수단¹⁰⁹⁸⁾ · 잣배기며,¹⁰⁹⁹⁾
 인삼채 · 도라지채 · 낙지 · 연포¹¹⁰⁰⁾ · 콩기름에,
 갇은 양념 모아놓고,
 편적,¹¹⁰¹⁾ 거적,¹¹⁰²⁾ 도적¹¹⁰³⁾이며,
 절창볶이,¹¹⁰⁴⁾ 매물탕수,¹¹⁰⁵⁾ 어포,¹¹⁰⁶⁾ 육포¹¹⁰⁷⁾ 갈라 놓고,
 처넵쌈,¹¹⁰⁸⁾ 병거짓골,¹¹⁰⁹⁾ 갈비찜, 양지머리,¹¹¹⁰⁾ 차돌백이¹¹¹¹⁾를 들
 여 놓고,
 꿀꿀¹¹¹²⁾ 우는 생치¹¹¹³⁾ 구이, 호도독¹¹¹⁴⁾ 포도독¹¹¹⁵⁾ 메초리탕,¹¹¹⁶⁾
 움방툼방¹¹¹⁷⁾ 오리탕, 개자,¹¹¹⁸⁾ 고초,¹¹¹⁹⁾ 생강, 마늘, 문어, 전복 봉
 을 오려¹¹²⁰⁾ 나는 듯이 꺾어놓고,¹¹²¹⁾
 전골¹¹²²⁾을 들여라.
 청동 화로 백탄¹¹²³⁾ 숯불 부채질 활활 고추같이 일워 놓고,¹¹²⁴⁾
 살찐¹¹²⁵⁾ 소 반짜고기¹¹²⁶⁾ 반환도¹¹²⁷⁾ 드는 칼로 점점편편¹¹²⁸⁾ 오려
 내어,
 깨소금에다 참기름 쳐 부드득¹¹²⁹⁾ 불려¹¹³⁰⁾ 채와내야,¹¹³¹⁾
 대양판¹¹³²⁾ 소양판¹¹³³⁾ 예도¹¹³⁴⁾ 담고, 제도¹¹³⁵⁾ 담고,

Good brassware, a good meal table, silver spoons, and a copper grill are laid out in an orderly manner.

On the meal table there is a picture of a black bamboo tree and flowers.

A bamboo tree is engraved on the china.

Some rice cakes look like a half-moon.

Some rice cakes are four-sided.

Some red-bean rice cakes are tied together.

An apple, honey, unboiled honey,

roasted meat with egg and vegetables,

a raw cow stomach, a liver, a sheep stomach, and a kidney are laid out on the left and right.

A mixture of honey and rice cake, a mixture of tea and rice cake, a mixture of pine-nuts and honey,

ginseng, platy codon, a small octopus, dried meat, bean oil, and all sorts of souces are prepared.

A mixture of a roasted fish and vegetables, a combination of a large roasted fish and peach leaves,

a buckwheat soup, a dried fish, and dried meat are placed on the table.

She puts boiled ribs and the chest meat in a bowl looking like a hat.

Raw pheasant legs are roasted, and a crunchy quail soup boils.

A boiling duck soup, mustard greens, red peppers, ginger, garlic, a small octopus, and some ear shells form a pile.

She makes a soup of fish and vegetables.

She fans the oak charcoal fire under a bronze fire pot.

She slices salted raw cow meat with a large sharp knife.

She puts sesame powder and sesame oil over the sliced meat.

She puts them in small and large bowls here and there.

산채,¹¹³⁶⁾ 고사리, 수근,¹¹³⁷⁾ 미나리, 녹두채,¹¹³⁸⁾ 맛난 장국¹¹³⁹⁾ 주루루루 덮여붓고,¹¹⁴⁰⁾

계란을 툇툇 옷딱지¹¹⁴¹⁾ 띠고¹¹⁴²⁾ 길게 늘이워라.¹¹⁴³⁾

손 뜨진디 쇠저¹¹⁴⁴⁾ 말고 나무저뽕¹¹⁴⁵⁾를 디려라.¹¹⁴⁶⁾

고기 한 점을 덩벽¹¹⁴⁷⁾ 집어, 맛난 기름 간장국에다 풍덩 들어쳐¹¹⁴⁸⁾ 덩벽, 피 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보배답다, 천은병,¹¹⁴⁹⁾ 평사낙안¹¹⁵⁰⁾ 기러기병,¹¹⁵¹⁾ 청유리병, 황유리병, 유리잔, 호박배,¹¹⁵²⁾ 빛 좋은 과하주¹¹⁵³⁾를 보기 좋게 들여 놓고, 자기 시숙님께 술진지¹¹⁵⁴⁾를 허는구나.

33. (홍보 아내 포악) 놀보가 권주가를 요구하니, 홍보 아내가 화를 내며 나간다.

[아니레] “여보, 마누라. 마누라 손으로 술 한 잔 부어 형님전 올리시오.”

홍보 마누라 술을 부어 들고,

“옛소,¹¹⁵⁵⁾ 아주버님.¹¹⁵⁶⁾ 약주 잡수시오.” 하고 권해노니,

놀보 저것 힐긔힐긔¹¹⁵⁷⁾ 쳐다보더니마는,

“네 이놈, 홍보야! 너 내 성미 잘 알제?

내가 수¹¹⁵⁸⁾ 남의 초상 마당에 가서도 권주가¹¹⁵⁹⁾ 없이는 술 안 먹는 줄을.”

“허지만 형님, 이 좌석에 누가 권주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어째, 이놈?

She puts a wild greens, fernbrake, parsley, mung beans, soup into the bowls.

She breaks an egg, takes the shell out, and puts the egg over other food.

She gives him wooden chopsticks instead of iron ones because they get hot.

She grabs the meat, dips it into delicious oily soy source, and roasts it.

Everybody eats the food.

She prepares wine in a silver bottle, a bottle looking like a goose, a blue glass bottle, a yellow glass bottle, a glass, and an amber glass.

She offers wine to her brother-in-law.

33. (Heungbo's Wife Expresses Her Anger.) Nolbo asks Heungbo's wife for the drinking song. She loses her temper and leaves the room.

[Aniri] "Honey, please pour wine into a glass and offer it to my brother."

Heungbo's wife pours wine into a glass.

She offers wine, saying, "Here you are, brother-in-law. Please drink this wine."

Nolbo looks at her as if he were not satisfied.

"Heungbo, you villain! Don't you know about me?

I don't drink wine without the wine-offering song even in a house in mourning."

"But brother, is there anybody here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for you?"

"What? You bastard!

야 이놈아, 네 여편네 삼패¹¹⁶⁰ 기생 뿐으로¹¹⁶¹ 곱게 차려 입고, 술
 잔 들었으니,
 한 곡조 꺾어보라고 해, 이놈아!”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조] 들었던 술잔을 방바닥에다 후닥딱.
 “허, 세상 사람들, 다 들어보시오!
 시숙이 제수다려¹¹⁶² 권주가 허란 법 고금천지¹¹⁶³ 어디서 보았소?
 전곡자세¹¹⁶⁴ 좀 너무 마시오.
 엄동설한¹¹⁶⁵ 추운 날에 구박을 당하여¹¹⁶⁶ 쫓겨나던 일을 꺾¹¹⁶⁷
 속에 들어도 나는 못 잊었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안 갈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뿌리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34. (화초장 타령) 놀보가 흥보에게 화초장을 얻어, 이름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리] 놀보란 놈 공연헌 짓 해놓고 제 손수 무색허여라,¹¹⁶⁸
 “허허, 미꾸라지한테 발가락을 물렸네, 여!
 네 이놈, 흥보야. 네 계집한테 나 오면 저렇게 허라고 시켰제, 이놈?”
 “아이고, 형님. 어디 그럴 리가 있습니까까요!”
 “그럴 리가 없는디, 네 계집이 나한테 저렇게 해야,¹¹⁶⁹ 이놈아!
 애, 흥보야. 네 계집 저것 당장 버려라!

Scoundrel, your wife is holding a glass of wine, dressed up like a third-class prostitute.

Tell her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You rat!”

Heungbo’s wife responds to Nolbo.

[Jinyangjo] Heungbo’s wife throws the glass of wine on the floor.

“People in the world, listen to me!

How on earth can you tell your sister-in-law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Don’t act arrogant because you are rich.

Even in my coffin, I won’t forget how harshly you treated us, kicking us out on the cold day in winter.

I hate you. Get out of here!

If you don’t, I will go back to my room.”

She goes in, leaving them behind.

34. (Flower Wardrobe Song) Nolbo gets a flower wardrobe from Heungbo. He recites the name of the wardrobe as he goes back home.

[Aniri] Nolbo feels ashamed, having made a social fiasco.

“Gee, my toe is bitten by a mudfish.

Heungbo, you rat. You told her to act like that to me if I came here.”

“Brother, how can I do that to you?”

“If you didn’t do that, how can your wife act like that to me? You villain!”

Heungbo, dump her!

계집이 저렇게 생기면 형제간에 우애 끊기는 법이여.

네 계집 저것 버리면 내일이라도 좋은 데 새 장가 보내줄 터이니,
당장 버려라.”

“형님. 여자라는 것은 어린애들 같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 형님, 용서하십시오.”

“음, 그는 그렇고, 홍보야! 너 요새 밤이슬 맞고 다닌답서?¹¹⁷⁰⁾”

“아니, 형님. 밤이슬이라니요?”

“에이, 이 도적놈. 다 암시롱,¹¹⁷¹⁾ 시치미를 딱 떼고 ‘밤이슬이라니요?’
야, 이놈아, 도적질 말이여, 도적질.

네가 밤이슬 맞고 다니며 도적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영문출사
들¹¹⁷²⁾이 내 집에 찾아와서 네 사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야단이더구나.
형제간의 윤기¹¹⁷³⁾가 있는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살짝 귀뜸¹¹⁷⁴⁾하는 것이니,

너는 집과 재산을 나한테 맡겨두고,

네 자식들 데리고 저 중국 상해 근방에 가서 한 십여 년만 살다가,
이곳이 무사타고 기별허거든 그때 오도록 해라.

내가 만일 네 재산에 털끝 하나라도 까딱하면,¹¹⁷⁵⁾ 내가 네 아들놈이다.”

“아이고, 형님, 제가 도적질을 할 리가 있습니까요?”

“그러면 도적질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돼?”

“형님, 제가 부자 된 내력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움막을 짓고 사는디, 하루는 난데없이 제비 한 쌍이 떠올러와서
처마 끝에다 성주¹¹⁷⁶⁾를 함디다.”

“그래서?”

“수일이 되더니 새끼 일곱 마리를 낳는디,

늦된 놈 한 마리가 날기 공부허느라고 파닥파닥파닥¹¹⁷⁷⁾허다가 처마
끝에 딱 떨어져,

Such a woman destroys the relationship between brothers.
If you dump her, I will get you a new woman tomorrow. Kick her out right away.”

“Brother, they say a woman is similar to a child.
Please forgive her.”

“By the way, Heungbo, I heard you work at night.”

“What, brother? Do I work at night?”

“You rat! I know everything. How can you pretend that you don’t work at night?”

Villain, what I mean is that you are stealing things.

Police officers came to my house, asking where you lived. They claimed you became rich because you stole things at night.

I didn’t tell them where you lived because you are my brother.
I am tipping off you about the police.

Leave your property to me.

Move to China with your children, and live there for about ten years.

Come back when I send you a message you would be safe here.
If I do anything to your property, I would be like your son.”

“Brother, how could I steal things from others?”

“If you didn’t steal, how did you become this rich?”

“Brother, let me tell you how I became rich.

One day when I was living in a hut, a couple of swallows came and built a nest under the eaves.”

“So?”

“After several days, they hatched seven baby swallows.

While the youngest one moved its wings to practice flying, it fell down below the eaves.

대밭에 걸려 다리가 잘각 부러졌어요.”
 “지가 떨어졌으면 부러질 테제.”
 “그래 제비 다리를 이어주었더니,
 올봄에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어찌 됐냐?”
 “그래 박씨를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었습니다.
 그래 한 통을 탔더니 쌀과 돈이 나오고,
 또 한 통을 탔더니 비단이 나오고,
 또 한 통을 탔더니 목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은금보화¹¹⁷⁸⁾
 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지,
 무슨 도적질을 했던 말씀입니까요?”
 “얘, 홍보야. 그것 부자 되기 천하¹¹⁷⁹⁾ 수월하구나.¹¹⁸⁰⁾
 거 너는 제비 다리 하나를 분질러서 이렇게 부자가 됐을 적에,
 제비 다리 여남은¹¹⁸¹⁾만 분지르면 거부¹¹⁸²⁾ 장자¹¹⁸³⁾가 되겠구나.
 홍보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 잉!
 통 비불발설¹¹⁸⁴⁾해라.
 그건 그렇고 저 윗목에 벌그린¹¹⁸⁵⁾ 게 저게 무엇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¹¹⁸⁶⁾이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금보화가 가뜩 들었습니다, 형님.”
 “은금보화가 가뜩 들었어?
 그것 참 좋은 것이로구나.
 이애, 홍보야. 그놈 날 도라.”¹¹⁸⁷⁾
 “그것은 형님 뭇으로 제직¹¹⁸⁸⁾해 두었습니다.”
 “그릴 것이다. 아이고, 내 동생아.
 내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했다고!

Its legs get stuck on a bamboo blind and were broken.
“It’s natural it would break its legs if it fell down.”
“I treated the swallow’s legs.
This spring, it brought a gourd seed to me.”
“What happened after that?”
“I planted the seed and got three gourds.
I sawed a gourd from which rice and money came out.
I sawed another gourd from which silk came out.
I sawed the last gourd from which carpenters and jewels came out. They built this house. As a result, I became rich.
I didn’t steal anything.”
“Heungbo, it is a piece of cake to become rich.
You became this rich after breaking a swallow’s legs.
If I break the legs of a dozen of swallows, I would become far richer than you.
Heungbo, others shouldn’t know about this.
Don’t tell anybody about it.
By the way, what is that red thing over there on the upper side of the floor?”
“Brother, that is called flower wardrobe.”
“What’s in it?”
“It is filled with jewels, brother.”
“Are jewels in it?
That’s really a good thing.
Heungbo, give that thing to me.”
“I set it aside to give it to you.”
“Bravo! You are really my brother.
I took good care of you when you were a child.

네가 그것 하나를 아낄 것이냐?
 이리 내 놔라. 내 아주 짝어지고 갈란다.”
 “형님 점잖으신 체면에 그것을 어찌 지고 가신단 말씀이오?
 형님은 먼저 건너가시면, 이따 하인놈들 시켜서 지워 보내리다.”
 “무엇이 어째? 이런 승헌¹¹⁸⁹⁾ 도적놈 보소.
 형제간에 요것 하나 주는 것이 아까와서,
 안 줄라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하인놈 시켜 지워 보내?
 야, 이놈아. 내 건너가고 나면 속의 것은 싹 빼내고 빈 껍덕¹¹⁹⁰⁾만
 보낼라고 그러제, 이 도적놈아!
 이리 내놔!
 우악은 즉발이요,¹¹⁹¹⁾
 매사는 불여튼튼¹¹⁹²⁾이라니,
 나 내친 김에 자등짐혈랑개¹¹⁹³⁾
 이리 싹 내놔!
 이놈이 이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줄 모르고, 날보고 도적놈이라고
 헨단 말이여.
 이리 싹 내놔!”
 놀보가 화초장을 앗아 지고 가는데,
 본래 잇음이 좀 험하든¹¹⁹⁴⁾ 모양이여.
 화초장 이름을 주워섬기며 건너가것다
[중모레]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다. 얻
 었구나.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쏘냐?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I didn't believe you would refuse to give it to me.
Bring it here. Let me carry it to my home myself."
"Considering your dignity, how can you carry it yourself?
You go back home first. I will have a servant take it to you."
"What? You are a vicious thief.
You loathe to give this little thing to me.
You refuse to give it to me under the pretext that you will have
a servant send it to me.
You villain! After I go back, you will take all the jewels out and
send only the shell to me. You rat!
Give it to me.
We should return a big favor immediately.
We should be perfect in handling any matter.
I will carry it on my back myself.
Give it to me right away.
This scoundrel acts like this, but people don't know about him,
and claim I am a thief.
Hand it over to me now!"
Nolbo carries the flower wardrobe, and heads to his home.
Nolbo is originally a forgetful person.
He keeps saying the name, the flower wardrobe, while walking.

[Jungmori] "I got a flower wardrobe, a flower wardrobe, and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How can this be not good?
a flower wardrobe, a flower wardrobe."

또랑 하나를 건너 뛰다,
 “아빨사, 잊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허등만은,¹¹⁹⁵⁾ 여.”
 뒤붙이면서도¹¹⁹⁶⁾ 몰라.
 “초장화.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엇다, 이것이 무엇이나?
 묵은 장, 된장, 간장, 고추장, 천장, 방장,¹¹⁹⁷⁾ 구들장.¹¹⁹⁸⁾ 아니다.
 송장. 아니다.”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자.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나
 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옹제,
 좌이부동¹¹⁹⁹⁾이 웬 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몸쓸 사람.”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35. (놀보 제비 몰러 나감) 놀보가 이리저리 제비를 몰러 다닌다.

[아니리] “야, 이놈의 여편네야!
 요새 그 새근발딱¹²⁰⁰⁾헌 목¹²⁰¹⁾ 쓰지 말고,
 이리 와서 내 등에 진 것, 이것 이름이나 알아맞혀!”

He crosses a stream.

“Darn it, I forgot. What is the name of this thing?”

Changing the order of the words doesn’t work.

“Wardrobe flower. No. Robe flower ward. No. Flower robeward. No.

Darn it! What is this?

Old paste, bean paste, soybean, pepper paste, ceiling, screen, floor stone, no. Body, no.”

He enters his house.

“Let me ask my wife.

Hello, honey!

When your husband comes back home, you are supposed to come out quickly to greet him.

How can you just sit there?

How rude you are!”

Nolbo’s wife comes out.

Nolbo’s wife comes out.

“Darling, I didn’t know you were back.

I’m sorry.

Come here. This way, please.”

35. (Nolbo Goes Out to Chase Swallows.) Nolbo runs around to chase swallows.

[Aniri] “You foolish wife!

Don’t use that unpleasant voice of yours.

Come here and tell me the name of the thing I am carrying.”

이놈이 형벌을 헐라거든 이런 사람 모양으로 후닥딱 때리는 형벌을
허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꼭 쥐고 양 관저통¹²⁰²)을 비벼대는 형벌을 하겠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이것 놓으시오! 이것 놔!”

“야, 이놈의 여편내야! 어서 알아맞혀!”

“아이고, 이것을 놔야 알아맞히지요.”

“잔소리 말고 죽기 전에 어서 썩 알아맞혀!”

“아이고, 아이고! 이전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화초장
이라고 합디다.”

놀보가 어찌 반갑던지,

“아이고, 이 내 딸이야!”

“에이, 여보시오!”

“아따, 이 사람아. 바쁠 때는 이러기도 허고, 저리기도 허제 어쩔 수가
있는가?”

그날부터 놀보가 제비집을 만들어 붙이는데,

자기 집 오간¹²⁰³) 전후퇴¹²⁰⁴)가 기웃허도록¹²⁰⁵) 제비집을 만들어 붙
여놓고,

인제는 제비집을 만들어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제 망건당¹²⁰⁶)에다가 대모¹²⁰⁷) 풍잠¹²⁰⁸) 붙이듯 제비집을 만들어 붙
여가지고,

아무리 도시고¹²⁰⁹) 돌아다녀도 제비가 안 들어오제.

할 수 없이 하루는 그물을 맺어서 드리메고¹²¹⁰) 제비를 후리러¹²¹¹)
나가는데,

이전 팔명창¹²¹²) 선생님 중에 권삼득¹²¹³) 씨 호걸제¹²¹⁴)로 나가든가
보더라.

[중중모리] 이 때 춘절¹²¹⁵) 삼각¹²¹⁶)의 하사월¹²¹⁷) 초파일,¹²¹⁸)

If he intends to punish his wife, he should hit her quickly as a normal man would.

But he clenches his fists and rubs her temples hard.

“Ouch! Ouch! Let go of me. Get off me.”

“You foolish wife! Tell me the name!”

“Release me so that I can tell you the name.”

“Don’t argue with me. Tell me the name before you die!”

“My goodness! My father used to call that kind of thing flower wardrobe.”

Nolbo gets ecstatic.

“Oh my daughter!”

“What?”

“You woman. When a man is in a hurry, he can call his wife daughter.”

From that day on, Nolbo begins to put swallow nests all around. He attaches swallow nests on his entire house so much that the house is tilted.

There is no place now to attach a nest on.

He puts a swallow nest on his own headband as if he attached a turtle shell on the headband.

He travels around with the nest on him, but a swallow doesn’t come to him.

One day, he goes out with a net on his shoulder to snatch a swallow.

He goes out in a Pansori rhythm made by Gweon Samdeuk, one of the eight celebrated singers.

[Jungjungmori] It is spring now. March has passed. It is April.

연자¹²¹⁹) 나비는 펼 펼.
 수양버들에 앉은 피꼬리 제 이름 제 불리.¹²²⁰
 이편은 우도봉,¹²²¹ 저편은 좌도봉,¹²²²
 건넌봉,¹²²³ 맞은봉¹²²⁴ 좌우로 칭칭¹²²⁵ 둘러,
 “아아아아, 이리 워!”
 그물을 맺어서 드리메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¹²²⁶ 내신 그물을 에후리쳐¹²²⁷ 드리메고 방장산¹²²⁸으로 나
 간다.
 방장산 기어 올라 덩불¹²²⁹을 툭 차,
 “후여!¹²³⁰ 허허허 쳐, 저 제비. 네가 어디로 행헌다?”¹²³¹
 춘일황앵¹²³²의 피꼬리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남비오작¹²³³의 까치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연비여천¹²³⁴의 소리개¹²³⁵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충암절벽¹²³⁶의 비둘기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떴다, 내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화급동량¹²³⁷이라.
 내 집으로 들오너라. 이리 내 제비.”
 마침 그때를 당하여 수¹²³⁸ 사나운 제비 한 쌍이 거중¹²³⁹ 중천¹²⁴⁰
 에 높이 떠 이리 저리, 저리 이리 놀보 집으로 행헌다.¹²⁴¹

36. (놀보 제비다리 부러뜨림) 놀보가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박씨를 물어올 것을 부탁한다.

[아니리] 그 때 마침 수 사나운 제비 한 쌍이 떠들어와서¹²⁴² 놀보집
 처마 끝에다 성주¹²⁴³를 허니,

Swallows and butterflies fly.

A nightingale sings on the willow branch.

There are many mountain peaks here and there.

Mountain peaks are on the left and right.

“Come here!”

With a net on his shoulder, Nolbo goes to snatch a swallow.

He carries a net on his shoulder and goes to Jiri Mountain.

He climbs Jiri Mountain and hits the bushes.

“Hello, swallow over there! Where are you going?”

He watches a yellow spring nightingale and takes it to be a swallow.

He looks at a crow and a magpie fly to the south sky and takes them to be swallows.

He sees an eagle fly in the sky, and takes it to be a swallow.

He glances a pigeon on a steep cliff and takes it to be a swallow.

“Hey swallow over there! Don’t go to that house.

It is fated to be burned down.

Come to my house, my swallow.”

Just then, a couple of unlucky swallows fly around high in the sky and head to Nolbo’s house.

36. (Nolbo Breaks a Swallow’s Legs.) Nolbo breaks a young swallow’s legs on purpose, and asks it to bring him a gourd seed.

[Aniri] Just then, an unlucky couple of swallows come to Nolbo’s house, and build a nest under the eaves.

놀보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 내 제비 왔구나!
 그렇지 저 제비가 멋기¹²⁴⁴)가 있는 제비로구만.
 좋은 집 다 버리고 내 집에 와서 성주를 허는 것이 참 고맙다.
 어서 어서 새끼 많이 까 가거라, 잉!”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힐지항지¹²⁴⁵)허더니마는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놀보란 놈이 제비집 밑에다가 초석노¹²⁴⁶)를 딱 달아놓고 누워서 비비
 면서,
 어디 시조란지 미국 장단에다가 청국시조¹²⁴⁷)를 썩 꼬집어 내 가지고,
 그 제¹²⁴⁸)로 한번 이놈이 제비알 낳는 쪽쪽 점고¹²⁴⁹)를 허는데,
 “아아, 제비 알을 만져보자. 이이이, 웬다! 하나 잣구나!
 어흐흐어 이이 웬다! 또 하나 잣구나.”
 어찌 만져썩던지, 조독¹²⁵⁰)이 올라서 싹 다 끓아빠져 버리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기 공부허느라고 파닥¹²⁵¹) 파닥 파닥 파닥
 하니,
 놀보가 보고, “떨어지거라. 떨어지거라. 떨어지거라.”
 도로 부르르르¹²⁵²) 기어 올라가제.
 “예게,¹²⁵³) 이놈을 내가 그냥 두었다가는 실물¹²⁵⁴)을 당헐테니,
 자장작기¹²⁵⁵) 헐 밖에 수¹²⁵⁶)가 없다.”
 제비 새끼를 잡아내어 물꽥¹²⁵⁷)에다가 대고 작신¹²⁵⁸) 부러뜨려노니,
 “썩썩썩!”
 썩이고, 뿔이고,
 다리를 잘각 분질러서¹²⁵⁹) 마당에다 혹 집어 던져 놓더니,
 우루루루 쫓아가서 제비 새끼 주워 들고,
 “아이고 불쌍타, 내 제비야.

Nolbo is delighted.
 “Hurrah, my swallows have come!
 My swallows look good.
 I thank you for choosing my house over other houses and
 building your nest.
 Have many babies as fast as possible.”
 Behold the swallows.
 They move up and down, and start to lay eggs.
 Nolbo puts a straw mat below the swallow nest, lies down on
 the mat and rubs the nest.
 He recites a Chinese poem in accordance with an American
 rhythm.
 In that rhythm, he inspects eggs one by one as they are laid.
 “Let me touch this egg. Good! An egg is laid!
 Great! Another egg is laid.”
 He touches the eggs so much that they go rotten due to an
 infection from his fingers.
 One baby swallow survives and moves its wings up and down
 to practice flying.
 Nolbo says,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The swallow vigorously flies up.
 “My goodness. If I leave the swallow alone, I will lose it.
 I cannot but make a smart move.”
 He snatches the baby swallow, place it on his knees, and breaks
 its legs.
 “Peep, peep, peep!”
 He doesn’t care about its cry.
 After breaking its leg, he throws the swallow on the yard.
 He runs to the swallow and picks it up.
 “How poor you are, my swallow!

여보, 마누라! 여¹²⁶⁰ 제비 다리가 부러졌네, 여.
 우리 제비 다리 이어주세.”
 된장 떼다 붙이고 형끓으로 칭칭 동여서 제비 집에다 들이침시로,¹²⁶¹
 “어서 어서 죽지 말고 살아나서 박씨 하나만 물어오너라, 잉!”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놀보 원수를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되더니 다리가 나아 날기 공부를 허는디,
 [진양조] 뗏다,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거중으로 둥둥 떠 이리저리 날아보고,
 구만장천¹²⁶²에 높이 떠서 배도 쓱 씻어보고,
 빨랫줄에 가 날아 앉더니 한들한들¹²⁶³ 놀아보니,
 놀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 내 제비 살았구나!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성헌¹²⁶⁴ 다리도 마저 부지리¹²⁶⁵ 주마.”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무엇이라고 ‘지지지지’ 허더니마는 만리 강남¹²⁶⁶을 펄펄 날아 들어
 간다.

37. (놀보 제비 노정기) 봄이 되자 제비는 놀보에게 원수 갚을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준다.

[아니레] 수일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두견¹²⁶⁷은 조종지망제¹²⁶⁸라
 백조¹²⁶⁹를 점고¹²⁷⁰허는디,
 “일본 들어 갔던 초록 제비!”

Honey, this swallow broke its legs.
 Let's treat its leg."
 He puts bean paste on the leg, wraps it up with a cloth, and
 puts the swallow back in the nest.
 "You must survive and bring me a gourd seed fast. OK?"
 Behold the swallow.
 The swallow is to revenge itself on Nolbo. How can it die?
 Several days pass, its leg is healed, and the swallow practices
 flying.
[Jinyangjo] The swallow flies. Behold it.
 It flies around in the sky.
 It strokes its belly high in the vast sky.
 It sits on a clotheslines and has fun there.
 Nolbo is joyful.
 "Hurrah! My swallow is alive.
 If you bring me a gourd seed, I will break the other leg too."
 Behold the swallow.
 It makes meaningless sounds and flies to Jiangnan(江南)
 thousands of miles away.

37. (The Journey of Nolbo's Swallow) In spring, Nolbo's swallow brings Nolbo a gourd seed with which to avenge itself on him.

[Aniri] In several days, Nolbo's swallow reaches Jiangnan(江南).
 A cuckoo is the king of birds in Jiangnan(江南).
 He inspects all birds.
 "The green swallow who has been to Japan!"

“나오!”

“중국 들어 왔던 명매기!”¹²⁷¹⁾

“나오!”

“미국 들어 왔던 분홍 제비!

조선서 태어난 놀보 제비!”

[중중모리] 놀보 제비가 들어온다. 놀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붕통이져서¹²⁷²⁾ 전동거리고¹²⁷³⁾ 들어오며,

“예!”

제비 장수 호령허되,

“너는 왜 다리가 저리 붕통이 졌느뇨?”

“예, 소조¹²⁷⁴⁾ 아뢰리다.¹²⁷⁵⁾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 공부 힘을 쓸 적에,

불칙현¹²⁷⁶⁾ 놀보 권 놈이 소조 다리를 부질러서¹²⁷⁷⁾ 거의 죽게 되었
더니,

천행¹²⁷⁸⁾으로 다리가 나아서 이렇게 왔사오나,

어찌허면 그놈의 원수를 갚소리까?¹²⁷⁹⁾

제발 덕분에 통촉¹²⁸⁰⁾허오.”

[아니레] 제비 장수 들으시고, “어, 불촉한¹²⁸¹⁾ 놀보놈 심술은 강남까
지 유명한 놈이로구나.

명춘¹²⁸²⁾에 나갈 적에 수풍¹²⁸³⁾이란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네 원수는 다 갚느니라.”

삼동¹²⁸⁴⁾이 다 지나고 삼춘¹²⁸⁵⁾이 방장허니,¹²⁸⁶⁾

원갓 날짐생들¹²⁸⁷⁾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¹²⁸⁸⁾을 허는 때라,
놀보 제비도 나오는다,

이 제비노정기¹²⁸⁹⁾가 좀 달키는¹²⁹⁰⁾ 달튼가¹²⁹¹⁾ 보더라.

[중중모리] 앞남산¹²⁹²⁾ 지나고 뱀남산¹²⁹³⁾을 지내,

“Here!”

“The swift who has been to China.”

“Here!”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the US.

Nolbo’s swallow who was born in Korea!”

[Jungjungmori] Nolbo’s swallow comes in. He comes in.

Because its broken leg is swollen, he hobbles in.

“Yes!”

A swallow general yells at him.

“Why is your leg swollen?”

“Let me tell you, sir.

I was born in Korea and practiced flying.

Nolbo, my vicious master, broke my leg, putting me near death.

I was lucky to be alive and be here.

How can I avenge myself on him?

Please consider my request.”

[Aniri] The swallow general responds, “Nolbo is vicious and perverse. His infamy reached here, Jiangnan(江南).

When you go out next spring, give him this gourd seed,
Revenge Wind.

And you can avenge yourself on him.”

Winter goes and spring comes.

It is time that all sorts of birds come back to their countries.

Nolbo’s swallow comes, too.

Its route is different from that of Heungbo’s swallow.

[Jungjungmori] The swallow passes over mountains.

축국¹²⁹⁴)을 지내고,
 축산도¹²⁹⁵) 이천 리, 낙양성¹²⁹⁶) 오백 리, 소상강¹²⁹⁷) 칠백 리, 동정
 호¹²⁹⁸) 팔백 리, 금릉¹²⁹⁹) 육백 리라.
 악양루¹³⁰⁰) 고소대¹³⁰¹)와 오악 형산¹³⁰²) 구경하고,
 구정마탑¹³⁰³) 육십 리에 사마성¹³⁰⁴)이 삼십 리라.
 월하성¹³⁰⁵) 돌아들고 고소성¹³⁰⁶) 바라보니,
 한산사¹³⁰⁷) 거룩하고,
 아방궁¹³⁰⁸) 육십 리에 만리장성¹³⁰⁹) 돌아드니,
 일만오천 리 동설령¹³¹⁰)을 날아드니,
 천하 제비가 다 모아 각국으로 흩어질 제,
 삼남¹³¹¹)으로 오는 제비 포기포기¹³¹²) 때를 지어 서로 짝어¹³¹³) 언
 약¹³¹⁴)한다.
 금년 구월 보름날 이 곳에 와서 상봉허자 약속을 정한 후에,
 중천¹³¹⁵)에 가 높이 떠 강릉을 구경하고,
 적벽강¹³¹⁶) 돌아드니 소동파¹³¹⁷) 조맹덕¹³¹⁸)은 이금에 안재재
 오?¹³¹⁹)
 청석령¹³²⁰) 오백 리를 순식간에 당도하니 옥화관¹³²¹)이 여기로다.
 심양강¹³²²) 팔백 리에 정주¹³²³)를 지내,
 순안¹³²⁴) 순천¹³²⁵) 칠십 리에 바라보니 평양이로구나.
 만호장안¹³²⁶)을 구경하고, 수색¹³²⁷)이 남한¹³²⁸) 문장 · 효자 · 열녀
 가가재¹³²⁹)라.
 송객정¹³³⁰) 수운간¹³³¹)을 지나
 살¹³³²)같이 빨리 날아 개성 부중¹³³³)을 들어가니,
 왕태조¹³³⁴) 고사적¹³³⁵)은 만월대¹³³⁶)뿐이오.
 무악재¹³³⁷) 양주군¹³³⁸)은 억만 세력을 옹하였고,¹³³⁹)
 제일 삼각¹³⁴⁰) 올라앉아 장안¹³⁴¹)을 가만가만 둘러보니

It flies over Shu(蜀) Country.
 It travels Shu(蜀) Mountain, Luoyang(洛陽) City, Xiaoxiang(瀟湘)
 River, Dongting(洞庭) Lake, and Nanjing(南京).
 It sees Yueyang(岳陽) Tower and Gusu(姑蘇) Pavilion.
 It travels over a tower and a castle.
 It turns around a city and looks at another city,
 A Buddhist temple looks holy.
 It passes over Afang(阿房) Palace and reaches the Great Wall.
 It flies through a pass covered with snow.
 All the swallows in the world are spread to their countries.
 The swallows coming together to the southern regions in Korea
 chirp to each other.
 They promise to meet again here on the full moon this
 September.
 Nolbo's swallow flies high in the sky and watches Gangneung.
 It turns around Chibi(赤壁) River. Where are Su Shi(蘇軾) and
 Cao Cao(曹操) now?
 It reaches Qingshi(青石) Pass in a breath, Yuhe(玉河) Hotel is
 here.
 It moves over a river and a town.
 It flies over two villages and looks at Pyeongyang.
 In the city are numerous houses, beautiful scenic views, poets,
 great children, and virtuous women.
 It passes over a pavilion and through clouds giving rises to
 sorrow.
 It enters Gaeseong, traveling as fast as an arrow.
 Manweol Tower is the only historical ruin.
 Yangju Region near a Muak Pass dealt with numerous foreign
 invasions.
 The swallow flies up to Bukhan Mountain and gazes at Seoul.

남산은 천년산, 한강은 만년수라.¹³⁴²⁾
 문물이 빈빈하고¹³⁴³⁾
 풍속이 희희하여¹³⁴⁴⁾
 만만세지금탕¹³⁴⁵⁾이라.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디,
 운봉 함양 두 얼품¹³⁴⁶⁾에 놀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라.
 수풍¹³⁴⁷⁾이 박씨를 입에다 물고,
 남대문 밖 썩 내달라
 칠패¹³⁴⁸⁾ · 팔패¹³⁴⁹⁾ · 청패¹³⁵⁰⁾ · 배다리¹³⁵¹⁾ 아야고개¹³⁵²⁾를 얼른
 넘어,
 동작강¹³⁵³⁾ 월강,¹³⁵⁴⁾ 승방¹³⁵⁵⁾을 지내어,
 남태령¹³⁵⁶⁾ 고개 넘어
 두 쪽지 짝 벌리고
 변뜻 수루루¹³⁵⁷⁾ 펄펄 날아,
 전라 감영¹³⁵⁸⁾을 당도하여 완산 칠봉¹³⁵⁹⁾을 구경허고,
 거기서 짓쳐 달려¹³⁶⁰⁾ 남원 광한루를 구경허고,
 운봉 연재¹³⁶¹⁾를 얼른 넘어 놀보집을 당도.
 놀보가 보고서 좋아라,
 “얼씨구, 내 제비 왔구나! 얼씨구나, 내 제비.
 너를 내가 보내 놓고 일각이 여삼추¹³⁶²⁾ 기다렸더니,
 이제 나를 찾아오니 천도지도¹³⁶³⁾가 반갑다.”¹³⁶⁴⁾
 저 제비 거동을 보라.
 수풍이¹³⁶⁵⁾ 박씨를 입에다 물고 이리 저리 넘놀다,¹³⁶⁶⁾
 놀보 양주¹³⁶⁷⁾ 앓은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백운간¹³⁶⁸⁾으로
 날아간다.

Nam Mountain and Han River have long history.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strong fortress.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Nol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Behold the swallow!
It holds the gourd seed, Revenge Wind, in its mouth.
It flies through South Gate in Seoul.
It quickly goes over streets, stations, bridges, and passes in
Seoul.
It crosses a branch of the Han River and passes by a Buddhist
temple.
It goes over a pass near Seoul.
It opens its wings wide.
It flies vigorously.
It arrives at the Jeolla Office and sees the seven mountain peaks
in Wansan.
It flies vigorously to Gwanghallu Pavilion in Namweon.
It crosses over a pass to Unbong and reaches Nolbo's house.
Nolbo is pleased to see the swallow.
"Hurrah! My swallow has come. Hurray, my swallow.
Since you left,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 am glad you came back to m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Behold that swallow.
It moves around, holding the gourd seed, Revenge Wind, in its
mouth.
It drops the seed in front of Nolbo and his wife, and flies away
in white clouds.

38. (놀보 첫째 박) 놀보 집에 박이 열리자, 놀보가 샅꾼들 을 얻어 첫째 박을 탄다.

[아니리] 놀보가 박씨를 딱 주워 들고 보더니마는,
“영락없이 박씨를 몰어 왔구나, 여.
여보소, 마누라. 여¹³⁶⁹) 제비가 박씨를 몰어 왔네, 여.”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좀 더 유식허든가 보더라.
놀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더니마는,
“여보, 영감. 박씨는 틀림없는 박씨요마는,
박씨에 가 글이 씌었소.
요것 좀 보시오, 여.
원수 수 자, 바람 풍 자¹³⁷⁰) 괴이헌께¹³⁷¹) 심지 말고 내버립시다,
영감.”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허더니마는,
“자네가 속¹³⁷²)을 모르는 말이여.
강남의 문장¹³⁷³)들이 글을 뒤집어 허느니.
비단 수 자¹³⁷⁴) 쓴다는 것이 붓대가 잘못 돌아가서 원수 수 자 되고,
풍년 풍 자¹³⁷⁵) 쓴다는 것이 잘못되어 바람 풍 자 되었으니,
걱정 말고 심세, 이 사람아.”
동편 처마 담장 밑에다 구덩이를 크게 파고,
신작 넣고,¹³⁷⁶) 거름 넣고 따둑따둑¹³⁷⁷) 단단히¹³⁷⁸) 잘 심었제.
수일¹³⁷⁹)이 지내더니 박순¹³⁸⁰)이 올라달아 오는데, 복채만, 홍두
깨¹³⁸¹)만, 기둥만,
박 잎사귀가 샷샷만씩 해가지고,
이놈의 년출¹³⁸²)이 원 동리를 막 뺨어 나가는디,
년출이 턱 걸친 집은 찌그러지고 상해가지고,

38. (Nolbo's First Gourd) Gourds grow in Nolbo's house. Nolbo hires workers and sows the first gourd.

[Aniri] Nolbo picks up the gourd seed and takes a look at it.
“The swallow brought us a gourd seed without fail.
Honey, the swallow came back with a gourd seed.”
Nolbo's wife is more knowledgeable than Nolbo.
Nolbo's wife takes a hard look at the seed.
“Honey, this is certainly a gourd seed.
There are words on it.
Take a look at it.
Revenge and Wind. This is weird. Let's throw it away, not
planting it.”
Nolbo ponders for a while.
“You are not knowledgeable enough.
Writers in Jiangnan(江南) make mistakes.
They wrote ‘Revenge’ instead of ‘Silk’ because their writing brush
made a wrong move.
They intended to write ‘Good Harvest,’ not ‘Wind.’
Let's not worry, woman.”
He digs a large hole below the east eaves near a fence.
He covers the seed with a straw shoe, puts manure in the hole,
and pats on the ground.
Several days pass, a vine comes out in the size of a drumstick,
then a club, and finally a pillar.
Leaves are in the size of a cylindrical hat.
The vine spreads to the entire village.
A house over which the vine crawls collapses.

그때 돈으로도 집값 무느라고¹³⁸³⁾ 수수백 냥¹³⁸⁴⁾ 물었든가 보더라.

하루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썩 오더니마는,

“네 이놈, 놀보야.

네 이놈 밤이면 지붕 우에 박통 속에서 ‘짱 당지당 당똥 당똥 쩡징
동지동지 당똥, 당체¹³⁸⁵⁾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네 이놈, 박 안 따 낼래, 이놈!”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허더니 은금보화가 변화해서 그런 줄 알고,
“샌님,¹³⁸⁶⁾ 오늘 박 따낼라요.”

“어서 썩 따내라, 이놈!”

그날부터 놀보가 박 탈 샅꾼¹³⁸⁷⁾을 얻어 들이는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꼭 병신들만 얻어 들이겠다.

[휘모리] 안판낙포 곱사등이¹³⁸⁸⁾ 곱배팔이¹³⁸⁹⁾

전동다리¹³⁹⁰⁾ 청맹과니¹³⁹¹⁾ 쌍얼챙이¹³⁹²⁾

뻔다리¹³⁹³⁾ 꿩젓이.¹³⁹⁴⁾

[아니리] 모두 이런 병신들만 얻어 들이는데,

어째서 그러냐고 놀보보고 물어보니, 박을 툭 타서 은금보화가 와
쏟아지면 성한 사람들은 모다 주워가지고 달아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병신들만 얻어 들었겠다.

“여보소, 역군¹³⁹⁵⁾들.

삼시¹³⁹⁶⁾ 먹고 닷 냥 줌세.

어서 가 박 따오소.”

박을 따다 놓고 툭을 걸고 한번 타보는데,

[진양조] “시르렁¹³⁹⁷⁾ 실건,¹³⁹⁸⁾ 툭질이로구나. 에이여루, 당그여
라,¹³⁹⁹⁾ 툭질이야.”

“홍보란 놈 박통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되,

내 박은 은금보화만 나오너라.”

He pays thousands of dollar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d house.

One day an old man living next door comes to Nolbo.

"Nolbo. You villain.

I can't sleep at night because of nasty noises from a gourd on my roof.

You bastard! Won't you pick up the gourd?"

Nolbo ponders for a moment, and assumes that jewels made the noises in the gourd.

"Sir, I will pick up the gourd today."

"Do it immediately, you scoundrel!"

From that day on, Nolbo hires workers to saw gourds.

Unexpectedly, he hires only crippled people.

[Hwimori] The crippled men are a hunchback, a man without an arm,

a lame man, a blind man, a harelipped man,

a man whose legs don't bend, and a man who moves his arms wildly as he walks.

[Aniri] Nolbo hires only crippled people.

When asked why he hires only the crippled people, Nolbo answers that if jewels come out of the gourd, sound people would pick them up and run away.

So he hires only crippled people.

"Hello, workers.

You will be given three meals and fifty dollars.

Please bring a gourd here."

They bring a gourd and saw it.

[Jinyangjo]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Rice and money came out of Heungbo's gourd.

I wish for jewels to come out of my gourd."

“에이여루, 당그여라, 톱질이야.”

“여봐라, 정보야.”

“혼야.”¹⁴⁰⁰⁾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¹⁴⁰¹⁾ 맞어라.”¹⁴⁰²⁾

“헤이여 헤이여루 톱질이야.”

“네 이놈아, 톱질이라 허지 말고, 톱질이라 해라 이놈아.

여보소, 이 사람들 내 말 듣소. 은금보화가 나오거들랑 숨김없이 좇어 주소.”

“시르렁 실건 당그여라 톱질이야.”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삭,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삭.

박이 반쯤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맹자라.”¹⁴⁰³⁾ 맹자견양혜왕 허신대 왕왕쉬불원천리이래하시니,”¹⁴⁰⁴⁾

39. (노인 등장) 박 속에서 한 노인이 나와서, 놀보의 아버지가 종살이하다 주인의 가산을 훔쳐 달아난 내력을 말하고 호통친다.

[아니리] “이거 박통 속이 아니라, 서당¹⁴⁰⁵⁾ 속이시,¹⁴⁰⁶⁾ 여.”

박이 짝 벌어져노니,

박통 속에서 노인 한 분이 나오넌디,

[휘모리] 두릅박이마빠,¹⁴⁰⁷⁾ 송곳택,¹⁴⁰⁸⁾ 주먹상투,¹⁴⁰⁹⁾ 빈대코,¹⁴¹⁰⁾

똥오줌을 팔팔 싸 구린내가 진동헌디,

“네 이놈, 놀보놈아!

네 할아버지는 정월쇠,

“Pull and push the saw.”

“Hey harelipped man.”

“Yes.”

“Respond to me forcefully in the saw song.”

“Yo-ho. Pull and push the haw.”

“You villain. Don’t say haw. Say saw instead. You bastard. Listen to me, folks. If jewels come out, don’t put any of them into your pocket.”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The gourd is half-open and a sound is heard.

“An ancient book, Mengzi(孟子), states that Mencius visits a king and the king says that an old man happily traveled a lot to see me.”

39. (An Old Man Shows Up.) An old man comes out of the gourd. He scolds Nolbo, saying that Nolbo’s father was a servant, and that he stole belongings from his master and fled away.

[Aniri] “It looks like this is not a gourd but a school.”

The gourd opens up.

An old man shows up from the gourd.

[Hwimori] The old man’s forehead, chin, topknot, and low nose look terrible.

He took a pee and shit, giving off a bad odor.

“Nolbo, you bastard!

Your grandfather was Jeongweolsoe.

네 할미는 이월덕이,
 네 애비는 삼월쇠,
 네 에미는 사월덕이,
 세대로¹⁴¹¹⁾ 각댁¹⁴¹²⁾ 종일러니,
 병자년에 과거 보러 한양 올라간 지후에¹⁴¹³⁾ 댁¹⁴¹⁴⁾ 사랑이 비었을 제,
 무지헌 네놈 애비 가산 모두 도적하야 부지거쳐¹⁴¹⁵⁾헌 지후에 종적을
 몰랐더니,
 강남서 들은즉 여기서 산다기로 네놈을 잡으려고 불원천리¹⁴¹⁶⁾
 예¹⁴¹⁷⁾ 왔으니,
 네 계집, 자식 당장 상전님전에¹⁴¹⁸⁾ 인사 못 시키겠느냐?
 이 때려죽일 놈아, 이놈아!”

40. (놀보 애걸) 놀보가 속량하겠다고 애걸하니 노인이 주머니에 돈을 채워 오라고 한다.

[아니리] “네 이놈! 오늘부터 상전으로 안 모셨다가는 다리 몽둥이를
 작신¹⁴¹⁹⁾ 꺾어놓을 것이다, 이놈!”
 놀보가 기가 맥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선대¹⁴²⁰⁾의 증거가 없으니 상전 아니라 헐 수도 없고,
 하릴없이¹⁴²¹⁾ 상전님전에 비는디,
[중모리] “비나니다. 비나니다. 상전님전에 비나니다.
 선대의 증거가 없으니 낸들¹⁴²²⁾ 알 수가 있나니까?
 대전¹⁴²³⁾으로 바칠 테니 아주 속량¹⁴²⁴⁾ 시켜주요.”
[아니리] “네 이놈, 그럼 얼마나 바칠래?”
 “한 오백냥 드리지요.”

Your grandmother was Iweolddeogi.
 Your father was Samweolsoe.
 Your mother was Saweolddeogi.
 Your ancestors were servants of my family in a row.
 My auxiliary house was empty because I went to Seoul to take
 the state-run exam.
 Vicious, your father stole all of my belongings. I didn't know
 his whereabouts.
 I heard in Jiangnan(江南) you live here, so I came here to get
 you, having willingly travelled thousands of miles.
 Tell your wife and children to bow to me, your master,
 immediately.
 You scoundrel! You ought to be beaten to death!"

**40. (Nolbo Begg.) Nollbo begs to pay for his ancestors'
 wrongdoing with money. The old man gives Nollbo
 a bag, telling Nollbo to fill it up.**

[Aniri] "You villain! If you don't serve me as your master, I will
 break your legs into pieces. You bastard!"
 Stunned, Nollbo muses over.
 He can't deny that the old man is his master because he doesn't
 have evidence about his ancestors.
 Inevitably, he begs his master.
[Jungmori] "I beg you. I beg you, master.
 Because I don't have evidence about my ancestor, I don't know.
 Let me give you money. Please forgive me."
[Aniri] "You rat. Then, how much can you give me?"
 "I'll give you five hundred dollars."

“어라,¹⁴²⁵⁾ 이놈! 오백 냥 갖고 너 같은 종놈 사겠느냐?

만 냥만 들여라.”

“아이고, 그러면 천 냥만 드리지요.”

“어라, 어라. 너 같은 종놈을 데리고 다소¹⁴²⁶⁾를 다투겠느냐?”

주머니 하나 썩 내어 주며,

“아나,¹⁴²⁷⁾ 너야 전곡간에¹⁴²⁸⁾ 무엇으로 채우던지 이 주머니만 하나 채워 오너라.

많이 준대도 늙어 말년에 가지고 가기도 귀찮허다”

놀보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본즉,

쌀이 되면 불과 두서너 되쯤 들게 생겼고,

돈이 되면 불과 사오십 냥쯤 들게 생겼으니.

41. (능천낭 내력) 놀보가 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아무리 넣어도 간 곳이 없다.

[중모레] 놀보가 보더니 좋아라고,

주머니를 추켜들고¹⁴²⁹⁾ 돈 궤 앞에 가 앉아서 닷 냥을 넣어도 행,

백 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오백 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으니,

“아이고, 이 주머니가 새는구나!”

쌀뒤주¹⁴³⁰⁾로 쫓아가서 열 말을 집어넣어도 땡,

백 석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오백 석을 넣어도 간 곳이 없으니,

헛간으로 쫓아가서 살림살이 가산¹⁴³¹⁾ 등물¹⁴³²⁾을 집어넣는 대로 간 곳이 없으니,

"You villain! I can't buy a servant like you with five hundred dollars.

Make it a million dollars."

"Then, let me give you one thousand dollars."

"My goodness. It is ridiculous that I bargain with a servant like you."

The old man sticks out a bag.

"Here you are. Go and fill up this bag with money or rice. Even if you offer a lot, I am old, so I don't want to carry a heavy thing."

Nolbo takes the bag and looks at it.

A few buckets of rice would fill the bag up.

Forty or fifty dollars would fill the bag up.

41. (Story about Ascension Bag) No matter how much money he puts in the bag, the bag doesn't get filled up.

[Jungmori] Nolbo is delighted.

He holds up the bag in front of a money box and puts in five dollars, which disappears.

He puts in a hundred dollars, which disappears.

He puts in five hundred dollars, which disappears.

"Alas. This bag leaks!"

He goes to a rice box and puts in it ten buckets of rice, which disappears.

He puts in a hundred bags of rice, which disappears.

He puts in it five hundred bags of rice, which disappears.

He goes to a barn and puts in it his belongings, which disappear once they go in the bag.

놀보가 기가 맥혀 주머니를 추겨들고 벌벌 떨면서 말을 한다.

[아니리] “아이고, 상전님. 이 주머니가 웬 주머니요?”

“오, 이 주머니가 능청낭¹⁴³³)이라고 허는 주머니니라.”

“아이고, 이 주머니 생긴 뿐이¹⁴³⁴) 능청맞게 생겨 가지고 사람 많이 상하게 생겼소.”

“아니야. 그 주머니가 잘 된 사람은 더 잘 되게 만들고,
너 같이 못된 놈만 꼭 그렇게 상하게 만드는 주머니니라.
어라, 어라. 그런디 여 너무 많이 가져 왔는가보다, 여.
내 갔다 또 올 것인다.”

“예? 또 와요? 아이고, 샌님. 언제 또 오실라요?”

“오냐. 나 갔다가 종종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찾아 올 테이니,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채워 도라,¹⁴³⁵) 잉?”

주머니를 들고 두어 걸음 나가더니 인홀불건¹⁴³⁶) 간 곳이 없것다.
역군들이 어이없어 우두커니 섰으니,¹⁴³⁷)

“여보소, 역군들. 아까 그 노인이 상전이 아니라,
은금보화가 변화해서 나의 지기¹⁴³⁸) 떠보느라 그런 것이니,
둘째 통에는 틀림없이 은금보화가 들었으니,
염려 말고 박 따오소.”

역군들이 달려들어 또 한 통을 따다 놓고 타는디,

42. (놀보 둘째 박) 역군들이 놀보를 비꼬는 소리를 하며 둘째 박을 탄다.

[중모리] “시르령 실건, 톱질이야. 에이여루, 당겨주소.”

“은금보화가 변화가 되면 그런 법도 있다더라.”

Struck dumb, Nolbo holds up the bag and speaks while trembling.

[Aniri] “Alas! Master, what is this bag?”

“Oh, this bag is called Ascension Bag.”

“This bag appears to be innocent, but it can injure many people.”

“No, that bag makes good people richer.

It injures only bad people like you.

Gee, I think I took too much from you.

I am going to go and come back.”

“What? Come back? Master, when will you come back?”

“I will go now. If I feel bored, I will come back to you.

Whenever I come back, fill this bag up. OK?”

The old man holds the bag, takes a couple of steps, and suddenly fades out.

The workers stand up with vacant looks on their faces.

“Hello, workers. The old man was not my master.

Jewels transformed to the old man in order to test my will.

There is sure to be jewels in the second gourd.

Don’t worry. Bring the gourd here.”

The workers go to another gourd, bring it, and saw it.

42. (Nolbo’s Second Gourd) The workers saw the second gourd, while singing a cynical saw song about Nolbo.

[Jungmori]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That can happen if jewels make a transformation.”

“시르렁 실건, 당겨주소.”

“여보소, 역군네들, 내 말을 듣소.

삼시 먹고 닷 냥 줌세.

은금보화가 나오거든 숨김없이 주워주소.

여봐라, 청보¹⁴³⁹야!”

“혼야.”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 맞아라.”

“에이여루, 흠질이야.”

“어따,¹⁴⁴⁰ 이놈아. 네가 ‘흠질이야’ 허여노니 모두 다 호명¹⁴⁴¹을 허 나부다.”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당겨주소.”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삭.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삭.

43. (상여 등장) 둘째 박 속에서 상여 한 채가 나와 놀보의 집터에 묘를 쓰려고 하니, 놀보가 천 냥을 주어 보낸다.

[아니리] 박이 반쯤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웁다 인자¹⁴⁴² 금반상기¹⁴⁴³ 은반상기¹⁴⁴⁴가 막 나달아온다.”¹⁴⁴⁵

박이 짹 벌어져 노니,

박통 속에서 물색¹⁴⁴⁶ 좋은 상여¹⁴⁴⁷ 한 틀이 짹 나오는데,

[중중모리]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넘차 너화너.

만 리 강남¹⁴⁴⁸ 먼먼 길에 놀보집 오기가 멀고도 멀구나.”

“Pull and push the saw.”

“Hello, workers. Listen to me.

You will be given three meals and fifty dollars.

If jewels come out, pick them up and give all of them to me.

Hey harelipped man!”

“Yes.”

“Respond to me forcefully in the saw song.”

“Here goes the haw.”

“You rat. Because you say haw, people are calling out their names.”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43. (A Bier Shows Up.) A bier comes out of the second gourd. The bier carriers want to use Nolbo’s house as a tomb. Nolbo gives a thousand dollars to send them back.

[Aniri] The gourd is half-open and they hear something.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es! Golden dishes and silver dishes will now come out forcefully.”

The gourd is cut open.

A bier of good shape comes out of the gourd.

[Jungjungmori]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It is quite a long distance from Jiangnan(江南) to Nolbo’s house.”

“어념차 너화너.”

“북망산천¹⁴⁴⁹)이 머다더니

놀보눔 집구석이 어디메뇨?

그 놈의 집터가 명당¹⁴⁵⁰)이라 허니,

어서 집을 뜯고 뢰¹⁴⁵¹)를 쓰자.”

“어허념차 너화너.”

[아니레] 놀보 기가 맥혀,

“대체 이거 웬 상여요?”

“오, 네가 놀보냐?

먼저 박통 속에서 나오셨던 생원님이 돌아가셔서 이 박통으로 이
직¹⁴⁵²)을 허셨는디,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른 집 뜯어라.”

놀보가 집터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것다.

“아이고, 여보시오. 집은 내가 죽어도 못 뜯겠으니,

대전¹⁴⁵³)으로 받아 가시고,

이 상열랑은 제발 다른 데로 운상하옵소서.”¹⁴⁵⁴)

“네 이놈, 그럼 얼마나 바칠래?”

“한 오백 냥 드리지요.”

“어라, 이놈. 오백 냥 가지고 네 집 같은 이런 명당 사겠느냐?

만 냥만 들여라.”

“아이고, 그럼 천 냥만 드리지요.”

“그래부러라.”¹⁴⁵⁵)

돈을 받아들더니 인홀불견¹⁴⁵⁶) 간 곳이 없제.

역군들이 어이없어 모두 박을 안 타고 싹¹⁴⁵⁷) 가기로 드니,

“여보소, 이 사람들아. 둘째 통까지는 날 지기 떠보자고 그런 것이고,

“Heave-ho”

“The world of the dead is said to be far.

Where is Nolbo’s house?

His house site is said to be an auspicious one.

Let’s tear his house down quickly and build a tomb on it.”

“Yo-heave-ho.”

[Aniri] Nolbo is astonished.

“Whose bier would this be?”

“Oh, are you Nolbo?

The old man of the first gourd passed away and was moved to this gourd.

He said in his will that your house site was an auspicious one. Tear this house down.”

Nolbo hears that his house site is a lucky one and refuses to tear his house down.

“Look, I can’t tear my house down even if I am threatened with death.

I will give you some money.

Please move this bier to another place.”

“You rat. Then, how much can you give?”

“Let me give you five hundred dollars.”

“You scoundrel. How can I buy a lucky site like this one with five hundred dollars?

Make it ten thousand dollars.”

“OK. Then, I will give you one thousand dollars.”

“Fine.”

He takes the money and suddenly fades out.

The workers are dumfounded and determined to go away, refusing to saw a gourd.

“Look, folks. The two gourds have been testing my will.

셋째 통에는 틀림없이 은금보화가 들었으니
염려 말고 박 타세.
어서 가 박 따오소.”
박을 또 따다 놓고 타는디

44. (놀보 셋째 박탐) 셋째 박 속에서 놀이패가 나와, 놀부 에게 천 냥씩을 요구한다.

[중모리] “시르령 실건, 툽질이야. 에이여루, 당겨주소.”

“여보소, 역군네들. 염려 말고 박을 타세.

망허여도 내 망허고, 흥허여도 내가 흥힐 것이니,

걱정을 말고 박을 타세.”

“시르령 실건, 시르령 실건, 시르령 실건, 당겨주소.”

“여봐라, 청보야!”

“혼야.”

“어서 이 녀석 툽소리를 맞어라.”

“혼이야 맞는다, 홉질이야.”

“예끼, 이놈아. ‘홉질이야’ 말고, ‘툽질이야’ 해라, 이놈아!”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삭. 시르령 시르
령 시르령 식삭.

[아니리] 박이 딱 쪼개져 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패 여사당¹⁴⁵⁸) 거사¹⁴⁵⁹) 각설이¹⁴⁶⁰) 초란이
패¹⁴⁶¹)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서 놀보 마당에 가 죽 늘어서더니마는,
놀보를 보고, “소인 문안이요. 소인 문안이요. 소인 문안이요.”
놀보가 어찌 바뻐던지,

The third gourd must have jewels.
Let's saw it. Don't worry.
Please bring it over here."
They bring the third gourd and saw it.

44. (Nolbo Saws the Third Gourd.) Entertainers come out of the third gourd, and ask Nolbo for ten thousand dollars.

[Jungmori]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Look, workers. Let's saw the gourd. Don't worry.
I will be the one who rises or falls.
Don't worry. Let's saw the gourd."
"Pull and push the saw so that it makes sounds."
"Hey harelipped man!"
"Yes."
"Respond to me right away in the saw song."
"Let me respond. Here goes the haw."
"You rat. Don't say haw. Say saw instead. You bastard!"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Aniri] The gourd is sawn open.
Traveling male and female entertainers, begging entertainers,
and grotesque traveling entertainers come out of the gourd and
stand up in Nolbo's yard.
They say to Nolbo, "How are you doing, sir?"
Nolbo is confused.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대체 너희가 무엇들이냐?”

“예, 저희가 저 강남서 놀보 샌님 박 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힐라고 남사당, 여사당, 거사, 초란이패, 각설이패 이런 것들이
모다 나왔습니다.”

“야, 거 나오던 중 그중 낫기는 낫다마는,
그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노는디 행하¹⁴⁶²)가 천 냥이올시다.”

“뭇이? 천 냥이여?”

어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아따, 샌님도 이왕¹⁴⁶³) 없어진 살림 뭇이 아까와서 그래쥬소.¹⁴⁶⁴)
천 냥 주고 한 번 재미있게 노시오.”

“그러. 그럼 어디 한번 노는 구경이나 해 보자.

한번 놀아봐라.”

이놈들이 각기 멋대로 줄을 고르는데,¹⁴⁶⁵)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한참 놀 적에, 해금¹⁴⁶⁶) 든 놈이 지가 제 멋에 반해가지고 도시는
디,¹⁴⁶⁷)

‘가가 가기가 가각 가기가 아아아아아아아 이이이.’

이렇게 도시고 나니, 이제는 남사당패하고 여사당패하고 짝을 지워
갖고 노는디,

여사당들이 앞에 곱게 꾸며 갖고 나와서 예쁘게 한 마디 메기면,¹⁴⁶⁸)
또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우루루 앞으로 달려들면서 왔다 갔다 뒹
소리 메기고,

한번 놀던가 보더라.

“No, no. What on earth are you?”

“We heard in Jiangnan(江南) that you are sawing a gourd.
Traveling male and female entertainers, begging entertainers,
and grotesque traveling entertainers are here to entertain you.”
“You are the best among the ones who came out of a gourd
so far.

Begin your show.”

“You should pay us a thousand dollars for a show.”

“What? A thousand dollars?

You rats! That’s too expensive.”

“Master, what’s the point of saving some money when you have
already lost a lot of it?

Give us a thousand dollars and have fun.”

“OK. Then, let me enjoy your show.

Begin the show.”

The entertainers tune the strings of their musical instruments.

“The musical instruments make diverse sounds.”

While they have fun, a man with the Korean fiddle is infatuated
with himself and gives a show.

‘I am happy. Life is wonderful. I feel great.”

After he gives the show, the male and female entertainers
perform in pairs.

The female entertainers dressed up elegantly step forward and
sing beautifully a part of a song.

In response, the male entertainers step back and forth fast, as
they sing another part of the song.

They have quite a show.

45. (양산도, 장타령) 사당패와 각설이패가 나와 각기 양산도와 장타령을 한다.

[세마치] “나는 가네. 나는 간다.

저 님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구나.”

[아니리] 그러면 남사당들이 썩 나서며,

[세마치] “에, 마라, 마라, 마라, 그리를¹⁴⁶⁹⁾ 말어라.

사람의 팔시¹⁴⁷⁰⁾를 니가 그리 말어라.”

“수벽사명양안태요

불승청원각비래¹⁴⁷¹⁾로다, 야.”

“에, 마라, 마라, 마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팔시를 니가 그리 말어라.”

“금바우¹⁴⁷²⁾ 몰랑¹⁴⁷³⁾에 쪽소리¹⁴⁷⁴⁾ 나뭇잎은 펄펄 제 밋에 겨워서
다 떨어지는구나.”

[아니리] 이렇게 놀고 나니,

인자¹⁴⁷⁵⁾ 각설이들이 썩 나오더니마는 장타령¹⁴⁷⁶⁾을 하느디,

전라도제¹⁴⁷⁷⁾로 하것다.

[동살풀이] “허절씨구나, 들어간다.

각설 춘추¹⁴⁷⁸⁾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덕아. 이 내 말을 들어 바라.

느그¹⁴⁷⁹⁾ 부모가 너를 나,¹⁴⁸⁰⁾

우리 부모가 나를 나,

고이나 곱게 잘 길러서,

삼간초당¹⁴⁸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¹⁴⁸²⁾에다 앉혔네.

진주나 기생 이애미,¹⁴⁸³⁾ 왜장¹⁴⁸⁴⁾ 청정¹⁴⁸⁵⁾ 목을 안고 진주나 남강
에 떨어져서 만세유전¹⁴⁸⁶⁾에 빛났네.

45. (The Folk Song and the Market Song) Traveling entertainers and begging entertainers sing a folk song and the market song.

[Semachi] “I am leaving. I am leaving.

I am going back, following my love.”

[Aniri] The male entertainers step forward.

[Semachi] “No, no, no. Don’t do it.

Don’t look down on others.”

“The water is blue and the sand is shiny.

A bird flew back, not being able to overcome a clear sorrow.”

“No, no, no. Don’t do it.

Don’t look down on others.”

“Leaves of an oak tree on a golden rock on a mountain top fall down, not holding their own energy.”

[Aniri] The male entertainers finish performing.

Begging entertainers move forward and sing the market song.

They sing in Jeolla rhythm.

[Exorcism Mode] “Hurrah. Let me begin.

Let me begin the begging song.

Hey Sundeok. Listen to my words.

Your parents gave birth to you.

My parents gave birth to me.

They took good care of you and me.

They built a cottage with three rooms, and sent us to school.

A courtesan in Jinju, Nongae, hugged a Japanese general and fell into a river, making her name shine for many generations.

품바 품바, 잘 한다.”

[아니리] 이렇게 하고나니

또 한 놈이 썩 나서더니마는,

이놈은 경상도제¹⁴⁸⁷⁾로 메기든가 보더라.

[동살풀이] “허절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원갓 친절¹⁴⁸⁸⁾이 들어간다.

오동장롱,¹⁴⁸⁹⁾ 깨끼장농¹⁴⁹⁰⁾ 둘이나¹⁴⁹¹⁾ 불라고 두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한다.”

46. (귀 자 노래) 놀보가 귀찮다고 하자, 초란이패가 귀 자 노래를 부른다.

[아니리] 한참 이려고 나니

초란이패가 썩 불거지더니마는,¹⁴⁹²⁾

[자진모리] “깨골 깨골, 청개골아.¹⁴⁹³⁾

깨골애기¹⁴⁹⁴⁾ 집을 찾으려면, 아랫도리를 따달딸¹⁴⁹⁵⁾ 걷고 미나리
꿍¹⁴⁹⁶⁾으로 들어라.”

“어허이야 어허야 어허 어헛어 어허야, 어허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 상투¹⁴⁹⁷⁾가 제일이요.”

[아니리] 한참 이려고 나니

놀보 기가 맥혀,

“아이고, 이놈들아, 귀찮허다.

인자 그만허고 가거라.”

[자진모리] “귀찮허단 말이 웬 말이요?

Oh, great. Bravo.”

[Aniri] The begging entertainer finishes performing.

Another begging entertainer steps forward.

This man sings in Gyeongsang rhythm.

[Exorcism Model] “Hurrah. Let me begin. Hurray. Let me begin.

Whoop. Let me begin. Yippee. Let me finish.

Spring goes.

I wished to see a paulownia wardrobe and a one-layered wardrobe with my love.

I can’t believe I am alone.

Oh, great. Bravo.”

46. (Annoyance Song) Nolbo says he is annoyed. Entertainers sing the annoyance song.

[Aniri] The begging entertainer finishes his performance.

A group of female entertainers step forward.

[Jajinmori] “Croak, croak, a green frog.

If you want to find a frog nest, roll up your trousers and get in a dropwort field.”

“Yo-ho. Yo-ho. Yo-ho. Yo-ho. Yo-ho.”

“This rascal. That rascal. A topknot is the best.”

[Aniri] The entertainer finishes performance.

Nolbo is stunned.

“You bastards. Don’t annoy me.

Stop the performance and go away.”

[Jajinmori] “How can you say you are annoyed?”

귀자¹⁴⁹⁸) 근본¹⁴⁹⁹)을 들어보오.
 한 발 달린 돌쩌귀,¹⁵⁰⁰
 두 발 달린 까마귀,
 세발 달린 통노귀,¹⁵⁰¹
 네 발 달린 당나귀,
 귀 자 머리는 놀보 심사¹⁵⁰²) 후생¹⁵⁰³)에는 무엇이 될랑고?”¹⁵⁰⁴)
 ‘또리동땅 똥딱궁 똥따궁.’
 “노세. 노세. 노세. 나가 노세.
 돈이나 쪼개¹⁵⁰⁵) 달랑개¹⁵⁰⁶) 안 주고,
 얼른 행하¹⁵⁰⁷) 주시오.”
[아니레] “마당쇠야, 어라,¹⁵⁰⁸) 귀찮다.
 어서 행하 줘서 보내라.
 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돈을 받고 인홀볼견¹⁵⁰⁹) 간 곳이 없제.
 놀보 기가 맥혀 우두커니 보고 있을 적에,

47. (놀보 아내 만류) 놀보 마누라가 박을 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마지막 박통이 저절로 벌어진다.

[중모레] 놀보 마누라 기가 맥혀 우루루루 달려 들어, 박통 위에
 가서 걸터 앉지더니,¹⁵¹⁰
 “타지 마오. 타지 말어. 타지 마시오.
 은금보화가 나오기를 바래다, 있던 형세¹⁵¹¹)가 다 망해 가네.
 나를 이 박과 같이 탔으면 탔제,
 살려 두고는 못 타리다.

Listen to my story about annoyance.
A hinge has only one leg.
A crow has two legs.
A brass pot has three legs.
A donkey has four legs.
Your character annoys people. What can you become after this life?"
"This is great."
"Carpe diem. Carpe diem.
We asked for money, which you didn't give.
Please give us money for the performance."

[Aniri] "Madangsoe, I am annoyed.
Send them away with the money.
I am confounded."
They take money and suddenly disappear.
Dumfounded, Nolbo vacantly looks at the midair.

**47. (Nolbo's Wife Stops Nolbo.) Nolbo's wife tells
Nolbo not to saw the gourd. The last gourd opens
by itself.**

[Jungmori] Astonished, Nolbo's wife runs to Nolbo, and throws herself over a gourd, facing down.
"Don't saw this gourd. Don't saw it.
Your wish to have jewels from a gourd will destroy everything we have now.
If you want to saw this gourd, saw me too.
Over my dead body.

타지 마시오.”

[아니레] 놀보란 놈 기가 맥혀 화가 상떡¹⁵¹²)까지 찼제.

“에이, 빌어먹을 놈의 박통같으니라고.”

박통을 집어서 울너메다¹⁵¹³) 획 집어 던져노니,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와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이 싹 다 주워가 버리제.

놀보란 놈, 들도 놓도¹⁵¹⁴) 못할 즈음에,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제 손수 뚜굴뚜굴¹⁵¹⁵) 뚜굴뚜굴 궁굴리가다

가¹⁵¹⁶) 놀보 앞에 와 짹 벌어지더니,

48. (장비 등장) 마지막 박통 속에서 장비가 등장하여, 놀보의 죄상을 말하고 호통친다.

[엇모레]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저 장수 거동 보라.

먹장낫¹⁵¹⁷)

고리눈¹⁵¹⁸)에

다박수염¹⁵¹⁹)을 거사려,¹⁵²⁰)

흑총마¹⁵²¹) 칩떠 타고,¹⁵²²)

사모장창¹⁵²³) 들고,

놀보 앞에 가 우뚝 서며,

“네 이놈, 놀보야! 강남서 들은즉 네놈 심술이 고약하야 어진 동생을

구박출문¹⁵²⁴)하여 쫓아내고,

제비라 허는 짐생은 백곡¹⁵²⁵)에 해가 없는디,

Don't saw it."

[Aniri] Nolbo is upset. Anger overflows his lungs.

"I hate this damn gourd."

Nolbo picks up the gourd and throws it over a fence.

Jewels come out of the gourd.

Villagers pick up all of them and run away.

Nolbo can neither keep or throw away the last gourd.

The last gourd rolls around by itself, comes in front of Nolbo,
and opens by itself.

**48. (Zhang Fei(張飛) Shows Up.) Zhang Fei(張飛)
comes out of the last gourd and accuses Nolbo of
his wrongdoings.**

[Eonmori] A warrior comes out. He comes out.

Behold the warrior.

His face is black.

There is a white circle around each of his eyeballs.

The end of his strong and short beard faces upward.

He is high on a black horse.

He holds a long spear whose top is of a triangular shape.

He stands up high in front of Nolbo.

"Nolbo, you villain! I heard in Jiangnan(江南) you are so
perverse that you kicked your virtuous brother out of your
house.

A swallow is an innocent animal doing nothing wrong to a
human.

성헌 다리를 분질러¹⁵²⁶⁾ 공¹⁵²⁷⁾ 받고자 허였으니,

그 죄로 죽어 보라.”

[아니레] 놀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은 듯이 나뭇이¹⁵²⁸⁾ 얹혀,¹⁵²⁹⁾

혼불부신¹⁵³⁰⁾이 되어 퍼져 있을 적에

그때 홍보가 풍편¹⁵³¹⁾에 이 소문을 들었는가 보더라.

천방지축¹⁵³²⁾ 쫓아 와서 장군님전에 비는디,

49. (홍보 애원) 홍보가 달려 와서 놀보를 살려 달라고 애원 하니, 장비가 용서하고 떠난다.

[중모레]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에 비나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 제가 대신 받겠사오니,

형님을 부디 살려주오.

만일 형님이 죽거든¹⁵³³⁾ 동생 저 혼자 살아서 뒤틀허리까?

우리 형님 살려주오.

우리 형님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혼귀고향¹⁵³⁴⁾ 돌아가서 호
호만세¹⁵³⁵⁾를 허오리다.”

장군이 감심¹⁵³⁶⁾허여,

“네 이놈, 놀보야. 네 죄상¹⁵³⁷⁾을 생각하면 당장에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의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아 살려두고 가거니와,

차후는¹⁵³⁸⁾ 개과천선¹⁵³⁹⁾을 허렸다.”¹⁵⁴⁰⁾

두어 말을 이르더니 인홀불견¹⁵⁴¹⁾ 간 곳 없다.

[아니레] 그때 홍보가 즈그¹⁵⁴²⁾ 형님한테 물을 떠다 먹이고,

사지¹⁵⁴³⁾를 주물러서 겨우 일어내켜노니,¹⁵⁴⁴⁾

You broke its healthy legs to get something from it.
You deserve to die.”

[Aniri] Disconcerted, Nolbo lies there and doesn’t move as if he were dead.

He is so horrified that he cannot control his body.

Meanwhile, Heungbo hears about what goes on with his brother.

He comes over hurriedly and begs the warrior for mercy.

49. (Heungbo Beks.) Heungbo comes quickly and begs Zhang Fei(張飛) to forgive Nolbo. Zhang Fei(張飛) forgives Nolbo and leaves.

[Jungmori] “I beg you. I plead with you, general.

Let me be punished for my brother’s wrongdoing.

Please forgive my brother.

If my brother dies, what would I live by myself for?

Please forgive my brother.

If you forgive my brother, I will be eternally grateful to your big favor, general.”

The general is moved.

“Nolbo, you villain. Thinking about your wrongdoing, I should kill you before I leave.

Thinking about your virtuous brother, however, I will let you go.

Reform yourself and be a better person.”

After a couple of words, he suddenly disappears.

[Aniri] Heungbo brings water to his brother, who drinks it.

Heungbo massages Nolbo’s legs and arms, and helps him to sit up.

놀보가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려,
 “아이고 동생.”
 “아이고 형님, 곤욕¹⁵⁴⁵)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에¹⁵⁴⁶)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
 소, 왜.”¹⁵⁴⁷)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모두 제가 부족하여 그리 된 일이지요.
 형님, 제 살림이 많사오니,
 서로 절반씩 반분하여¹⁵⁴⁸)
 한 집에서 우애¹⁵⁴⁹)하고 삽시다, 형님.”
 “그러세마는 동생 볼 면목도 없고,¹⁵⁵⁰) 제수씨¹⁵⁵¹) 볼 면목도 없네.”
[엿중모리] 그때여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헌지후에,¹⁵⁵²)
 흥보 살림 반분하여 형제간에 화목¹⁵⁵³)하고,
 대대로 자식들을 교훈시켜,¹⁵⁵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함을 천추만세¹⁵⁵⁵) 전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더질.¹⁵⁵⁶)

Nolbo manages to gather his senses.

“Oh, my brother.”

“Brother, this must have been painful for you.”

“Brother, please forgive all of my past wrongdoing.”

“Brother, don’t mention it.

I am to be blamed for all of it.

Brother, I have a considerable fortune.

I will give you half of it.

Let’s live together in the same house, brother.”

“That’s a great idea, but I feel ashamed to see you and your wife.”

[Eotjungmori] Nolbo transforms himself, becoming a better person.

Heungbo gives Nolbo a half of his fortune, and lives happily with Nolbo.

Their descendents educate their children well.

They are loyal to the country and nice to their parents.

They bring brotherly love home to their younger generations for a long time.

Who knows after that?

Let me finish.

- 1) 東方.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 2) 君子之國. 군자의 나라. 곧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 3) 禮儀之邦. 예의의 나라. 곧 예의를 잘 지키는 도덕적인 나라.
- 4) 十室之邑. 열 가구가 사는 작은 고을. 아주 작은 고을.
- 5) 忠臣. 충성스런 신하.
- 6) 七歲幼兒. 일곱 살 먹은 어린아이.
- 7) 孝悌. 효도와 공경.
- 8) 不良한. 어질지 못한. 착하지 못한.
- 9) 堯舜時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요임금과 순임금은 중국 제왕의 모범으로서 이상적인 제왕으로 일컬어짐.
- 10) 四凶.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나라를 해치던 흉악한 죄인인 공공(共工), 환두(驩兜), 삼묘(三苗), 곤(鯀)의 네 사람. 《서경》의 〈순전(舜傳)〉에 보면, 공공은 북쪽의 유주로 귀양을 보내고, 환두는 남쪽의 숭산으로 내쫓아서 가두고, 삼묘의 무리들은 서쪽의 삼위로 쫓아내고,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은 동쪽의 우산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고 함.
- 11) 當年. 그 해. 그 연대.
- 12) 盜跖.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도적질과 살인을 일삼던 유척(柳跖)을 가리킴. 도적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도(盜) 자를 붙여, 도적이라고 함.
- 13) 一種. 어떤. 어떤 종류의.
- 14) 癘氣. 돌림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
- 15) 어름. 둘이 맞닿은 곳.
- 16) 五臟.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내장'의 뜻으로 쓰였음.
- 17) 육부(六腑)인데, 육부는 한의학에서 담(쓸개), 위, 대장(큰 창자), 소장(작은 창자), 삼초(위의 윗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의 부분), 방광(오줌보) 등 여섯 가지 뱃속 기관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 18) 五臟이 칠부(七腑)였던. 내장이 일곱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던.
- 19) 칠부(七腑)이고.
- 20) 將棋宮작. 장기 놀이에서 임금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장기말로서, '조(楚)' 자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고, '한(漢)' 자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 21) 兵符. '발병부(發兵符)'의 준말. 조선조 때에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동글납작한 나무패로, 한가운데를 쪼개서 한 쪽은 책임자에게 주고 다른 한 쪽은 임금이 갖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책임자가 두 쪽을 맞추어 본 뒤에 그 명령에 따랐다.
- 22) 주머니.
- 23) 본다고 하면. 보면.
- 24) 싸움.
- 25) 大將軍方. 음양설에서 흉한 방위를 맡은 장신(將神)의 하나인 대장군신이 맡은 방위. 이 방위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함.

- 26) 伐木. 나무를 베.
- 27) 五鬼方에. '오귀방'은 자연의 순리가 역행하여, 가장 나쁜 방위. 이 방위로 가면,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함.
- 28) 권(勸)하고.
- 29) 삼살방(三煞方)에. 삼살방에다. '삼살방'은 점술에서 세 가지 불길한 살(겁살·세살·재살)이 낄다는 방위.
- 30) 露積. 한 곳에 쌓아 둔 곡식.
- 31) 草墳. 남서 해안이나 섬에서 송장을 풀이나 짚으로 덮어 두는 장례 방법. 3년 내지 10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살이 다 썩은 뒤에 뼈를 골라 시루에 찌서 땅에 묻는다.
- 32) 喪人. 상제(喪制).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 33) 小大祥. 소상과 대상. 소상(小祥)은 사망한 한 돌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大祥)은 두 돌 되는 제사.
- 34) 酒酺.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말하거나 행동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35) 祭祀床.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벌여 놓는 상.
- 36)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 37) 地官.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밭자리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 38) 지남철. 나침반.
- 39) 한 땀 한 땀 곱게 엮어놓은 것의 올.
- 40)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 41)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에 매는 그물처럼 생긴 망건을 매는 끈.
- 42)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흔히 날을 여섯 개로 한다.
- 43) 엄지총. 짚신이나 미투리의 맨 앞 양편으로 곱게 박은 날날의 올.
- 44) 줄이나 끈을 내어 두 쪽으로 나누고.
- 45) 萬鳥唐鞋.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젖은 땅에 오랫동안 서있어도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얇은 나무 판지 등으로 바닥을 여러 겹으로 대서 만든 가죽 신발.
- 46) 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둘레의 높이. 여기서는 신의 바닥에서부터 발등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가리킴.
- 47) 劫奪.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하여 여자의 정조를 빼앗음.
- 48) 守節寡婦.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
- 49) 모함(謀陷)하고.
- 50) 淫女. 성격이나 행동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
- 51) 害談. 해를 끼치는 말.
- 52) 옆구리.
- 53) 蛇酒瓶. 뱀술을 담은 병.
- 54) 砒霜. 극약의 일종. 비석을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무서운 독이 있는데, 극히 적은 분량으로 외과적 치료에 쓰인다.
- 55) 祭酒瓶. 제사지낼 때 쓰는 술을 담은 병.
- 56) 가랑이.

- 57) '뜨다'가 '씨름에서 상대방을 번쩍 들어올리다.'라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번쩍 들어올리고'라는 뜻.
- 58) 사기그릇을 실은 짐.
- 59) 주저앉히고.
- 60) 샘.
- 61) 가에.
- 62) 허방을 만들어 놓고. '허방'은 땅바닥이 갑자기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곳.
- 63) 곱사등이. 곱추.
- 64) 발길질. '택견'은 몸을 날려 한 발로 맞은 편 사람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는 우리나라 전통무술. 해방 뒤에 생긴 '태권도'의 전신.
- 65) 戮屍.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
- 66) 이리하니.
- 67) 三綱.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윤리의식 세 가지.
- 68) 五倫.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 69) 亂杖.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매로 치던 고문. 영조 46년(1770)에 없앴다.
- 70) 倫紀인들. '윤기'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
- 71) 넘칠 정도로 가득한 모양.
- 72) 왜가리. 해오라기과에 딸린 새. 강가나 논에 살면서 물고기, 조개, 개구리 따위를 잡아먹음.
- 73) 聲音. 목소리.
- 74) 부르셨습니까?
- 75) 작고 묵직한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가볍게 기울어지며 자꾸 흔들리는 모양.
- 76) 눈꼬리.
- 77) 눈꼴시어. 하는 짓이 거슬리어 보기에 아니꼬와.
- 78) 전부. 모두.
- 79) 殺戮之患. 무엇을 트집 잡아 사람을 마구 죽이는 재앙.
- 80) 嚴冬. 매우 추운 한겨울.
- 81) 雪寒風에. 눈과 함께, 또는 눈 위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 82) 白夷叔齊. 중국 은나라의 처사.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했다.
- 83) 굶주려.
- 84) 首陽山.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산으로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곳.
- 85) 洞燭. 뒷사람이 앞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 86) 슈. 명령.

- 87) 살아生前.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 88) 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 89) 世上分別. 경험이나 식견 따위로 세상일을 따질 능력.
- 90) 身世.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
- 91) 一朝에. 하루 아침에. 아주 짧은 기간에.
- 92) 그리 말도록 금지하는 말.
- 93) 山中. 산골. 산속.
- 94) 산중에.
- 95) 살자 허니. 살자고 하니.
- 96) 百物. 여러 가지 물건.
- 97) 道傍. 길가. 여기서는 ‘도방처’를 가리킴. ‘도방처’는 길가와 같이 사람의 내왕이 많은 곳.
- 98) 江景. 충청남도 강경읍을 가리킴.
- 99) 浦州. 지금의 전북 부안군 줄포(苴浦).
- 100) 法聖. ‘법성’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 101) ‘짓궂어’인 듯.
- 102) 예절이나 풍속.
- 103) 뺨따귀. ‘뺨따귀’는 뺨을 낮추어 이르는 말.
- 104) 客舍. 고려·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여 외국 사신이나 다른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던 묵게 하던 숙소.
- 105) 東大廳. ‘대청’은 한옥에서 집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로서, 세 개의 대청이 있다. 동대청(東大廳)은 남대청(南大廳), 서대청(西大廳)과 더불어 세 개의 대청 중 하나이다.
- 106) 坐起.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 107) 風磨雨濕. 바람에 닳아지고 비에 젖음. 곧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음.
- 108) 그럭저럭.
- 109) 聖賢洞 福德村. 성현과 같이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 사는, 복과 덕이 많은 마을 이라는 뜻으로 꾸며 지어낸 이름.
- 110) 一間草屋. 한 칸 짜리 작은 초가집. ‘칸’은 건물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여섯 자 평방이나 또는 여덟 자 평방, 또는 아홉 자 평방이다.
- 111) 引勸. 본래는 불교 용어로 ‘다른 이에게 시주하도록 인도하고 권장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끌어다가 권함’ 정도의 의미.
- 112) 琴瑟. 본래는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부부의 화목한 즐거움을 뜻함.
- 113) 감부기병에 걸려서 까맣게 된 밀이나 보리 따위의 이삭. 여기서는 ‘병들어 건강치 못한 자식’을 가리키는 말로 썼음.
- 114) 조르르. 작은 것들이 열을 지어 고르게 잇달린 모양.
- 115) 眷率.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권속(眷屬).
- 116) 可觀.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17) 늙은 호박을 썰어서 넣고 시루에 찐 떡.
- 118) 따듯하면.

- 119) 따듯해도.
- 120) 육개장의 국물. '육개장'은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갖은 양념을 한 뒤에 파와 고춧가루를 넣어 다시 끓인 국.
- 121) 어린 닭 찜.
- 122) 生雄구이. 저민 꿩고기를 소금, 깨소금, 파, 설탕, 후춧가루로 양념하고 주물러서 구운 반찬.
- 123) 魚饅頭. 피(皮)를 생선의 살로 하여 만든 만두. 민어나 송어 따위의 살을 넓고 얇게 저며 피를 만들고, 보통 만두의 소를 넣어 반달모양으로 접은 다음, 갈분이나 녹말을 묻혀 끓는 물에 익힌다.
- 124) 肉饅頭. 고기를 소로 넣어 만든 만두. 고기만두.
- 125) 두루散炙. 여러 가지 고기를 길쭉길쭉하게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 126)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 127) 到底하게. '도저하다'가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는 뜻이므로, '도저하게'는 '아주 깊게', 또는 '아주 훌륭하게' 정도의 의미.
- 128) 메스꺼워.
- 129) 첫째아들. 맏아들. 장남.
- 130) 코를 뚫어 코뚜레를 해야 할 만큼 자란 수소. 힘이 세고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하여 다루기가 매우 힘들.
- 131) 목소리.
- 132) 公論. 함께 모여 의논함.
- 133) 形勢. 생활의 경제적 형편.
- 134) 家長. 집안의 어른.
- 135)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36) 자꾸 울면.
- 137) 財數. 좋은 일이 생길 운수.
- 138) 환자 몇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기구로 한 말의 곱질 의 용량을 담는다.
- 139) 情狀에. 딱한 형편에.
- 140) 死九一生 잡고. 구사일생 잡고. 아홉 번 죽음에 한 번 사는 셈 치고. 곧 매우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줄 알면서 행할 때 쓰는 말임.
- 141) 兩班. 자기 남편을 남에게 이르는 말.
- 142) 辛卯年 趙大妃 國喪 때. 신묘년(1891년) 조대비의 국상 때에. 조대비는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왕비이며 현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임. 철종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일찍 죽자, 대원군 이하응의 아들인 고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고, 섭정을 하다가, 1891년 신묘년 4월에 죽었음. '국상'은 백성 전체가 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
- 143) 흰 베로 싸개를 한 것. 상을 당했을 때나 국상시에 썼음.
- 144) 피륙의 밭 따위가 잘고 고와.
- 145) 갓房. 갓을 만들어 팔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집.

- 146) 뜨게 해. 실 따위로 코를 엮어 만들게 해.
- 147) 그을려.
- 148) 도포(道袍). 소매가 넓고 길이가 발등에까지 미치며, 뒷자락에 띠 폭을 낸 옛날 선비의 통상 예복.
- 149) 櫥. 물건을 넣어두는 가구의 한 가지. 넣어두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책장, 옷장, 찬장 따위가 있음.
- 150) 지금.
- 151) '닭장'의 전라도 사투리.
- 152) 명석.
- 153) 구멍.
- 154) 대나무나 진흙 따위로 담배통을 만든 담배대.
- 155) 여럿의 차림새.
- 156) 장만하여 갖추는데.
- 157) 갓 바닥의 가에 둘러 댄 테.
- 158) 破笠. 부서진 갓.
- 159)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 160) 叢叢. 뻑뻑하게.
- 161) 조사 갓끈.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비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씬)를 가리키는 뜻함.
- 162) 망건편자. 망건을 졸라매는 띠.
- 163) 갓풀(아교)로 붙인 관자.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 164)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 165) 頭痛나게. 두통이 생기도록.
- 166) 옷의 아래로 드리운 넓은 조각.
- 167) 예전에,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가 소창옷 위에 덧입던 옷. 넓은 소매에 길이는 길고, 앞은 두 자락, 뒤는 한 자락이며 옆은 무가 없이 터져 있다.
- 168) 가슴과 배 사이의 둘레.
- 169) 거의 다 찢어져 살이 몇 개 남지 않은 부채.
- 170) 복숭아씨.
- 171) 扇錘. 선초(扇貂). 부채고리에 매어 다는 장식품.
- 172) 여덟 八字 걸음. 八 자처럼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 거드름을 피우며 느리게 걷는 걸음.
- 173)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어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
- 174) 생기지.
- 175) 還事戶房. 환곡을 맡은 호방. '환곡(還穀)'은 '환자(還子)'라고도 하며,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

- 던 일. 또는 그 곡식.
- 176) '하시오'로 끝나는 존댓말.
- 177) 潘南 朴哥. 본관이 반남인 박 씨.
- 178) 약간.
- 179) 손해를 보겠고.
- 180) 종결 어미 '소'로 나타내는 예사 높임의 말체. '하게'보다 조금 존대하는 말씨이다.
- 181) 따져볼 수밖에. 적당히 얼버무려볼 수밖에.
- 182)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 보던 청사.
- 183) 여럿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몰려드는 모양.
- 184) 朴生員. 박씨 성을 가진 생원.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성(姓) 밑에 붙이는 말.
- 185) 누가 아니라고 하던가?
- 186) 宅內. 남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 187) 편합니다만.
- 188) 伯氏長. '백씨'가 남을 높이어 그 만형을 이르는 말이므로, '백씨장' 또한 남의 만형을 높여 이르는 말임.
- 189) 氣候. 기체후(氣體候). 웃어른께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그를 높이어 그의 '정신과 건강상태'를 이르는 말.
- 190) 如前하시지. 전과 같이 안녕하시지.
- 191) 問議. 물어서 의논함.
- 192) 眷率.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 193) 還子섬. 몇 섬의 환자.
- 194) 千石꾼. 나락으로 천 석을 추수하는 큰 부자. '석'은 곡물의 부피를 세는 단위로, 180 l.
- 195) 잡수신다는.
- 196) 무슨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여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일.
- 197) 梶杖. 조선조 때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 198) 열이 조금 넘는 수.
- 199) 팽이채.
- 200) 고을의 수령이 사무를 보던 관청이 있는 곳.
- 201) 座首.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鄉廳) 또는 유향소(留鄉所)의 가장 높은 직임. 조선 건국 초기에 악질 향리의 규찰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연로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좌수로 삼고, 그 다음을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 202) 營門.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 영문은 본디 병영의 문을 뜻함.
- 203) 열 개만.
- 204) 매를 대신 맞고 받는 돈.
- 205) 말을 빌어 타고 내는 돈.
- 206) 따로 몫을 정해 마련해.

- 207) 糊飢. 굶주림을 면함.
- 208) 정강이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우습게 표현한 것임.
- 209)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 210) 櫃門. 나무로 짠 네모진 께짝의 문.
- 211) (자물쇠 따위가 서로 닿으면 걸리게 된) 단단한 물건이 세게 맞부딪쳐 달라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212) 三綱五倫. '삼강'은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도리.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함. '오륜'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함),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할 일이 따로 있음), 장유유서(長幼有序.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음), 봉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함)의 다섯 가지 도리.
- 213) 한 돈 반. '돈'은 한 냥의 10분의 일. 한 푼의 열 배.
- 214) 두부를 짜낸 찌꺼기.
- 215) 구질구질한.
- 216) 늘이고.
- 217) '입'의 비어.
- 218) 길게 빼며.
- 219) 좋기도.
- 220) 葉錢. 예전에 사용하던 낫쇠로 만든 돈.
- 221) 떠서 들어.
- 222) 家君. 아내가 남편을 이르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
- 223) 우르르.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한 곳에 몰리는 모양.
- 224)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225) 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내력.
- 226)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227) 富貴功名.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228) 孟嘗君. (1)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食客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아에서 유래함.
- 229) 둥글둥글하게.
- 230) 남의 손에 있는 돈은 치사하고 더럽다는 뜻으로 쓴 듯함.
- 231) 肉粥. 고기를 넣어 쑀 죽.
- 232) 먹기에 좋을 만큼 눅눅하고 묽게.
- 233) 끝에서.

- 234) 국물.
- 235) 後酒. 일단 술을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증류하여 내리는 술. ‘술을 내린다’는 말은 증류한다는 뜻.
- 236) 작은 물방울이 자꾸 떨어지는 소리, 또는 모양.
- 237) 고자배기처럼 자는 잠. ‘고자배기’는 풀이나 나무를 베고 남은 부분이 썩은 것. ‘고자배기잠’은 고자배기처럼 조용히 깊이 자는 잠.
- 238) 모두.
- 239) 대관절.
- 240) 秘不發說. 비밀을 지켜서 밖으로 말을 내지 않음.
- 241) 돈이네.
- 242) 生命救濟.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생명을 구함.
- 243) 절커덕. 크고 단단한 물체가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여기서는 ‘작고 단단한 것이 갑자기 툭 꺾어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
- 244)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 245) 天不生無祿之人이요, 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음. 곧 제 먹을 것과 할 일은 제각각 타고난다는 말.
- 246) ‘구멍’의 고어.
- 247)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 248) 終身. 죽을 때까지.
- 249) 좀처럼 고치기 어렵게 속으로 깊이 든 병.
- 250) 것인가?
- 251) 본디 기러기의 한 종류를 오랜 세대에 걸쳐 인가에서 기른 결과, 날개가 짧아지고 몸이 비대하게 된 변종인데, 빛은 대개 회고, 부리는 노랑고, 헤엄은 잘 치나 멀리 날지 못한다.
- 252) 목을 길게 세워 퍼듯 하며.
- 253) 兵營. 병마절도사가 있던 영문(營門).
- 254) 중국에서 들어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인 당사실로 만들어 허리에 매는 띠.
- 255) 마소의 등에 실은 짐을 배와 한 데 얹어 매는 줄. 복두끈.
- 256) 풍안(風眼). 바람과 티끌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보안경.
- 257) ‘들메다’가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끈으로 동여매다.’이므로, 여기서는 ‘벗겨지지 않게 끈으로 동여매다.’라는 뜻.
- 258) 마른 잎이나 지푸라기 따위를 갈퀴로 긁어모으는 일.
- 259) 먼지처럼 아주 잔 부스러기.
- 260)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하여 나감.
- 261) 대나무나 진흙 따위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 262) 배운 데 없이 제풀로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263)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264) 쓸데없이 늘어놓는 이야기.
 265) 高臺廣室. 높은 누대와 넓은 방. 곧 부자로 잘 사는 집을 가리킴.
 266) 好家舍. 화려하게 잘 지은 집.
 267) 이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268) 앉고 난 뒤처럼 걸음걸이가 기운이 없어 쓰러질듯 비틀거리는 모양.
 269) 大將旗. 도성이나 영문에 세워, 대장이 부하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270) 肅靜牌. 사형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떠들지 못 하도록 '肅'자와 '靜'자를 적어서 세워놓는 나무 패.
 271) 深山 猛虎 嚴容같은. 깊은 산 속 사나운 호랑이의 엄한 모습과 같은.
 272) 勇 字 붙인. '勇' 자는 군뢰(軍牢)들이 쓰던 전립(戰笠)의 앞에 돛쇠 조각으로 만들어 붙이던 글자.
 273) 군뢰사령(軍牢使令)들.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들.
 274) 순진한. 순박한.
 275) 三門間. 삼문이 있는 근처. '삼문'은 정문과 그 양쪽에 세운 두 개의 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궐이나 관청의 문.
 276) 하필이면 그 날.
 277) 推闕. 죄인을 심문함.
 278) 軍律. 군대 내의 규범이나 질서.
 279) 杖板. 매를 치는 형벌을 집행할 때, 죄인을 엎드리게 하여 팔다리를 매던 틀.
 280) 엎어져. 엎드려.
 281) 속.
 282) 궁둥이의 언저리.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 좌우 쪽으로 살이 두툼한 부분.
 283) 匹馬使令. 말을 부리는 사령. '사령'은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284) 발걸음을 크게 매우 빨리 떼며 급히 걷는 모양.
 285) 엎드려 있거늘.
 286) 감추어진 일의 내용.
 287)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네 경전과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의 세 경서를 이른다.
 288) 엉터리 글귀.
 289) 排判中. 별려서 차려놓은 동안.
 290) 처음일세.
 291) 아니라고 하던가?
 292) 본래는 '속이 몰켜져 상했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이 잘못 되었소라는 뜻으로 쓰였음.
 293) 膽차고. 대답하여 겁이 없이 아무지고.
 294) 모기의 눈처럼 작은 눈.
 295) 주걱턱. 주걱처럼 앞으로 볼썽 튀어나온 턱.
 296) 쥐 털처럼 짧고 뻑뻑이 난 수염.

- 297)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298) 빈대처럼 납작한 코.
 299) 발썌발썌하면서. 자꾸 발썌거리면서. 숫기 좋게 입을 벌려 소리 없이 방긋방긋 자꾸 웃으면서.
 300) 찌수의 아버지. ‘찌수는 찌 많은 아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
 301)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하는 짓.
 302) 番手네들. 여러 번수들. ‘번수’는 대궐이나 관청을 지키는 병사.
 303) 守番. 교대로 지키는 일.
 304) 薄福한너르. 복이 없는 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305) 損財. 손재수. 재물을 잃는 운수.
 306) 달래고.
 307) 앓고 난 뒤처럼 걸음걸이가 기운이 없어 쓰러질듯 비틀거리는 모양.
 308) 直後에. 바로 뒤에.
 309) 壇. 강 의, 행사, 의식 따위를 행하거나 관람하기 위하여 주변보다 높게 만들어 놓은 자리.
 310) 모아서 쌓고.
 311) 至誠. 지극한 정성.
 312) 뵙니다.
 313) 千萬祝手. 수없이 두 손 모아 빌.
 314) 杖毒. 매를 심하게 맞아 생긴 상처의 독.
 315) 辱.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
 316) 막내아들.
 317) 우르르.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한 곳에 몰리는 모양.
 318) 杖處. 매 맞은 자리.
 319) ‘죽은’을 함부로 일컫는 말.
 320) 울었던가봐.
 321) 아니로다.
 322) 하느님께.
 323) 절굿대춤. 흥에 겨워 절구공이처럼 뿔뿔이 서서 뛰어 오르내리며 추는 춤.
 324) ‘아주버니’의 높임말. ‘아주버니’는 남편과 향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325) 錢穀間에.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간에.
 326) 多少間.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약간.
 327) ‘매’의 낮은 말.
 328)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에.
 329)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정도나 분량.
 330)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확실함을 나타내는 말.
 331) 들은 대로, 본 대로 이리저리한 말을 아무렇게나 늘어놓아.

- 332) 까락이 길고, 껍질이 알과 딱 붙어 있어 잘 벗겨지지 않는 보리. 사료나 엿기름 등의 재료로 쓰임.
- 333) 찢지 않은 보리.
- 334) 까락이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보리. 가장 일반적인 보리로, 주로 식량으로 쓰임.
- 335) '밥의 양을 늘여주는 보리'라는 뜻으로, 따로 삶지 않고 쌀과 섞어 밥을 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눌러놓은 보리.
- 336) 이른 봄에 씨앗을 뿌려 첫여름에 거두는 부리.
- 337) 외래종 찰보리.
- 338) 지금.
- 339) 말이간? 말이야?
- 340) '보리타다'가 '매를 되게 맞다'는 뜻이므로, 몽둥이로 매를 되게 맞는 일.
- 341) 倫紀. 윤리와 기강.
- 342) 당연하네.
- 343) 다녀오겠네.
- 344) 서리 내린 추운 아침.
- 345) 추운.
- 346)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느라고) 옆으로 걸음을 걸어.
- 347) 쓸데없이 늘어놓는 이야기.
- 348) 錢穀間에.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무엇이냐.
- 349) 萬端疑心. 여러 가지 의심. 온갖 의심.
- 350) 우르르.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한 곳에 몰리는 모양.
- 351) 작은書房님. '서방님'이 예전에 평민이 벼슬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거나, 하인이 젊은 주인을 부르던 말이므로, 작은서방님은 주인의 형제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 352) 큰書房님. '서방님'이 예전에 평민이 벼슬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거나, 하인이 젊은 주인을 부르던 말이므로, 큰서방님은 주인의 형제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 353) 長利. 물건의 길이나 수효에서 본디의 것보다 절반이 더한 것.
- 354) 祭享. '제사'의 높임말.
- 355)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게.
- 356) 代錢. 대신하는 돈.
- 357) 紅東白西. 제사 때에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차리는 격식.
- 358) 左肅右醺. 제사의 제물을 범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을 때에, 육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차리는 격식을 이르는 말.
- 359) 모두.
- 360)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 361) 새벽에 맨 처음 우는 닭.
- 362) 潁水. 중국 요임금 때의 현인(賢人)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명리(名利)를 피해

- 은거한 곳으로, 중국 하남성 임영현에 있는 강의 이름. 허유가 요임금으로부터 임금을 맡아달라는 말을 듣고, 더러운 말을 들었다 하여 귀를 씻은 곳. 여기서는 '영천수처럼'이란 뜻.
- 363) 씻어서.
- 364) 껌미.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 365)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여기서는 '조상'이라는 뜻.
- 366) 映窓.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방과 마루 사이에 낸 두 쪽의 미닫이.
- 367) 얼른얼른하지. 무엇이 자꾸 보이다 말다 하지.
- 368) 몹시 놀라거나 뜻밖의 상황을 접하였을 때 갑자기 나오는 소리.
- 369) 必然. 반드시.
- 370) '남보다 먼저 선수를 침'이라는 뜻으로 쓴 듯함.
- 371) 開東軍令. 이른 새벽에 내리는 군사 행동 명령. 새벽 일찍부터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72) 미리 기침소리를 내어 곳을 지키고 있음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도둑을 접근하게 하는 행동.
- 373) 나더러. 나에게.
- 374) 陵遲處斬.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내어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
- 375) 나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 376) 빛나갔으니.
- 377) 납작하게 찬찬히 엎드리는 모양.
- 378) 엎드리며.
- 379) 衣冠. 남자의 옷옷과 갓이라는 뜻으로,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이르는 말.
- 380) 개. 듣는 이를 조금 낫잡아 이르는 말.
- 381) 今始初聞인데. 지금 처음 듣는데.
- 382) 銜字. 남의 이름자를 높여 이르는 말.
- 383) 오대째.
- 384) 獨身. 형제 없는 외아들.
- 385) 三尺童子. 키가 석 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 386) 妄發.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이나 행동을 함. 또는 그 말이나 행동.
- 387) 너머에 있는 동네.
- 388) 人命이 在天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곧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
- 389) 죽사오리카마는. 죽겠습니까마는.
- 390) 어쩔 수 없이.
- 391)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 392) 三旬九食.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 393) 妻子. 아내와 자식.
- 394) 변함없이 이제까지.
- 395) '떨쩍하게', '말끔히'의 뜻으로 쓰이는 방언.

- 396) 변함없이 이제까지.
 397) 그것도.
 398) 저것도.
 399) 술을 떠내고 남은 찌꺼기인 ‘재강’의 방언.
 400) 가는 겨. 고운 겨. ‘겨’는 벼·조·보리 등을 찼어 벗겨낸 껍질. 주로 땀감이나 사료로 사용함.
 401) 兩端間에. 둘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간에.
 402) 주신다면.
 403)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404)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405) 살고 싶습니다.
 406) 已往. 既往. 이미 그렇게 된 바에.
 407) 거기. 거기에.
 408) 東面. 지명. 남원시 동면.
 409) 石. 곡식을 재는 부피의 단위. 약 180리터.
 410) 北面. 동면에 이어 지어낸 가상의 지명.
 411) 조. 노란 색의 작고 둥근 모양으로 된 곡식.
 412) 年前. 몇 년 전.
 413) 정하게 다듬지 않고 거칠게 대강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건목 치다’는 정하게 만들지 않고 건목으로 대강 만들다.
 414) 잘라다가. ‘치다’는 나뭇가지 등을 낫으로 잘라내다.
 415) 식혀버릴 놈. 곧 죽일 놈이라는 뜻.
 416)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417) 형편이나 위세 따위가 굽히는 데 없이 당당하게.
 418) 몇 말의 쌀.
 419) 南大廳. ‘대청’은 한옥에서 집 몸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로서, 세 개의 대청이 있다. 남대청(南大廳)은 동대청(東大廳), 서대청(西大廳)과 더불어 세 개의 대청 중 하나이다.
 420) 뒤주. ‘뒤지’라고도 함. 쌀 따위를 담아두는 세간. 나무로 껍짝같이 만들되,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 부분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421) (봉해 두거나 일정한 분량의 단위로 한정된 물건을) 꺼내어 먹거나 쓰기 시작하며.
 422) 몇 섬 정도의 벼.
 423) 天祿方. ‘천록방’은 이사할 때 방위를 보는 구궁수의 하나로서 길한 방위로 친다. 곧, ‘하늘이 내린 복록이 들어찬 방’이란 뜻으로, 공간에 붙인 이름.
 424) 가리露積. 노적가리. 한테에 쌓아둔 곡식 더미.
 425) 다물다물하게. ‘다물다물’은 물건이 무더기로 쌓인 모양.
 426) 몇 냥의 돈.
 427) 玉堂房. 불명. 화려하게 꾸민 방을 의미한 말인 듯.
 428) 龍木櫃. 용목으로 만든 켜. ‘용목’은 느티나무의 뿌리나 옹이 부분을 켜 목재. 무늬가

아름다움.

- 429) 貫. 열 냇을 단위로 한 엽전 열 꾸러미. 꿔.
- 430) 貫돈. 관을 지어 묶어 놓은 돈. 열 냇씩 꿔어 뭉치를 만들어 놓은 돈.
- 431) 黃鸝. 털이 누런 닭.
- 432) 白鸝. 털이 하얀 닭.
- 433) 날갯죽지를 툭툭 치고. 닭이 울기 전에 날개를 먼저 툭툭 치는 모양을 가리킴.
- 434) 술을 떠내고 남은 찌꺼기인 '재강'의 방언.
- 435) 句陳房. '구진'은 별의 이름으로 북극에 가장 가까운 여섯 별 중의 하나, 혹은 주되는 궁전의 뒤쪽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이므로, '구진방'은 뒤쪽에 있는 방이라는 의미로 쓰인 듯함.
- 436) 돼지떼.
- 437) 돼지.
- 438)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새암.
- 439)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 440) '머리'를 낮잡아 일컫는 말.
- 441) 오겠습니다.
- 442) 달랄. 달라고 할.
- 443) 빨리 뛰어가고.
- 444) 시아주버니. 남편의 남자 형제간.
- 445) 必然. 반드시. 꼭.
- 446) 사슴과 동물의 하나. 노루의 일종으로 몸의 길이는 90cm 정도로 작으며, 여름에는 붉은갈색, 가을에는 잿빛갈색이다. 암수 모두 뿔이 없으며, 송곳니가 밖으로 나와 있고, 5월 경에 새끼를 낳는다.
- 447) 길목. 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귀.
- 448) 차지하듯.
- 449) 中門.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하는 문.
- 450) 아주머니.
- 451) 丈八이나. 일 장 팔 척이나. 매우 높이. 훨씬.
- 452) 높것다. 심하것다.
- 453) '아주버님'을 속되게 일컫느라고 만들어낸 말. '아주버니'는 남편과 같은 항렬에서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 454) '도마뱀'의 방언. 아주뱀에 이어서 비꼬아 일컫은 말.
- 455)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면.
- 456) 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 상대방을 낮추어 일컫는다.
- 457) 靈山굿. 농악 가락의 한 가지. 전라좌도 농악의 가장 특징적인 가락의 하나이다.
- 458) 농악에서, 매우 빠른 빠르기로 몰아가는 가락을 이르는 말. 겹다드래기, 삼차다드래기, 영산다드래기, 잔다드래기, 홀다드래기 따위가 있다.
- 459) 밭알.

- 460) 들러붙었구나. 끈기 있게 찰싹 붙었구나.
 461) 본디 모습대로 멀쩡한.
 462) 바닥 따위가 내려앉아 빠지는.
 463) '시아주비'의 방언.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464)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465) 殺之. 죽임. 죽이는 일.
 466) '중장으로 치다'는 뜻으로 쓴 말인 듯. '중장(重杖)'은 몽둥이로 몹시 치는 형벌.
 467) 凌遲. 능지처참(凌遲處斬). 대역 죄인에게 과하던 최대의 형벌. 머리, 양팔, 양다리, 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키는 형벌.
 468) 撲殺. 때려 죽임.
 469) 閻羅國.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저승'을 달리 일컫는 말.
 470) 細細冤情. 자세한 억울한 사정.
 471) 아될 것인데.
 472) 작대기. 주로 무엇을 버티는 데 쓰는 기름한 막대기.
 473) 우르르.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한곳에 몰리는 모양.
 474) 되물어 강조할 때 쓰는 말.
 475) 몸에 휘감았소? 예전에 돈을 전대에 넣어 몸에 감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
 476) 심하게.
 477) 數年. 여러 해.
 478) 여기서는 닭이 죽을 때 내는 소리.
 479) 사고.
 480) (음식이)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게.
 481) 따로 마련해.
 482) 公論하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고.
 483) 되는 대로 뭉쳐 싸서.
 484) 江亭모퉁이. 정자가 있는 강가의 모퉁이.
 485) 갑자기 나타나더니마는.
 486) 錢糧. 돈과 양식.
 487) 손바닥을 얹어서 때리는 뺨.
 488)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경련을 일으켜 갑자기 오그라들거나 뻣치어 굳어지는 현상.
 489) 궁중으로 떠올랐다가.
 490) 절커덕. 단단한 물건이 세게 맞부딪쳐 달라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491) 이렇다고 해도
 492) 저렇다고 해도.
 493) 錢穀. 돈과 곡식.
 494) 몹쓸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495) 國亂에는 思良相이요, 家貧에는 思賢妻라.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하고,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

- 496) 일하는 모양이 꼼꼼하고 정성을 들인 데가 있으면, 여기서는 반어법으로, '꼼꼼하지 못하고 정성을 들인 데가 없으면'이라는 뜻으로 쓰임.
- 497) 家長. 남편.
- 498) 豪奢.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런 사치.
- 499) 舉動.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 500) 모자 위를 둥글게 대로 만든 것. 벼슬을 가진 중이 썼다.
- 501) 長衫. 검은 베로 만든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중의 옷.
- 502) 念珠.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 503) 團珠. 밤톨 만하게 깎은 나무 구슬 여덟 개로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504) 白銅. 구리·아연·니켈의 합금.
- 505) 半銀粧刀. 은을 전체 쇠붙이 양의 반쯤이 되게 넣어 만든 은장도.
- 506) 웃고름의 안에다 되게 차. 웃고름의 안에다 바짝 매어.
- 507) 龍頭 새김. 용의 머리 모양을 새겨 붙임.
- 508)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509) '채'가 '머리카락이나 수염 따위가 길게 늘어진 것'을 가리키므로, '채고리'는 '길게 늘어진 고리'라는 뜻인 듯.
- 510) 念佛. 불경을 외는 일.
- 511) 절에 들어가도.
- 512) 절에서 나가서도.
- 513) 極樂世界.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로서, 아미타불이 늘 설법하고 있으며 근심과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
- 514) 南無阿彌陀佛. 염불하는 소리의 한 가지.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원한다는 뜻의 말.
- 515)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높임을 받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면서 부처의 교화를 돕는다고 함.
- 516) 上來所修功德海. 여태까지 닦은 공과 덕이 바다처럼 넓음. 불경 축원문의 한 구절.
- 517) 回向三千大千世界. 염불하여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니,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도다.
- 518) 奉位.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불상을 밝히는 등 밑에 받들어 붙이는 일.
- 519) 主上殿下.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520) 引導하면서. 본래는 '중생을 이끌어 불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의 뜻인데, 여기서는 다만 '염불을 하면서'의 뜻으로 쓰였음.
- 521) 死生이 未判이라. 생사가 구분이 되지 않기로. 곧 죽게 생겼으므로.
- 522) 木鐸. 절에서 불공을 할 때나 사람을 모이게 할 때 두드려 소리를 내는 기구. 둥글넓적하게 다듬은 나무토막 속을 파서 방울처럼 만듦.
- 523) 白髮 老僧. 머리털이 흰 늙은 중.

- 524) 서 있지.
- 525) 大師. '남자 중'을 높이어 일컫는 말.
- 526) 오셨습니까?
- 527) 道士. 도를 닦는 사람.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
- 528) 家勢. 집안의 운수나 살림살이 따위의 형편.
- 529) 세 발. '발'은 양 팔을 짝 벌린 길이.
- 530) 물건. '세 발 장대로 저어도 거칠 문적이 없다'는 말은 아무 것도 가진 물건이 없다는 말.
- 531) 施主. 절에 물건을 배풀어줌.
- 532) 厚히. 너그럽게. 많이.
- 533) 小僧. 중이 남에게 대하여 자기를 겸손하게 일컫는 말.
- 534) 乞僧. 모든 생업을 끊고 밥을 빌어먹으면서 수행하는 중.
- 535) 貴宅. 상대방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 536) 死生이 未判이오니. 생사가 구분이 되지 않으니. 곧 죽게 생겼으므로.
- 537) 眷率. 한 집안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 538) 可矜. 가련함. 불쌍함.
- 539) 裁穴. 풍수지리설로 따져 썩 좋다는 명당 자리에 집터를 정하고 마련하는 것.
- 540) 산모퉁이. 산모퉁이의 휘어 돌린 곳.
- 541) 高峰. 높은 산봉우리.
- 542) 산봉우리 이름.
- 543) 明堂. 풍수지리에서 장차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뗏자리나 집터
- 544) 天下의 第一江山.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 545) 岳陽樓. 중국 호남성 익양현에 있는, 동정호가 잘 보이는 성루. 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라는 시로 더욱 유명해졌음.
- 546) 壬坐丙向午門. 임방(壬方), 곧 북북서쪽을 등지고, 병방(丙方), 곧 남남동쪽을 향하게 하고, 오방(午方), 곧 남쪽으로 문을 냄.
- 547) 성조(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548) 明年. 내년. 다음해.
- 549) 億十萬金. 많은 돈.
- 550) 長者. 큰 부자.
- 551) 三代進士. 삼 대에 걸쳐 연이어 진사가 남.
- 552) 五代及第. 오 대에 걸쳐 연이어 과거에 급제를 함.
- 553) 兵監司. 병사나 감사. '병사'는 병마절도사. '병마절도사'는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 '감사'는 조선조 때 각 도를 다스리던 관찰사를 달리 이르는 말.
- 554) 的實하니. 틀림이 없으니.
- 555) 因忽不見. 갑자기 보이지 않음.
- 556) 道僧. 불도를 닦아 깨달은 중.
- 557) 땅을 파고 거적으로 위를 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게 한 허름한 집.
- 558) 겨릅대. 껍질을 벗겨낸 삼(麻)의 줄기.

- 559) 겨울 冬 字. 겨울 ‘동(冬)’이라는 글자.
- 560) 갈 去 字. 갈 ‘거(去)’라는 글자.
- 561) 삼월삼짇날. 음력 3월 3일.
- 562) 올 來 字. 올 ‘래(來)’라는 글자.
- 563) 봄 春 字. 봄 ‘춘(春)’이라는 글자. 앞부분부터 이어서 보면, ‘동겨래춘’이 되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뜻이 됨.
- 564) 나비 접(蝶) 자(字). ‘나비 접’이라는 글자.
- 565) 춤출 무(舞) 자(字). ‘춤출 무’라는 글자. 앞 구절과 연결하면 나비들이 춤을 춘다는 말.
- 566) 기는. 기어다니는.
- 567) 짐승 獸. 짐승 ‘수(獸)’라는 글자.
- 568) 새 鳥. 새 ‘조(鳥)’라는 글자.
- 569) 雙雙往來. 짝을 지어 오라가락함.
- 570) 제비 燕 字. 제비 ‘연(燕)’이라는 글자. 곧 제비를 가리킴.
- 571) 날 飛 字. 날 ‘비’라는 글자.
- 572) 찌꼬리가 날개를 치며 나는 소리를 흉내낸 말.
- 573) 노래 歌 字. 노래 가라는 글자. 곧 노래를 부른다는 뜻. 위의 글자를 모두 합치면 ‘冬去來春蝶舞 獸鳥燕飛歌’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나비가 춤추고, 짐승, 새, 제비가 날며 노래한다’는 뜻이 됨.
- 574) 살 菩薩이 생기는데. 관세음보살의 도움으로 차차 살아갈 방법이 생기는데.
- 575)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와서.
- 576) 성조(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577) 窮僻江村. 매우 후미지어 으스스한 시골.
- 578) 詔之飛之. 새가 날면서 오르락내리락함.
- 579)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 580) 대를 엮어서 만든 밭.
- 581)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
- 582) 折脚之患. 다리가 부러지는 재앙.
- 583) 唐絲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 584) 去中. 공중.
- 585) 九萬長天. 구만 리나 되는 높고 넓은 하늘.
- 586) 恨하지. 한스럽게 생각하지.
- 587) 옛날의.
- 588) 孫嬪. 제나라의 뛰어난 병법가. 후에 위나라의 장수가 된 방연(龐涓)과 함께 일찍이 귀곡선생에게 배웠는데, 위나라에 있을 때, 그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참소에 의해, 발꿈치를 잘라내고 얼굴에 먹 글씨를 넣는 형벌을 받았다. 이 때 사신으로 와 있던 제나라 손우곤이 그를 몰래 빼내 데려다가, 제나라 위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군사(軍師)가 되어, 위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나라를 도와, 방연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쳐부수자, 방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589) 兩足. 두 다리.

- 590) 齊나라. 중국 춘추시대에 산둥성 일대에 있던 나라. 기원 전 1123년에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에게 봉하여 준 나라로, 기원전 386년에 가신인 전씨(田氏)에게 빼앗겼다.
- 591) 楚漢 적.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때.
- 592)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 때 그는 '교토사주구굉(狡兔死走狗烹)'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593) 一支手が 없었으되. 손 하나가 없었으나.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를 따랐으나, 자기의 계책이 쓰이지 않으므로 도망하여 한나라에 들어갔다. 승상 소하는 그를 비범한 인물로 보고 추천하였으나, 임금이 흘려 듣자, 한신은 이에 크게 낙담하여 한나라로부터 도망하였다. 소하는 한신이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임금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쫓아가 붙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하까지 도망하였다고 말하여, 임금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이 낙담하여 크게 화를 냈다. 이 사설에서 한신이 손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고조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했다(如失左右手)'는 《사기(史記)》의 기록의 와전이다.
- 594) 大將壇. 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위하여 나아가 서는 곳.
- 595) 一軍皆驚. 온 군사가 모두 놀람. 한나라 고조가 승상 소하의 뜻을 따라, 날을 가려 단을 쌓고, 장군을 맞이할 예의를 갖춘 뒤에 한신에게 대장을 제수하자, 제가 대장으로 뽐히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함.
- 596) 萬里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지방.
- 597) 빨리.
- 598) 忽然히.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 599) 김치나 깎두기 따위를 담은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 600) 快히. 시원스럽게.
- 601) 江南之杜鵑은 祖宗之望帝라. 강남의 두견새는 임금 중의 촉나라 망제이다. 임금 중에서 촉 나라 망제의 닮아있다. 망제는 주나라 말기에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를 말하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 그 닮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602) 百鳥. 온갖 새.
- 603)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604) 칼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 605) 들어오는데.
- 606) 상처가 나으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톰해져서.
- 607) 절뚝절뚝.

- 608) 졌느냐?
- 609)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610) 아뢰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611) 갸사오리카. 갸겠습니다까.
- 612) 十分. 아주 충분히.
- 613) 洞燭. 특별히 깊게 헤아림.
- 614) 善心. 착한 마음.
- 615) 明春. 내년 봄.
- 616) 報恩袍. 은혜를 갚는 박.
- 617) 將令. 장수의 명령.
- 618) 때문에.
- 619) 患. 근심과 재난.
- 620) 때는.
- 621) 福德日. 생년월일의 간지(干支)를 팔괘로 나누어 가린 좋은 날의 하나.
- 622) 三冬. 겨울 석 달.
- 623) 三春. 봄 석 달.
- 624) 方壯하니. 바야흐로 한창이니.
- 625) 還國.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귀국.
- 626) 路程記. 여행할 길의 경로와 거리를 적은 기록. 여행하는 경로를 노래한 노래.
- 627) 黑雲. 검은 구름.
- 628) 발길로 힘껏 차고.
- 629) 去中에. 공중에.
- 630) 西蜀. 중국의 사천성을 이르는 말.
- 631) 咫尺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 632) 蒼茫. 넓고 멀어서 아득함.
- 633) 祝融峰. 중국 호남성 형산현 서북쪽에 있는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 634) 朱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로 붉은 봉황으로 그려져 있는데, 남방의 신이라 한다.
- 635) 넘나들면서 논다.
- 636) 黃牛土·黃牛灘. ‘황우토’는 중국 호북성 이창현의 서쪽에 있는 황우산을 말하는데, 그 산의 절벽 아래로 ‘황우탄’이 흐른다.
- 637) 鳥鵲橋. 황우탄 위의 다리를 전설 속의 오작교로 가정하여 이른 듯함.
- 638) 吳楚東南. 동정호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오나라와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를 싸잡아 일컫는 말.
- 639) 遠浦歸帆. 바다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소상팔경의 하나.
- 640) 水碧沙明兩岸苔 不勝清怨却飛來.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른데,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움 못 이기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 641) 一點二點. 하나 둘씩.
- 642)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 643) 白鷗. 갈매기.
- 644) 白鷺. 왜가리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리·목·다리는 길고, 두루미와 비슷하나 다소 작다.
- 645) 滄波上. 푸른 물결 위.
- 646) 夕陽村. 저물 무렵의 마을. 소상팔경 중 어촌석조(漁村夕照)를 가리킴.
- 647) 回雁峰. 중국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중의 하나. 기러기가 이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북쪽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648) 黃陵廟. 요 임금의 두 딸이자, 순 임금의 두 왕비였던 이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 649) 二十五弦彈夜月.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탐.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 650) 斑竹枝. 소상강에서 난다는 알록 무늬가 있는 대나무의 가지.
- 651) 杜鵑聲. 두견새의 소리.
- 652)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653)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의 동남쪽에 있는 누대.
- 654) 鳳去臺空江自流다.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비었는데, 그 아래로 강물만 흐른다.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 655) 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창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누대.
- 656)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다.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황학은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 년을 유유히 떠서 흐른다. 최효의 시 〈황학루(黃鶴樓)〉의 한 구절.
- 657) 金陵. 남경의 옛 이름.
- 658) 酒肆村. 술집이 있는 마을.
- 659) 空宿窓外桃李開. 홀로 자는 창 밖에 복숭아꽃 오얏꽃이 피어 춘정을 더하는구나.
- 660) 落梅花를 툇 차서 舞筵에 펄럭 떨어치고,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발로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고, 두보의 시 〈성서피범주(城西陂泛舟)〉의 한 구절인 ‘연죽비화낙무연(燕蹴飛花落舞筵)’(제비가 떨어지는 꽃잎을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다)를 변형한 것임.
- 661) 終南山. 중국 산시성 서안시 동남쪽에 있는 높이 약 1200m의 산.
- 662) 二水. 중국 광서성 홍양현에서 시작되어 상수(湘水)와 나뉘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삼강과 합쳐져 서강(西江)이 되는 강. 상수와 나뉘기 때문에 ‘이수(二水)’라고 함.
- 663)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 664)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字)가 자방. 뛰어난 지략가로 한나라의 고조를 도운 개국공신이었으나, 뒤에는 벼슬을 내놓고 물리나와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선도에 기울어 동해의 신선인 적송자와 놀았다 함.

- 665)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 666) 七星壇. 북두칠성을 모시는 제단. 공명이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병산에 쌓았던 제단.
- 667) 燕齊之間. 옛 중국의 연나라와 제나라의 사이.
- 668) 長城. 만리장성을 가리킴.
- 669) 礪石山. 중국 요동에 있는 산.
- 670) 燕京. 북경의 옛 이름.
- 671) 皇極殿. 명나라 때 궁궐에서 천자가 정치를 하기 위하여 나가 앉던 곳.
- 672) 萬戶長安. 수많은 집이 가득한 서울.
- 673) 正陽門. 북경성의 정남쪽 문.
- 674) 上達門. 북경성 안의 17리에 걸쳐 이어진 자금성의 아홉 문 중의 둘째 문인 '천안문(天安門)'을 가리킨 듯함.
- 675) 鳳關. 지명인 듯하나 분명하지 않음. 이를 동관(潼關)으로 보면, '동관'은 북경과 요동 사이에 있는 지명임.
- 676) 薩·彌勒. 보살과 미륵.
- 677) 百이로다. 백 개나 된다. 곧 많다는 말.
- 678) 寧古塔: 중국 흑룡강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
- 679) 統軍亭: 의주의 서북쪽 압록강가의 높은 데에 있는 경치가 좋은 정자
- 680) '안쪽에 가까이 있는 남산과 바깥쪽에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붙인 이름.
- 681) 石壁江. 의주 가까이에 흐르는 강 이름인 듯함.
- 682) 龍川江. 평안북도 용천에 있는 강 이름인 듯함.
- 683) 左右嶺. 가상의 고개 이름인 듯.
- 684) 부산 擺擺. 부산한 파발. '파발'은 공문 따위를 급히 전하려고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한, 역마를 갈아타던 곳, 또는 그 공문을 나르던 사람.
- 685) 換馬고개. 말을 갈아타는 고개라는 뜻을 지닌 고개 이름인 듯. '환마(還馬)'는 금의환향이라는 뜻이므로, 환마를 '還馬'로 보면, '환마고개'는 금의환향하는 고개라는 의미임.
- 686) 북쪽 20리에 있는 다리.
- 687) 七星門. 평양 모란봉에 있는, 고구려 평양성의 내성 북문. 6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
- 688) 練光亭.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정자. 대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덕암(德岩)이라는 바위 위에 있는데, 조선조 중종 때 세워졌음.
- 689) 浮碧樓.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누대.
- 690) 長林. 길게 펼쳐진 수풀.
- 691) 松都. 개성의 옛이름.
- 692) 滿月臺. 개성 송악산 밑에 있는 고려 왕궁터.
- 693) 觀德亭. 개성에 있는 고려 때의 정자.
- 694) 朴淵瀑布.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폭포. 개성(開城)에서 40리 가량 되는 천마산(天摩山)에 있으며, 부근에는 약수가 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695) 時刻에. 빨리.

- 696) 三角山. 서울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697) 地勢. 땅의 형세.
 698) 天龍.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이루는 큰 산세를 몰고 내려오는 가장 큰 산줄기.
 699) 大元脈.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
 700) 中嶺. 산줄기의 중간 마루.
 701) 굽이쳐 흘러내려.
 702) 金華. 인왕산 옆의 금화산.
 703) ‘계산(桂山)’의 와전인 듯. 오늘날의 종로구 계동 일대의 산줄기.
 704) 分界. 나뉘는.
 705) 春塘. 창경궁 안의 춘당대(春塘臺).
 706) 迎春. 경복궁의 동쪽 문인 영춘문(迎春門).
 707) 道峰. 도봉산(道峰山).
 708) 望月이. 산봉우리 이름인 듯.
 709) 彬彬하고. 빛나고.
 710) 嬉嬉하여. 기쁘고 즐거워.
 711)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 동안의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금탕’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 성은 쇠와 같고, 성을 둘러싼 연못은 끓는 물과 같다는 말로, 방어가 튼튼함을 가리키는 말.
 712) 어름에. 두 지역이 맞닿은 곳에.
 713) 지체없이 빨리.
 714) 七牌. 칠패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715) 八牌.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붙인 이름.
 716)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다리 이름인 듯.
 717) 아야고개. 오늘날의 이태원 고개.
 718) 銅雀江. 동작동에 가까이 흐르는 한강의 한 지류.
 719) 越江. 강을 건넌.
 720) 僧房. 남태령과 동작강 사이에 있는 지명인 듯.
 721) 南泰嶺. 동작동과 과천 사이의 고개.
 722) 죽지. 새의 날개가 몸에 붙은 부분.
 723) 수르르. 새가 부드럽게 날아오르는 모양.
 724) 堂上堂下 飛去飛來. 집 치마 위 아래로 날아오고 날아감.
 725) 翩翩히. 가볍게 훨훨 날아.
 726) 黑龍. 검은 빛깔의 용.
 727)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여 붙은 이름.
 728) 彩雲間.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구름 사이.
 729) 오락가락하며 날아다니는.
 730) 丹山. 봉황새가 산다는 전설 속의 산.
 731) 竹實. 봉황이 먹고 산다는, 대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

- 732) 黃鶯. 노란 꾀꼬리.
- 733) 細柳中. 바는 버드나무 가운데.
- 734) 北風寒窓雁飛高. 북녘의 찬 바람이 나그네의 창가에 몰아치는데, 기러기는 하늘 높이 날아간다.
- 735)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 736) 有日有巢. 엷은 남기 爲巢次로 네 갔더냐. 유소씨가 엷어놓은 나무를 보금자리로 삼으려고 네가 갔었느냐. ‘유소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성인으로,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엷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함.
- 737) 遠村眞村. 먼 동네, 진짜 동네. 곧 강남을 제비의 먼 마을이며,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쓴 듯함.
- 738) 欲向靑山の 問杜鵑. 청산에 가서 두견새에게 (제비에 관한 소식을) 물으려 함.
- 739) 天道地道. 하늘과 땅의 이치. 자연의 이치.
- 740) 건축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 741) 知之知之. 主知主知 去之年至 又之拜요, 落之脚之 折之燕之 恩至德至 酬之次로 含之匏之 來之拜요.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나, 한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 또한 지니고 있음. ‘아시는지요, 아시는지요? 주인님, 주인님. 떠나갔던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떠나갔던 제비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신 은덕을 갚으려고 박씨를 물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 742)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743) 괴이(怪異)하게. 이상야릇하게.
- 744) 급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침착하게.
- 745) 折骨兩脚. 뼈가 부러진 두 다리.
- 746) 宛然. 매우 분명함.
- 747) 唐絲絲. 중국에서 들어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 748) 알록달록하니.
- 749) 報恩匏. 은혜를 갚을 박.
- 750)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751) 白雲間. 흰 구름 사이.
- 752) 주워.
- 753) 蓮實인갑소. 연실인가 봄니다. ‘연실’은 연꽃의 열매. 약으로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연밥.
- 754) 나무라는 뜻으로 하는 말.
- 755) 當치. 마땅하지.
- 756) 初夜薄明. 초저녁 희미하게 밝은 때.
- 757) 모두.
- 758) 수라고 하는. ‘수’는 누구인지 불명.
- 759) 短牆. 낮은 담.
- 760) 거름기가 직접 씨앗에 닿지 않도록 흰 짚싹을 넣고.

- 761) 다독다독. 흠이지기 쉬운 물건을 모아 잇따라 가볍게 두드려 누르는 모양.
 762) 툼툼없이 튼튼하게.
 763) 數日. 며칠, 여러 날.
 764) 세차게 올라오는데.
 765) 복채 만하게 되었다.
 766)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둥글고 길게 만든 도구.
 767) 비나 햇볕을 막기 위하여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것.
 768) 九年之水. 중국 요임금 때 9년이나 계속된 큰 홍수.
 769) 萬無하고. 전혀 없고.
 770) 地動. 지진.
 771) 大名日. 큰 명절날.
 772) 先山. 조상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
 773) 원수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 조각.
 774) 墓 쓰기에가. 묘 쓰기에.
 775) 三神帝王님. 민속에서 아기 낳는 일을 맡은 삼신을 높여 이르는 말.
 776) 짚자리에 떨어뜨릴 적에, 곧 태어날 때에. 옛날에는 짚을 깔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
 777) 命. 목숨.
 778) 壽福.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일.
 779) 點指. 무엇이 생기는 것을 미리 지시해 줌.
 780) 北斗七星님. 민속에서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
 781) 高臺廣室. 높은 누대와 넓은 방. 곧 부자로 잘 사는 집을 가리킴.
 782) 好家舍. 화려하게 잘 지은 집.
 783) 이놈의.
 784) 三旬九食. 30일에 아홉 번 식사를 할 정도로 굶으며 지냄.
 785) 家長. 남편.
 786) 浮黃.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787) 餓死之境. 굶어죽을 지경.
 788) 동네 사람 보기에 남부끄럽네.
 789) 박의 안에 씨가 박혀 있는 하얀 부분. 씨가 있는 부분은 버리고, 살만 곱아서 식용으로 씹.
 790) 스프링. 물건이 쏠리면서 조금 크고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791) 슬근. 물체가 서로 맞닿아 가볍게 스치며 자꾸 비벼지는 모양.
 792) 抱恨. 한을 품음.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
 793) 내게로.
 794) 툼같은 기구를 써서 밀었다 당겼다 하여 갈라지게 해서.
 795) 保命. 목숨을 온전하게 지킴.
 796) 툼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797) 맞이하소. 두 편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부르는 것을 가리킴.

- 798) 집 안에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9) 껌데기.
 800) 櫃.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
 801) 祖上櫃.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껌.
 802) 官家. 벼슬아치들이 나랏일을 보던 집. 시골 사람들이 그 고을 수령을 이르던 말.
 803) 사람의 도량이나 씀씀이.
 804) 널벽지. 높이가 낮고 주둥이와 밑바닥이 비슷하게 넓은 옹기그릇을 일컫는다.
 805) 좋지 않은. 나쁜.
 806) 피하여 달아날.
 807) 사립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단 문.
 808) 힘 있게 저어서 움직일.
 809) 開拆. 보통 아래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서류의 겉봉에다 뜯어보라는 뜻으로 적는 글.
 810) 아무럼. 더 말할 것 없이 그렇다는 뜻.
 811) 御白米. 임금에게 바치던 질 좋은 쌀.
 812) 판소리 장단의 한 가지로, 아주 빠른 4박자이다.
 813) 장단을 급하게 쳐놓고.
 814) 말이나 되, 흙 등으로 분량을 헤아려 덜어내고.
 815) 一萬 九萬 石. 많은 쌀을 우습게 일컬은 것임.
 816) 一萬 九萬 兩. 많은 돈을 우습게 일컬은 것임.
 817) 會計. 셈. 계산.
 818)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거기에 무엇을 꿰는 것.
 819) 孟嘗君. 맹상군은 (1)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 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 식객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820)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821) 富貴功名.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822) 건너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
 823) 伯父님. 큰아버님.
 824) 慶事. 기쁘고 좋은 일.
 825) 藉勢. 빼기고 으스댐.
 826) 門前乞食. 남의 문 앞에서 밥을 빌어먹음.
 827) 石崇. 진(晉)나라 때의 대부호(大富豪)로서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팔왕의 난'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828) 陶朱公.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句踐)의 충신인 범여를 가리킴. 본디 초나라

- 사람으로, 자는 소백(小伯).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죽여 원수를 갚게 했는데, 후에 제나라에서 크게 치부하였음.
- 829) 饑民을 줄란다. ‘기민을 주다’는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다’라는 뜻.
- 830) 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831) 都合. 모두 합한 셈.
- 832) 每名下. 한 사람당.
- 833) 아주 되고 꼬들꼬들한 밥.
- 834) 발채. 지게에 얹어서 짐을 싣는 물건. 싸리나 뗏조각으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만들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음.
- 835) 부려.
- 836) 間. 넓이의 단위. 건물의 칸살의 넓이를 잴 때 쓴다. 한 간은 보통 여섯 자 제곱의 넓이이다.
- 837) 令. 명령.
- 838) 軍律.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대 내의 규범이나 질서.
- 839) 누에의 마지막 잠힌 밥. 누에가 완전히 컸을 때 먹는 밥이므로 많이, 빨리 먹는다.
- 840) 배운 데가 없이. 갖추어진 학문이나 지식이 없이.
- 841) 기괴한 여자 모양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던 유랑 연예인.
- 842) 장난감의 하나. 장구 모양의 작은 나무토막에 실을 걸어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며 논다.
- 843) 재빠르게 센 힘으로 빼앗거나 훔치듯.
- 844) 長短. 전통음악에서 박자, 또는 리듬을 가리키는 말.
- 845) 여자와 망탕하게 놀아나는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말.
- 846) 관소리 장단의 한 가지로, 아주 빠른 4박자이다.
- 847) 다르르. 어떤 일에 능통하여 막힘없이 잘하는 모양.
- 848) 빠르게 만들어 놓고.
- 849) 밥을 던지는 손.
- 850) 느려지던가.
- 851) 누룽지.
- 852) 喪主. 주가 되는 상제. 대개 장자가 된다.
- 853) 祭廳. 장사 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옆에 마련한 곳.
- 854) 여러 사람이 모여 밥을 먹는 곳.
- 855) 너희.
- 856) 돌아가신다. 죽는다.
- 857) 어떻다고 하느냐?
- 858)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임금’을 이르는 말.
- 859) 거동령. 임금이 나들이를 한다는 명령.
- 860) 먹으니까.
- 861)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862) 萬乘天子. 만 대의 전차를 가진 천자.
- 863) 食以爲大. 먹는 것이 제일 큰 일임.
- 864) 따오너라.
- 865) 외배미 들. 한 배미로 된 들. 곧 그렇게 평평한 넓은 들. '배미'는 논이 한 구역.
- 866) 億十萬金. 많은 돈.
- 867) 素砂 들. 충청북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 868) 數萬金. 여러 만 냥이 되는 돈. 곧 많은 돈.
- 869) 富益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됨.
- 870) 江上. 강물 위.
- 871) 제가. 자기가.
- 872) 신고.
- 873) 才談.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말.
- 874)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875) 나를.
- 876) 萬乘天子. 만 대의 전차를 가진 천자.
- 877) 食以爲大. 먹는 것이 제일 큰 일임.
- 878) 외배미 들. 한 배미로 된 들. 곧 그렇게 평평한 넓은 들. '배미'는 논이 한 구역.
- 879) 億十萬金. 많은 돈.
- 880) 素砂 들. 충청북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 881) 數萬金. 여러 만 냥이 되는 돈. 곧 많은 돈.
- 882) 富益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됨.
- 883) 遙看扶桑三百尺. 삼백 자나 되는 높은 높이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해 뜨는 곳.
- 884) 日光綴. 옛 비단의 일종. 해나 햇빛 무늬를 놓음.
- 885) 姑蘇臺. 춘추 시대 오나라 임금 부차가 고소산에 지은 누대.
- 886)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있는, 동정호가 잘 보이는 성루.
- 887) 謫仙峨嵋가 月光綴. 적선(謫仙)의 아미산월가(峨嵋山月歌)의 월광단(月光綴)을 뜻함. 이 적선, 곧 이태백이 쓴 시 <아미산월가(峨嵋山月歌)>에 나오는 달을 그려 넣은 월광단.
- 888)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던 선녀.
- 889) 瑤池宴.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 890) 進上하던. 바치던. '진상'은 임금님께 물건을 바치는 것을 말함.
- 891) 天桃紋.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복숭아를 그려놓은 비단.
- 892) 天下九州. 고대 중국에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개의 주. '온천하'를 뜻함.
- 893) 山川草木. 산과 냇물과 풀과 나무. 온갖 자연.
- 894) 地圖紋. 지도가 그려진 비단.
- 895) 太白.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 태백은 그의 자(字).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젊어서

- 여러 나라를 유람하고 뒤에 벼슬을 하였으나 안사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다. 칠언절구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 896) 騎鯨上天後,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백은 신선이 되어 고래를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 897) 風月, 음풍농월(吟風弄月),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읊.
- 898) 漢緞,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하나.
- 899) 洞庭, 동정호, 중국 호남성 북동쪽에 있는 호수. 여러 강이 흘러들며, 호수 안에는 악양루라는 누대가 있다.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 900) 丈夫, 대장부,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901) 松琴緞, 가상의 비단 이름인 듯.
- 902)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하였다는 말.
- 903)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904) 大緞, 한단(漢緞), 중국에서 나던 비단의 하나.
- 905) 南陽 草堂, 중국 하남성 남양현에 있던, 제갈량이 벼슬에 나가기 전에 살던 집. '초당(草堂)'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역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906) 景, 경치.
- 907) 臥龍緞, 용이 새겨진 비단. 제갈량의 호가 와룡이었으므로 지어 붙인 이름.
- 908) 玉京,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산다는 서울.
- 909) 仙官, 신선세계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선.
- 910) 金線, 금으로 선을 넣은 비단이란 뜻으로 지어낸 비단 이름인 듯.
- 911) 千古日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빛나는 해와 달.
- 912) 明絢,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 913) 四海, 온 세상.
- 914) 紛紛, 시끄러운 모습.
- 915) 雷鼓喊聲, 천둥이 치듯 큰 소리가 남.
- 916) 永綃緞,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모초(毛綃)와 비슷한데 품질이 조금 낮음. '영초(英綃)'라고도 함.
- 917) 風塵, 바람에 불려 일어나는 티끌. 여기서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티끌, 곧 전쟁을 가리킴.
- 918) 太平乾坤, 태평한 온 세상.
- 919) 大願緞, '큰 소망을 담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만든 가상의 비단 이름.
- 920) 念佛打令, 《유예지》에 전하는 곡 이름의 하나. 현행 영산회상 중 일곱째 곡인 염불환입 초장의 첫째 장단에서 스무째 장단에 해당하는 곡. 여기서는 그저 민속음악 무용곡의 이름으로 썼음.
- 921) 長短, 전통음악에서 박자를 가리키는 명칭인 '장단'의 '단'이 비단 이름 끝에 붙는 '단'과 같기 때문에 비단 이름 뒤에 썼음.
- 922) 부엌이 달려 있는 안채의 방.

- 923) 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924) 옆으로 여닫는 창.
 925) ‘국화새김’은 국화무늬를 새겨 넣은 것을 가리키며, ‘완자문’은 긴자 무늬로 창살을 짠 문을 가리킴.
 926) 花爛春城. 봄날에 꽃들이 난만하게 폼.
 927) 萬化方暢.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한창 피어나 자람.
 928) 蜂蝶. 벌과 나비.
 929) 紛紛. 어지러이 날아다님.
 930) 花草綴. 꽃과 풀 무늬를 그려 넣은 비단.
 931) 가상의 비단 이름인 듯함.
 932) 桃李佛手. 복숭아나 오얏처럼 생긴 노리개. 여기서는 ‘가지 말라’에 이어져서 ‘돌아볼’과 음이 비슷하여 쓰인 말.
 933) 獨守空房. 홀로 빈 방을 지킴.
 934) 相思綴.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비단’이라는 뜻으로, 가공의 비단 이름.
 935) 夏雲이. 여름 구름무늬가 있는 비단이라는 뜻으로 지은 비단 이름인 듯.
 936) 雲紋이. 구름무늬가 있는 비단이라는 뜻으로 지은 비단 이름인 듯.
 937) 三伏炎天. 삼복의 불꽃같은 더위.
 938) 秋月. 가을 달.
 939) 貢綴. 무늬가 없고 두꺼운 비단.
 940) 嚴冬. 몹시 추운 겨울.
 941) 大寒. 이십사절기의 하나.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300도에 이른 때로 한 해의 가장 추운 때이다. 1월 20일경이다.
 942) 설릉(雪綾). ‘농사’가 ‘명주실로 짠 얇고 조금 성긴 비단’이므로, 눈처럼 흰 농사인 듯.
 943) 洋太紋. 갓끈으로 많이 쓰이는 양태문 갑사.
 944) 賣買. 사고파는 흥정.
 945) 甲紗. 품질이 좋은 얇은 비단. 여름 옷감이나 땀기로 많이 씀.
 946) 毛納綴. 모초(毛綃).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하나. 날은 가는 울로, 씨는 굵은 울로 짠다.
 947) 날은 명주실, 씨는 명주실과 무명실을 두 올씩 섞어 짠 피륙.
 948) 말 발굽 소리의 의성어.
 949)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950) 細발浪綾. 발이 가늘고 얇은 비단.
 951) 구름綴. 구름 무늬가 있는 비단.
 952) 靑紗. 푸른색 사. ‘사’는 얇은 비단.
 953) 紅紗. 붉은색 사. ‘사’는 얇은 비단.
 954) 通絹. 아주 얇은 비단.
 955) 白浪綾. 흰색 낭릉. ‘낭릉’은 얇은 비단.
 956) 月下紗紬. 비단 이름인 듯하나 불명. 다른 데서는 ‘모래사주’로 부르기도 한다.
 957) 統衣紬. 병사의 군복을 짓는 옷감.

- 958) 防衣紬. '방'의가 '동북쪽이나 서쪽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입던 옷'이므로, '방의주'는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입던 옷을 짓는 옷감인 듯.
- 959) 海南布. 전라남도 해남에서 나던 올이 가는 모시.
- 960) '도루마(麻)'의 방언. 여름 옷감으로 쓰이는 중국 베.
- 961) 당저포(唐苧布). 폭이 조금 넓고 올이 독특한 모시.
- 962) 몽고 三升. 몽고에서 나던 굵고 질긴 베. '삼승'은 240올의 날실로 짠 베라는 뜻으로, 성글고 굵은 베를 이르는 말.
- 963) 鐵藍布. 쇠 빛갈과 남색이 나는 베.
- 964) 成川 盆紬. 평안도 성천에서 나는 비단. '분주'는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나는 비단.
- 965) 疋누비. 누비 모양으로 짠 피륙. 발이 고우며 지금의 코르텐과 비슷하다.
- 966) 六鎭布. 육진이 있던 곳에서 나는 삼베. '육진'은 조선 시대에, 지금의 함경북도 북변(北邊)을 개척하여 설치한 여섯 진(鎭). 세종 때 둔 것으로, 경원·경흥·부령·온성·종성·회령의 진을 이른다.
- 967) 불명.
- 968) 林韓山. 충청남도 임천과 한산.
- 969) 細모시. 올이 가는 모시.
- 970) 善藍. 고운 남색 옷감.
- 971) 黃苧布. 게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것.
- 972) 紫紬. 자주빛이 나는 명주.
- 973) 細麻布. 가는 삼실로 짠 고운 삼베.
- 974) 極上細木. 아주 발이 가는 무명베.
- 975) 生絛. 명주실로 얇게 짠 비단의 한 가지.
- 976) 三八. 삼팔주(三八紬). 중국에서 나는 명주의 한 가지.
- 977) 甲紬. 품질이 좋은 고급 명주.
- 978) 庫紗. 고급 비단의 한 가지. 감이 약간 두껍고 깔깔하며 윤이 나는 여름 옷감.
- 979) 官紗.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생사로 짠 여름 옷감.
- 980) 靑貢緞. 푸른색 공단. '공단'은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이 있는 고급 비단.
- 981) 紅貢緞. 붉은색 공단.
- 982) 白貢緞. 하얀색 공단.
- 983) 黑貢緞. 검은색 공단.
- 984) 松花色. 소나무 꽃 색깔. 곧 노란 색깔.
- 985) 半回裝. 여자 저고리의 깃, 끝동, 고름만을 자줏빛이나 남빛의 형질로 대어 꾸민 것.
- 986) 때가 묻어 더러워진.
- 987)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것.
- 988) 망건당줄.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 망건당에 꿰는 아랫당줄과 상투에 동여매는 윗당줄이 있다.
- 989)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 매는 줍다란 끈.
- 990) 淸人. 청나라 사람. 곧 중국사람.
- 991) 零落없이.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들어맞게.
- 992) 모양.
- 993)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띠 머리. 가발.
- 994) 여자의 길게 땀은 머리끝에 드리는 형겔이나 끈.
- 995) 여자의 치마 속, 바지 위에 덧입는 속옷.
- 996) 옛 복장에서 여자가 맨 속에 입는 속옷으로, 다리통이 넓고 밑이 막혀 있음.
- 997) 여자의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가지.
- 998) 타면.
- 999) 銀金寶貨. 금은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 1000) 툇의 앞부분.
- 1001) 嚴冬雪寒. 눈 내리는 몹시 추운 겨울.
- 1002) 驅迫당하여. 못 견디게 학대당하여.
- 1003) 廊 속에. '곽'은 관(棺)을 넣은 걸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관의 의미로 썼음. 관(棺) 속에.
- 1004) 갈기 때문에.
- 1005) 一身手足. 한 몸의 손과 발.
- 1006) 연이어 달려 나오는데.
- 1007) 큰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는 연장.
- 1008) 작은 자귀.
- 1009) 큰 끝. '끝'은 연장의 하나로,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 씀. 가늘고 긴 쇠의 날을 세워 위에는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망치로 때려 구멍을 팼.
- 1010) 작은 끝.
- 1011) 목공이나 석공이 끝은 금을 긋는 데 쓰던 기구.
- 1012) 큰 툇.
- 1013) 건축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 1014) 上樑. 집을 지을 때에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놓음. '마룻대'는 집의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는 나무.
- 1015) 明朗.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
- 1016) 예전에.
- 1017) 朱欄畫閣.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 1018) 半空. 반 공중.
- 1019) 東山下. 동쪽에 있는 산 아래.
- 1020) 넓은.
- 1021) 八卦를 놓아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방위를 잡아서.
- 1022) 사방으로 빙 둘러친 담.
- 1023) 中門. 대문 안에 거듭 세운 문.
- 1024)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만든 대문.

- 1025) 壁龕. 바람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문밖에 장을 짜 달아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곳.
- 1026) 다락. 부엌 천장 위의 공간을 이용하여 이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 1027) 萬石지기. 벼 만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 1028) 千石지기. 벼 천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 1029) 百家口 중문서. 백 가구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문서.
- 1030) 넘칠 정도로 가득한 모양.
- 1031) 角壯壯版. 보통 것에 견주어 더 넓고 두꺼운 장판지로 바닥을 바른 장판.
- 1032) 소란 반자. 정(井) 자를 여럿 모아놓은 것처럼 반자들을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판자를 넣어 만든 반자. '반자'는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반반하게 만든 천장.
- 1033) 畝 자 무늬가 여럿 이어져서 이루어진 미단이문.
- 1034) 樨榴文匣. 곱고 단단하며 붉은 빛을 띤 자단목으로 만든,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긴 껍.
- 1035) 玳瑁冊床. 대모로 만든 책상.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
- 1036) 詩傳. 주희가 주해를 단 《시경(詩經)》.
- 1037) 書傳. 송나라 때에 주희의 제자인 채침이 주해를 단 《서경(書經)》.
- 1038) 周易. 삼경(三經)의 하나로, 중국 주(周)나라 초에 지어진 길흉을 판단하여 점치는 책.
- 1039) 古文眞寶. 중국 송나라 말기에 황견(黃堅)이 주(周)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의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전집(前集)에는 시, 후집(後集)에는 문(文)을 실었다. 20권.
- 1040) 通史略. 북송의 사마광이 편년체로 엮은 역사책인 《자치통감(自治通鑑)》과, 원나라 중선지가 엮은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아울러 일컫는 말.
- 1041) 좋음도, 좋기도.
- 1042) 가르치고.
- 1043) 土農工商. 예전에,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공장(工匠, 기술자), 상인을 이르던 말이다.
- 1044) 求婚. 결혼을 청함.
- 1045) 생김새가 흰하고 멀끔하게.
- 1046) 風便. 어떤 말을 누구에게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
- 1047) 보통 사람.
- 1048) 점잖지 못하고 잡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1049) 可觀.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050) 道服. 도포(道袍).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폭을 댄다.
- 1051)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 1052) 뉘우치거나 탄식할 때 아주 가볍게 내는 소리.
- 1053) 落鄉. 서울에서 시골로 거처를 옮김.
- 1054) 綱常之怪戾이로구나. '강상지괴변'은 삼강과 오상(오륜)의 도덕에 어긋나는 괴이한 사건.
- 1055) 몸에 병이나 탈이 없느냐?

- 1056)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
 1057) 倭畵器. 그림을 그린 일본식 사기그릇.
 1058) 唐畵器. 그림을 그려 넣어 구운 중국 사기그릇.
 1059) 四十扇. 부채살이 40개인 큰 합죽선 부채.
 1060) 前日. 지난날.
 1061) 嫗叔. 남편의 형제.
 1062) 家長. 집안의 어른. 남편.
 1063)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1064) 충청도 한산에서 나던 올이 가는 모시.
 1065) 중국에서 들여온 푸른색 물감.
 1066) 푸르스름하게 들어.
 1067) 치마의 마루폭.
 1068) 넓게.
 1069) 왼쪽으로.
 1070) 금빛 나는 자라.
 1071) 서서 하지 않고 앉으면서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리는 절.
 1072) 벌떡.
 1073) 서로 동등한 예를 갖추어 마주하는 절.
 1074) 높고 당당하게.
 1075) 놀라우면서도 약간 비꼬는 뜻을 나타내는 감탄사.
 1076) 시골티.
 1077) 일하는 모양이 꼼꼼하고 숨씨가 있던가.
 1078) 安城鑪器. 안성에서 나는 질 좋은 놋그릇.
 1079) 統營漆板.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옷칠 소반.
 1080) 질 좋은 은.
 1081) 구리 석쇠. 구리로 만든 석쇠. '석쇠'는 고기나 굶은 떡 조각 따위를 굽는 기구. 네모지거나 둥근 쇠 테두리에 철사나 구리 선 따위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만든다.
 1082) 執吏書吏. 관아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1083) 數 벌이돛. 계산을 위해 산대를 벌여 놓돛. '산대'는 옛날 계산을 위해 쓰던 대나무 막대기로, 산가지라고도 함.
 1084) 烏竹板. 빛깔이 검고 작은 대나무인 오죽에다 꽃을 그려 붙여 만든 소반.
 1085) 대 모양 陽刻 唐畵器. 대 모양을 돌출새김하여 그려 넣은 중국산 사기 그릇.
 1086)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여기서는 송편을 찔 때 넣는 솔잎이 얽혀 있는 모양을 가리킨 듯.
 1087) 반돛.
 1088) 貞節餠. 네모 반듯하게 자른 흰떡.
 1089) 팔을 꺾질 채로 삶아 찢 떡.
 1090) 蘋果. 사과.
 1091) 眞淸. 벌꿀.

- 1092) 生淸. 불에 끓이지 않은 꿀.
- 1093) 鳥卵 산적. 달걀을 풀어 썬 구운 산적.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 1094) 위에다 곁들여.
- 1095) 소의 밥통의 고기로 만든 회.
- 1096) 소·양 따위의 새김질하는 짐승의 셋째 밥통.
- 1097) 淸團. 꿀물에 경단(참쌀로 만든 작고 둥그란 떡)을 담근 것.
- 1098) 水團.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경단을 담근 것.
- 1099) '갓배기'는 갓을 문힌 박산(산자의 몸이나, 엽을 반듯하고 얇게 잘라 갓이나 호두 따위를 양쪽에 붙인 유밀과).
- 1100) 軟脯. 살점을 떠서 말린 고기.
- 1101) 片炙. 적(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번철에 지진 음식)의 일종.
- 1102) 巨炙. 적의 일종. '큰 적'이라는 뜻이므로, 보통보다 특별히 크게 구운 적을 가리킨 듯.
- 1103) 桃炙. 적의 일종. 복숭아 꽃잎을 넣어 붙인 적인 듯.
- 1104) 음식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1105) 메밀탕수. 메밀을 넣어 끓인 탕국.
- 1106) 魚脯. 생선의 살을 얇게 저미어 양념을 하여 말린 것.
- 1107) 肉脯.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얇게 저미어 양념을 하여 말린 것.
- 1108) 처넵으로 만든 음식의 일종.
- 1109) 병거지 모양의 전골을 지지는 그릇.
- 1110) 소의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을 통틀어 일컫는 말.
- 1111) 차돌박이. 양지머리뼈의 복판에 붙은 회고 단단한 기름진 고기. 편육을 만들면 맛이 좋음.
- 1112) 꿩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1113) 生稚. 익히지 않은 꿩고기.
- 1114) 오도독. 단단한 물건을 깨무는 소리.
- 1115) 포드닥. 작은 날짐승이나 물고기가 날개나 꼬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 1116) 메추리탕. 메추리 고기로 끓인 탕국.
- 1117) 물을 자꾸 치거나, 물건이 자꾸 깊은 물에 떨어지는 소리.
- 1118) 거자.
- 1119) 고추.
- 1120) 말린 문어나 전복 따위를 봉황 모양으로 올려서.
- 1121) 그릇에 차곡차곡 쌓아올려 놓고.
- 1122) 잘게 썬 고기에 양념을 하고, 어패류·버섯·채소 따위를 섞은 다음, 국물을 조금 붓고 끓인 음식.
- 1123) 白炭. 떡갈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숯. 숯 가운데서 가장 화력이 썸.
- 1124) 고추같이 일워 놓고. 불의 세기를 빨간 고추에 빗댄 말. 불을 잘 일워 놓고.
- 1125) 살진.

- 1126) '방자 고기'의 잘못. 썰지 않은 채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 구운 짐승의 고기.
 1127) 半還刀. 주로 고기를 썰 때 쓰는, 끝이 말려 올라간 큰 칼.
 1128) 點點片片. 작고 둥글게 또는 납작하게.
 1129) 든든하고 질기거나 번드러운 물건을 되게 문지르거나 마주 갈 때에 나는 소리.
 1130) 불어나게 하여.
 1131) 재워내어. 음식에 간이 배도록 미리 손질해 내어.
 1132) 大양판. 큰 양푼. '양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놋그릇으로 운두가 낮고 아가리가 넓음.
 1133) 小양판. 작은 양푼.
 1134) 여기도.
 1135) 저기도.
 1136) 山菜. 산나물.
 1137) 水芹. 미나리.
 1138) 녹두나물을 데쳐서 양념을 한 음식.
 1139) 된장국이 아닌 국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1140) 들이붓고. 세차게 붓고.
 1141) 곱질.
 1142) 떼고.
 1143) 드리워라. 위에 얹어 부어라.
 1144) 쇠로 만든 젓가락.
 1145) 나무로 만든 젓가락.
 1146) 드러라.
 1147) 덩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1148) 흠뻑 적셔.
 1149) 天銀瓶. 천은으로 만든 병. '천은'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은. 순도가 십성 곧 100%인 것을 이른다.
 1150) 平沙落雁. 모래펄에 날아와 앉은 기러기. 소상팔경의 하나로 흔히 그림의 화제가 된다.
 1151) 기러기 모양으로 생긴 병.
 1152) 琥珀杯. 보석인 호박으로 만든 술잔.
 1153) 過夏酒. 소주와 약주를 섞어 빚어서 주로 여름에 마시는 술.
 1154) '술을 올림' 정도의 의미로 쓴 듯함.
 1155) 여기 있소.
 1156) 아주버니를 높여 이르는 말. '아주버니'는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1157) 가볍게 자꾸 흘려보는 모양.
 1158) 數. 여러.
 1159) 勸酒歌.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1160) 三牌. 기생 중에서 가장 낮은 급에 속하는 기생의 부류.

- 1161) 본(本)으로. 모양으로.
 1162) 弟嫂더러. 동생의 아내에게.
 1163) 古今天地. 옛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1164) 錢穀藉勢. 돈과 곡식이 있다고 빼기고 으시대는 일.
 1165)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1166) 驅迫을 당하여. 몹시 못 견디게 학대를 당하여.
 1167) 郭. 관(棺)을 넣는 걸레.
 1168) 겹연쩍고 부끄러워서.
 1169) 하느냐?
 1170) 다닌다면서?
 1171) 알면서.
 1172) 營門出使. 감영에서 명령을 받고 나온 포교.
 1173) 倫紀. 윤리와 기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74)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
 1175)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시키면.
 1176) 성조(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1177) 자꾸 파닥파닥하는 모양. ‘파닥’은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178) 金銀寶貨. 금 은 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1179) 天下.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1180) 쉽구나.
 1181) 열이 조금 넘는 수의.
 1182) 巨富. 아주 큰 부자.
 1183) 長者.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1184) 秘不發說. 비밀을 지켜서 밖으로 말을 내지 않음.
 1185) 붉은.
 1186) 花草織. 문짝에 화초의 그림을 그려 만든 장롱.
 1187) 달라. 다오.
 1188) 뭇을 만들어 놓아두었다는 의미.
 1189) 흥(兎)한. 성질이 악하고 거친.
 1190) 겹데기.
 1191) 優渥은 卽發이요. 넓고 두터운 은혜는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이요.
 1192) 每事는 不如튼튼. 모든 일은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1193) 자등짐하려니까. ‘자등짐’은 스스로의 등에다 짐을 짊어짐.
 1194) 흔하던. 많던. 잦던.
 1195) 하더구만.
 1196) 뒤에다 붙이면서도. 여기서는 글자 셋을 서로 돌아가면서 뒤에다 붙이는 것을 가리킴.
 1197) 房帳. 겨울철에 외풍을 막기 위하여 방문이나 창문에 치는 휘장.

- 1198) 온돌방에서 연기가 나가는 통로 위에 깔아 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 1199)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1200) 숨이 차서 숨소리가 고르지 아니하고 가쁘고 급하게 나는 모양.
- 1201) 목소리.
- 1202)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급소.
- 1203) 오간(五間). 다섯 간. ‘간’은 넓이의 단위. 건물의 칸살의 넓이를 잴 때 쓴다. 한 간은 보통 여섯 자 제곱의 넓이다.
- 1204) 前後退. 집채의 앞뒤로 다른 기둥을 세워 만든 조그마한 칸살.
- 1205) 한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도록.
- 1206) 網巾당. 망건의 윗부분. 말총을 촘촘히 세워 곱쳐 구멍을 내어 윗당줄을 꿰게 되어 있다.
- 1207) 玳瑁. 바다거북의 등껍질.
- 1208) 風簾. 망건의 당 앞쪽에 대는 장식품. 쇠뿔, 대모, 금패 따위로 만들며 여기에 갖모자가 걸려서 바람이 불어도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1209) 거들먹거리고.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자꾸 함부로 거만하게 행동하며.
- 1210) 들어올려서 어깨에 메고.
- 1211) 휘몰아 쫓거나 낚아채리.
- 1212) 19세기에 활동했던 명창 중에서 뛰어났던 여덟 명 정도를 아울러 일컫는 말. 전기 팔명창과 후기 팔명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기 팔명창은 권삼득, 송홍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주덕기, 황해천, 후기 팔명창은 박우전, 박만순, 이날치, 김세중, 송우룡, 정창업, 정춘풍, 김창록, 장자백, 김찬업, 이창윤 등이다.
- 1213) 權三得. 19세기 초반(1771-1841)에 활동했던 전기 8명창 중의 한 사람. 전복 완주 출신이며, ‘덜령제(권제, 권마성제, 설령제라고도 함)’를 만들었다고 함.
- 1214) 권삼득이 만들었다는 판소리 선율의 하나로, 매우 남성적이며, 씩씩한 느낌의 선율이다. 덜령제, 권마성제, 설령제라고도 한다.
- 1215) 春節. 봄철.
- 1216) 三刻. 세 때. 여기서는 석 달의 의미로 쓰였음. 뒤에 ‘지나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함.
- 1217) 夏四月. 여름 4월.
- 1218) 8일.
- 1219) 燕子. 제비.
- 1220) 피꼬리는 피꿀피꿀 울기 때문에, 피꼬리가 운다는 말을 제 이름을 제가 부른다고 표현한 것임.
- 1221) 右道峰. 오른 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지어 붙인 것.
- 1222) 左道峰. 왼 편에 있는 산 이름으로 지어 붙인 것.
- 1223) 건너편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1224) 맞은편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1225) 층층(層層)으로.
- 1226) 伏羲氏. 그물을 만들었다는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 1227) 등글게 휘어 당겨.
 1228) 方丈山. 지리산의 다른 이름.
 1229) (떨기나무나 덩굴풀 따위가)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1230) 닭이나 참새 따위를 쫓을 때 외치는 소리.
 1231) 行한다? 가느냐?
 1232) 春日黃鶯. 봄날의 피꼬리.
 1233) 南飛鳥鵲.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까치.
 1234) 鳶飛戾天. 솔개가 하늘 높이 날다. 《시경》 〈대야(大雅)〉에 있는 구절.
 1235) 솔개. 수릿과에 딸린 새. 매보다 크고 날카로운 굽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들쥐, 물고기, 조개류 따위를 잡아 먹는다.
 1236) 層巖絕壁. 층층이 바위가 쌓인 높은 절벽.
 1237) 火及棟樑. 기둥과 들보에 불기운이 끼었다는 뜻.
 1238) 數. 운수.
 1239) 去中. 공중.
 1240) 中天. 하늘의 한가운데.
 1241) 行한다. 간다.
 1242)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와서.
 1243) '성조(成造)'라고도 함.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1244) 몇.
 1245) 翻之翻之. 새가 날면서 오르락내리락함.
 1246) 草席노. 자리를 만들려고, 벚짚이나 보릿짚, 왕골 따위로 꼬아 만든 줄.
 1247) 靑國時調. 청나라에서 부르는 시조.
 1248) 그러한 음조(音調)로.
 1249)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1250) 爪毒. 손톱으로 굽은 자리에 굳이 들어서 생긴 염증.
 1251) 자꾸 파닥파닥하는 모양. '파닥'은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252) 크고 가볍게 떠는 모양.
 1253) 이키. 몹시 놀라거나 뜻밖의 상황을 접하였을 때 갑자기 내는 소리.
 1254) 失物. 잃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림.
 1255) 自將作技. 스스로 피를 부릴.
 1256) 수단이나 방법.
 1257) 무릎.
 1258) 가늘고 약한 물건이 부러지는 모양.
 1259) 부러뜨려서.
 1260) 여기.
 1261)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1262) 九萬長天. 한없이 높고 넓은 하늘.

- 1263)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
 1264) 병이나 탈이 없는.
 1265) 부러뜨려.
 1266) 萬里 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1267) 江南之杜鵑. 강남의 두견새.
 1268) 祖宗之望帝라. 임금 중에 촉나라 망제이다. 임금 중에서 촉 나라 망제의 님이었다. 망제는 주나라 말기에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를 말하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 그 님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1269) 百鳥. 온갖 새.
 1270)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1271) 갈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1272) 상처가 나오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톰해져서.
 1273) 절뚝거리고.
 1274)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275) 아뢰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76) 不測한. (마음씨 행동 따위가) 엉금하고 껄뻘한.
 1277) 부러뜨려서.
 1278) 天幸. 하늘이 내린 행운.
 1279) 갠사오리카. 갠겠습니까?
 1280) 洞燭.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1281) 不測한.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껄뻘하고 엉금한.
 1282) 明春. 내년 봄.
 1283) 讐風. 원수를 갚을 풍파
 1284) 三冬. 겨울의 석달.
 1285) 三春. 봄 석 달.
 1286) 方壯하니. 만물이 바야흐로 한창이니.
 1287) 날짐승들. 새들.
 1288) 還國. 고국으로 돌아감.
 1289) 路程記. 여행할 길에 대해 적은 글. 제비가 강남에서 홍보 집까지 오는 행로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다니던 길의 노정과 같다.
 1290) 다르기는. ‘놀보 제비노정기’는 박록주바디의 특징적인 사설임을 일컬음.
 1291) 다르던가.
 1292) ‘안쪽 가까이에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산 이름인 듯.
 1293) ‘바깥 쪽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산 이름인 듯.
 1294) 蜀國. 촉나라. 중국 사천성의 옛 이름.
 1295) 蜀山道. 촉산 가는 길. ‘촉산’은 중국 산둥성 문상현에 있는 산.
 1296) 洛陽城. 중국 하남성 북부에 있는 옛 도시.

- 1297) 瀟湘江.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 부근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소상팔경(瀟湘八景)이 있음.
- 1298)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종류에 있음.
- 1299) 金陵. 남경(南京)을 이룸. 중국 강소성의 성도. 옛부터 여러 번 도읍지가 되었으므로 유적이 많음.
- 1300)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 1301) 姑蘇臺. 중국 춘추시대에 오나라 임금 부차가 지은, 강소성 고소산에 있는 누대.
- 1302) 五嶽 衡山. ‘오악’은 중국에서 일컫는 다섯 산으로 동악(東嶽) 태산(泰山), 서악(西嶽) 화산(華山), 남악(南嶽) 형산(衡山), 북악(北嶽) 항산(恆山), 중악(中嶽) 숭산(嵩山)을 이룸. ‘형산’은 오악 중 남악으로 일컬어지는 산으로 중국 호남성에 있음.
- 1303) 불명.
- 1304) 불명.
- 1305) 月下城. ‘달빛 아래 신선이 노는 곳’이란 의미로 지어진 지명.
- 1306) 姑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307)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308) 阿房宮. 중국의 진시황이 함양에 짓다가 만 크고 호화로운 궁전. ‘아방궁’의 이름은 그 일대인 아방촌에 세워진 궁궐이란 뜻으로 뒷사람들이 붙인 이름.
- 1309) 萬里長城. 중국의 화북과 내몽고와의 경계선에 동서로 길게 뻗은 성벽으로 된 유적. 산해관에서 감숙성 가옥관에 이룸. 전국시대에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북쪽에, 흉노를 막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쌓았던 것인데, 진시황이 완성했음. 남북조시대에는 거란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쌓았으며, 현존하는 것은 명나라가 몽고인에 대비하여 쌓은 것임. 길이 약 2,400km, 높이 약 6-9m, 두께는 4.5m임.
- 1310) 冬雪嶺. 눈 덮인 높은 고개.
- 1311) 三南.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세 지방을 함께 부르는 말.
- 1312) ‘무리무리’의 뜻으로 쓰인 의태어. ‘포기’는 ‘떨기(叢)’에서 온 말.
- 1313) 지저귀며.
- 1314) 言約. 약속.
- 1315) 中天. 하늘 가운데.
- 1316) 赤壁江. 중국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을 흐르는 양자강을 이룸.
- 1317)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1318)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1319) 而今은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1320) 靑石嶺. 만주 요령성에 있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연경을 갈 때에 지나던 곳.
- 1321) 玉河館. 북경 서쪽으로 흐르는 사하(沙河)에 있는 옥하교 위에 있던, 우리나라 사신이 묵던 곳. 나중에는 북경 안의 조선관으로 속소를 옮겼다.
- 1322) 瀋陽江. 중국 요동성의 성도인 심양 부근을 흐르는 강 이름인 듯.
- 1323) 定州. 평안북도 남서 해안에 있는 읍.

- 1324) 順安. 평안남도의 평양과 순천 사이에 있는 고을.
 1325) 順川. 평안남도 순천군의 군청 소재지.
 1326) 萬戶長安. 수많은 집이 가득한 서울.
 1327) 秀色. 뛰어나게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
 1328) 불명.
 1329) 文章 孝子 烈女 家家在라. 문장가와 효자와 열녀가 집집마다 있다.
 1330) 送客亭. 평양의 서쪽에 있던 정자.
 1331) 愁雲間. 슬픔을 느끼게 하는 구름 사이.
 1332) 화살.
 1333) 府中. 부 안에. ‘부’는 조선시대 행정구역 명칭.
 1334) 王太祖. 고려 태조 왕건을 가리킴.
 1335) 古史蹟. 역사상으로 남아 있는 옛날의 중요한 자취.
 1336) 滿月臺. 개성 북쪽의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 왕조 450년 동안의 왕궁터.
 1337)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개.
 1338) 楊州郡. 본디 한양은 양주군의 한 고을이었다.
 1339) 億萬 勢力을 應하였고. 수많은 세력을 대하였고.
 1340)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1341) 長安. 서울.
 1342) 南山은 千年山, 漢江은 萬年水라. 남산은 천년을 내려온 산이요, 한강은 만년을 흐르는 물이다.
 1343) 彬彬하고. 빛나고.
 1344) 嬉嬉하여. 기쁘고 즐거워.
 1345)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에 걸쳐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금탕’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 성은 쇠와 같고, 성을 둘러싼 연못(해자)은 끓는 물과 같다는 말로, 방어가 튼튼함을 가리키는 말.
 1346) 어름. 두 지역이 맞닿은 곳.
 1347) 讐風. 원수를 갚을 바람이라는 뜻.
 1348) 七牌. 칠패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1349) 八牌.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붙인 이름.
 1350) 靑坡. 남대문에서 10킬로미터 쯤 떨어져 있던 역. 따라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1351)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다리 이름인 듯.
 1352) 오늘날의 이태원고개.
 1353) 銅雀江. 동작동 가까이 흐르는 한강의 한 지류.
 1354) 越江. 강을 건넌.
 1355) 僧房. 지명인 듯하나, 불명.
 1356) 南太嶺. 동작동과 과천 사이의 고개.
 1357) 크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모양.
 1358) 監營. 감사(監司)가 일을 보던 관청.
 1359) 전주의 남서쪽에 있는 산의 일곱 봉우리.

- 1360) 세차게 달려.
- 1361) 남원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
- 1362) 一刻이 如三秋. 짧은 동안도 삼년 같이 생각된다는 뜻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몹시 간절함을 이르는 말.
- 1363) 天道地道. 하늘과 땅의 이치. 자연의 이치.
- 1364) 天道之度가 반갑다. 자연의 섭리로 제비가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
- 1365) 讐風이. '원수를 갚을 바람'을 의인화한 표현.
- 1366) 넘나들며 놀다가.
- 1367) 兩主. 부부를 일컬음.
- 1368) 白雲間. 흰 구름 사이.
- 1369) 여기.
- 1370) 怨讐 讐 字, 바람 風 字. 원수 '수(讐)'라는 글자와 바람 '풍(風)'이라는 글자.
- 1371) 怪異히니. 이상야릇하니.
- 1372) 감추어진 일의 내용.
- 1373) 文章. 여기서는 '문장가(文章家)'들을 일컬음. 글을 잘 짓는 사람들.
- 1374) 緋緞 緞 字. 비단 수(繡)라는 글자.
- 1375) 豐年 豐 字. 풍년 풍(豐)이라는 글자.
- 1376) 거름기가 직접 씨앗이 닿지 않도록 흰 짚싹을 놓고.
- 1377) 무르거나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살살 두드려 누르는 모양.
- 1378) 튼튼하게.
- 1379) 數日. 며칠. 여러 날.
- 1380) 새로 돌아온 박의 연한 짝.
- 1381)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로 둥글고 길게 만든 도구.
- 1382) 덩굴.
- 1383) 갚아야 할 것을 치르느라고.
- 1384) 數數百 냥. 수백 냥. 여러 백 냥. 많은 돈.
- 1385) 당최. 도대체.
- 1386) 생원님. 일반 백성이 양반 선비를 부르던 말.
- 1387) 대신 일을 하여 품삯을 받는 사람.
- 1388)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볼록 나온 사람.
- 1389) 병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붙거나 팔뚝이 없는 팔을 가진 사람.
- 1390) 절름발이.
- 1391) 겉으로는 멀쩡하나 실상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
- 1392) 쌍언청이.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두 군데가 찢어진 사람.
- 1393) 다리가 뻗뻗하여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
- 1394) 장애 때문에 걸을 때마다 팔을 휘저으며 다니는 사람.
- 1395) 役軍. 공사 터에서 샅일을 하는 사람.
- 1396) 三時. 아침, 점심, 저녁.

- 1397) 스프렁. 물건이 쏠리면서 조금 크고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398) 슬근. 물체가 서로 맞닿아 가볍게 스치며 자꾸 비벼지는 모양.
 1399) 당기어라.
 1400) 오나. 청보가 언청이라 ‘오나’ 발음이 ‘혼야’로 난 것임.
 1401) 툽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1402)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앞소리를 메기어라.
 1403)孟子라. 《맹자》라는 책이다.
 1404)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曰叟 | 不遠千里而來하시니. 《맹자》〈양혜왕편(梁惠王篇)〉에 나오는 말. 맹자가 양혜왕을 뵈니 왕이 말하기를 노인장께서 천 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주시니.
 1405)書堂. 글방. 책을 두고 공부를 하는 방.
 1406)속이네.
 1407)두레박 이마. 두레박처럼 못생긴 이마.
 1408)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턱.
 1409)주먹처럼 뭉툭하게 생긴 상투.
 1410)납작한 코.
 1411)世代로. 대대(代代)로. 대를 이어서.
 1412)各宅. 각각 우리 집. ‘택’은 양반이 하인 앞에서 자기 집을 이르는 말.
 1413)之後에. 이후에.
 1414)宅. 우리 집. 양반이 하인 앞에서 자기 집을 이르는 말
 1415)不知去處. 간 곳을 모름.
 1416)不遠千里. 천 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음.
 1417)여기에.
 1418)上典님前에. 상전님께. 주인님께.
 1419)마르고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
 1420)先代. 앞선 세대.
 1421)어찌할 수 없이.
 1422)나인들. 나라고 해서.
 1423)代錢. 대신으로 내는 돈.
 1424)贖良. 노비가 몸값을 내고 양민이 됨.
 1425)‘비켜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1426)多少. 많고 적음.
 1427)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며 하는 말.
 1428)錢穀間에. 돈이나 곡식이나 간에.
 1429)힘 있게 위로 끌어올려 들고.
 1430)쌔를 넣어두는 뒤주.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의 하나. 나무로 껴짜곤 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1431)家産. 집안의 재산.
 1432)等物. 여러 가지 물건.

- 1433) 凌天囊. 그 속에 넣은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주머니.
 1434) 본(本)이. 모양새가.
 1435) 채워 달라. 채워 다오.
 1436)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1437) 서 있으니.
 1438) 志氣. 의지와 기개.
 1439) ‘언청이’의 다른 이름.
 1440)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할 때 내는 소리.
 1441) 呼名. 이름을 부름.
 1442) 이제.
 1443) 金飯床器. 금으로 만든 반상기. ‘반상기’는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게 만든 한 벌의 그릇.
 1444) 銀飯床器. 은으로 만든 반상기.
 1445) 밖이나 앞으로 기운차게 달려 나온다.
 1446) 物色. 사정이나 형편.
 1447) 喪輿.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
 1448) 萬里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1449) 北邙山川. 북망산.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 중국의 북망산에 무덤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1450) 明堂. 풍수지리에서 장차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뗏자리나 집터.
 1451) 묘(墓). 무덤.
 1452) 移職. 직장이나 직업을 옮김.
 1453) 代錢. 대신으로 내는 돈.
 1454) 運喪하옵소서. 상여를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1455) 그래버려라. 그렇게 해버려라.
 1456)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1457) 모두.
 1458) 男寺黨과 女寺黨. 남자 사당패와 여자 사당. ‘사당’은 조선조 후기에 생긴 유랑 연예인으로 남사당은 ‘거사’라고도 함.
 1459) 居士. 결사(乞士)가 변하여 된 말.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춤과 노래와 재주를 피워서 돈을 벌던 패들.
 1460) 장타령을 부르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
 1461) 기괴한 여자 모양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던 유랑 연예인.
 1462) 行下. 놀이를 끝낸 기생이나 광대들에게 주는 보수.
 1463) 既往. 이미.
 1464) 그렇게 하십니까.
 1465) 음정을 맞추는데.
 1466) 우리나라 활현악기의 하나. 꺽꺽이라고도 한다. 고려 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

- 로, 속이 빈 나 통에 나무를 꽃아 활 모양으로 줄을 걸었다.
- 1467) 재물을 피우고 노는데.
- 1468)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 편이 먼저 부르면.
- 1469) 그렇게 하지를.
- 1470) 愍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 1471) 水碧沙明兩岸苔 不勝清怨却飛來.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른데,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움 못 이끼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 1472) 금바위. 금빛 바위인 듯.
- 1473) 꼭대기.
- 1474) 상수리나무의 방언.
- 1475) 이제.
- 1476) 場打令. 흔히 ‘각설이타령’이라고 함, 동냥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거리로 돌아다니며 부른 노래.
- 1477) 전라도 지역에서 부르는 음조(音調).
- 1478) 각설 春秋. ‘춘추’는 공자가 쓴 경서의 하나인데, ‘각설 춘추’는 각설이 타령의 사설을 우습게 높여 이르는 말.
- 1479) 너희.
- 1480) 낱아.
- 1481) 三間草堂. 방이 세 칸인 초가집.
- 1482) 讀書堂. 조선 왕조 때에 문관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 학업을 닦는 데에만 힘을 쏟도록 하던 곳.
- 1483) 논개(論介). 임진왜란 때의 기생으로, 전복 장수 출생.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어 왜장들이 축석루에서 주연을 베풀 때 왜장 게야무라를 안고 남강에 투신 자살했음.
- 1484) 倭將. 일본의 장수.
- 1485)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 임진왜란 때 조선에 침입했던 일본 장수.
- 1486) 萬歲流傳. 오랫동안 세상에 널리 전함.
- 1487) 경상도 지역에서 부르는 음조(音調).
- 1488) 春節. 봄철.
- 1489) 梧桐櫺籠. 오동나무로 만든 장롱.
- 1490) ‘홀장롱’이라고도 하는 단층으로 된 옛날 장롱.
- 1491) 둘이서.
- 1492) 앞으로 비어져 나오더니마는.
- 1493) 청개구리야.
- 1494) 개구리.
- 1495) 뚝뚝.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등글게 말리는 모양.

- 1496) 미나리를 심는 논. 땅이 걸고 물이 많이 괴는 곳이 좋다.
- 1497) 예전에, 장가든 남자가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맨 것.
- 1498) '귀'라고 하는 글자.
- 1499) 어떤 것의 본바탕이나 내력.
- 1500) 문짜를 문설주에 달아 여닫게 하기 위하여 문설주와 문짜에 박아 서로 맞추어 꽃게 된 쇠붙이로 된 물건.
- 1501) 통노구. 질 나쁜 낫쇠로 만든 술.
- 1502) 귀 자 머리는 놀보 心思. 벌레같은 놀보의 마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 귀(貴)라는 글자의 윗부분이 벌레 충(虫)이므로, 놀보의 마음이 벌레와 같다는 뜻.
- 1503) 後生. 죽어서 저승에서 사는 삶.
- 1504) 될까?
- 1505) 조금.
- 1506) 달라니까.
- 1507) 行下. 놀이를 끝낸 기생이나 광대들에게 주는 보수.
- 1508)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말.
- 1509)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 1510) 엎드리더니.
- 1511) 形勢. 경제적인 형편.
- 1512) '숨구멍', '숨통'의 방언
- 1513) 울타리 너머에다.
- 1514) 들지도 놓지도.
- 1515) 데굴데굴.
- 1516) 뒹굴어가다가.
- 1517) 먹같이 검은 얼굴.
- 1518) 눈동자의 둘레에 흰 고리가 둘러 눈.
- 1519) '더벅수염'의 방언. 다박솔처럼 짧고 억세며 더부룩한 수염. 다박나룻.
- 1520)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1521) 黑驄馬. 몸은 청백색이고 갈기는 검은빛이 나는 중국의 호북 지방에서 나던 좋은 말.
- 1522) 높이 올라 앉아 타고.
- 1523)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로 된 긴 창.
- 1524) 驅迫出門. 못건디게 굴어 쫓아냄.
- 1525) 百穀. 온갖 곡식.
- 1526) 부러뜨려.
- 1527) 여기서는 '업적에 대한 보답'이란 의미로 쓰였음.
- 1528) 작은 사람이 매우 공손한 몸가짐으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 절하는 모양.
- 1529) 엎드려 있을.
- 1530) 魂不附身. 몸시 놀라 넋을 잃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
- 1531) 風便. 어떤 말을 누구에게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
- 1532)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

- 1533) 죽는다고 하면. 죽으면.
 1534) 魂歸故鄉. 님이 고향으로 돌아감.
 1535) 浩浩萬歲. 호탕하게 만세를 누리.
 1536) 感心. 마음에 느끼어 감동함.
 1537) 罪狀. 죄를 저지른 형편과 상태.
 1538) 此後는. 이 이후로는.
 1539) 改過遷善. 허물과 잘못을 고치고 옳은 길로 들어섬.
 1540) 틀림없이 하라.
 1541)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1542) 자기.
 1543) 四肢. 팔과 다리를 이룸.
 1544) 일으켜 놓으니.
 1545) 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1546) 前事에. 전에 있던 일에.
 1547) 전라도 방언에서 앞의 말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는 말.
 1548) 半分하여. 절반으로 나누어서.
 1549) 友愛. 형제간 또는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함.
 1550) 面目도 없고. 부끄러워 남을 대할 용기도 없고.
 1551) 계수씨(季嫂氏). 동생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말.
 1552) 한之後에. 한 이후에. 한 뒤에.
 1553) 和睦.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1554) 教訓시켜. 가르치고 훈계하여.
 1555) 千秋萬歲. 천만 년. 아주 오랜 세월.
 1556) 판소리의 끝에 쓰이는 맺음말. 정확한 어원이나 뜻은 알 수가 없다. ‘어질더질’이라고도 한다.